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for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고영호 Ko, Youngho  
권영란 Kwon, Youngran  
최가윤 Choi, Gayoon

( a u r i

기본연구보고서 2022-15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for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지은이      고영호, 권영관, 최가운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2022년 12월 30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4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400-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연구책임	고영호 연구위원
연구진	권영란 연구원 최가윤 연구원
연구보조원	주찬영, 문자영, 이소연

---

연구심의위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연구자문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덕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과장 고선주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소원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김수진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김진아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팀장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정아 경기도광역치매센터 팀장 변혜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수경 플로우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현성 중앙치매센터 팀장
--------	--



---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 대응에서 사회구성 각 부문의 종합적 대응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어르신을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 하던 시대에서 주체적 활동과 사회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성 또한 제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어르신은 무조건적인 돌봄 대상이며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질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증가하는 우리나라 고령인구에 비례하여 치매 어르신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치매 어르신을 무조건적인 돌봄 대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어르신을 집 또는 시설에만 가두어 두는 상황이 치매 어르신 본인과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에게는 가혹한 실정이다. 중증 이상의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돌봄을 받으시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치매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부터 시설에 입소하여 여생을 보내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치매 초기의 어르신은 본인에게 익숙한 자택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생활하며 자존감과 삶의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의 사례관리에 머물러 있으며,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시설 입소를 고민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기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도시 차원의 고민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치매 어르신과 돌봄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

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 생활환경과 치매관리 서비스 결합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치매 어르신 관리·지원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과 제도, 계획과 사업을 검토하였다. 치매 질환의 특성과 치매 어르신 돌봄의 어려움을 고찰하고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 등의 한계를 도출하였으며, 영국 등 해외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을 분석하여 주택공간과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례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대상 심층면접조사(FGI)를 수행하였다.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인하였던 일반국민 1,2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사회적 입소 방어 필요성과 기존 주택과 마을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과 조성에 관한 관심과 필요인식을 확인하였다. 지자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그룹 및 도시·비도시 지역 거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치매 어르신 돌봄에 관한 현실적 어려움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일상 생활환경의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과 사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간과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방향,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적 역할 강화 등에 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모두의 안전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할 필요로서 제시된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어르신에게 익숙한 생활공간을 유지하도록 하며 적절한 자극과 방향 인지성 제공 등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강화할 필요, 돌봄 가족에게는 가족 간 관계성 유지를 지원하며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를 가지는 것으로 종합되었다.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 등에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거주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적극적 지원 필요사항을 정리하였다.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치매돌봄 개선 국가 TF 구성운영을 통한 치매안심마을 운영의 고도화 필요를 제시하였

으며,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국토부와 복지부의 관련 계획과 법률의 개선 필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치매, 치매 돌봄, 주택, 생활환경, 치매친화 생활환경, 지역사회 지속거주, 치매안심마을



---

# 차례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내용 및 방법	9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13
제2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개념 정립	17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	17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성	22
3.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생활환경	27
제3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현황과 사례	33
1. 국내 현황	33
2. 해외 사례	59
3. 시사점	77
제4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	81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82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자 FGI	97
3. 소결	112
제5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15
1.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에 따른 정책개선 방향	115
2.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의 정책개선 방향	118
3.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정책개선 방향	121

---

# 차례

CONTENTS

참고문헌	125
SUMMARY	129
부록1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설문지	131
부록2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수행 계획	141
부록3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녹취록	149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치매관리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3
[표 1-2]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4
[표 1-3] 치매환자의 장기요양판정등급 현황	5
[표 1-4] 치매에 대한 관점의 변화 요구	15
[표 2-1]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사항	18
[표 2-2] 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의 목적	22
[표 2-3] 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 요소와 특성	23
[표 2-4]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 조성의 특성	25
[표 2-5]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의 역할	26
[표 2-6] 노인의 지속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27
[표 2-7]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 재가생활 지원 개념 구분	29
[표 3-1]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36
[표 3-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치매 관련 내용	37
[표 3-3] 「제1·2·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주요내용	38
[표 3-4]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주요내용	39
[표 3-5] 치매관리사업 개요	39
[표 3-6] 중앙치매센터 주요 역할	41
[표 3-7] 광역치매센터 주요 역할	42
[표 3-8]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42
[표 3-9]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44
[표 3-10] 운영위원회 구성 분류(예시)	46
[표 3-11] 치매안심마을 운영 분류	47
[표 3-12] 치매안심마을 인증 기준	47
[표 3-13] 치매안심마을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49
[표 3-14] 사회적 지원 관련사업 예시	51
[표 3-15] 치매 인식 개선 관련사업 예시	52
[표 3-16] 치매안심마을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28개 시군구)	54
[표 3-17] 영등포구 신길4동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내용	56
[표 3-18] 해외의 치매친화 주택 조성 방향	61
[표 3-19] 치매친화 외부 생활환경 조성 방향	67
[표 3-20] 해외 치매환자를 위한 마을형 주거공간 사례 목록	71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 설문조사 항목 구성	82
[표 4-2] 응답자 특성	83
[표 4-3] 치매 어르신과 같은 마을 거주가 부담스러운 이유	87
[표 4-4] 설문조사 항목 구성	97
[표 4-5] 주거공간의 치매친화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양가족의 응답	108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2010~2019 연령별 치매상병자 증가 추이(상) 및 추정치매환자 추이(중),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하)	2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2-1] 치매의 원인 질환과 회복 유·무(상), 치매환자의 행동 특성(하)	19
[그림 2-2]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장애인·고령자)	24
[그림 3-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국가 법·정책 고찰의 개요	33
[그림 3-2]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및 성과	35
[그림 3-3] 치매관리전달체계	40
[그림 3-4]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운영 체계	50
[그림 3-5]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55
[그림 3-6] 기억둘레길	57
[그림 3-7] 기억둘레길	57
[그림 3-8] 기억둘레길 쉼터	57
[그림 3-9] 기억마당	57
[그림 3-10] 해쉼터	57
[그림 3-11] 달쉼터	57
[그림 3-12] 기억마루	57
[그림 3-13] 기억마루	57
[그림 3-14] 기억우편함	57
[그림 3-15] (좌)대조적 난간 및 적절한 조명, (우)명확하게 정의된 방	61
[그림 3-16] (좌)내부 디자인, (우)조명 디자인	61
[그림 3-17] (좌)치매친화적 디자인의 주요 이슈, (우)거실	63
[그림 3-18] (좌)식사공간, (우)화장실	63
[그림 3-19] 2층 규모 단독주택의 치매친화적 공간조성 예시	64
[그림 3-20] 치매친화 외부 생활환경 조성 예시	66
[그림 3-21] (좌)이동 중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표지판, (우)접근성 높은 편의시설	67
[그림 3-22] (좌)편안한 오픈 스페이스, (우)안전한 보행환경	67
[그림 3-23] 호그백 평면도 및 전경	71
[그림 3-24] (좌)계획도, (우)주택 및 클데삭 형태의 도로	72
[그림 3-25] (좌)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단서, (우)마을전경	72
[그림 3-26] (좌)평면도, (중)마을전경, (우)주택내부	73
[그림 3-27] (좌)접근이 용이한 주방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룸, (우)가게 내부	73
[그림 3-28] (좌)평면도, (우)마을전경	74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29] (좌)주택내부, (우)중앙광장	74
[그림 3-30] 마을전경	75
[그림 4-1] 치매 증상 정도에 따른 적정 생활공간	84
[그림 4-2] 본인 노년기 치매 발생 시 거주 희망 공간 및 치매 환자 돌봄 시 돌봄 희망 공간	85
[그림 4-3] 같은 마을 내 치매 어르신 거주에 대한 인식	86
[그림 4-4]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지향점	88
[그림 4-5] 본인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89
[그림 4-6] 본인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90
[그림 4-7] 본인 주택과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연령별 의견 비교	91
[그림 4-8] 치매친화 주택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91
[그림 4-9] 치매친화 마을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92
[그림 4-10] 치매친화 주택 및 마을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비교	92
[그림 4-1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영역별 중요도	93
[그림 4-1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가장 필요한 생활환경	93
[그림 4-13]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요소별 개선 필요성	94
[그림 4-14] 물리적 환경 요소별 지향 가치	95
[그림 4-15]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지도	96
[그림 4-16]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인지도	96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목적
  - 2. 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 

## 1.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 고령인구 증가로 국가와 국민의 치매부양부담 증가

- 2025년 고령인구 1,000만 명, 치매 고령자는 100만 명 돌파 추계, 2060년 치매 고령자 3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1)</sup>
  - 2019년 전국 고령자 중 추정 치매환자는 약 79만 명(추정 치매유병률 10.29%), 2030년 136만 명, 2040년 220만 명, 2050년 300만 명으로 예상됨<sup>2)</sup>
- 2019년 전국 추정 치매 고령자 794,290명 대상 투입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약 16.5조이며, 2040년 약 63.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sup>3)</sup>
  -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2만 원이며, 연간 가구 소득의 38.6%, 연간 노인가구소득의 49.9%를 차지함<sup>4)</sup>
-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은 일 평균 6~9시간을 치매환자 돌봄에 소요하며,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sup>5)</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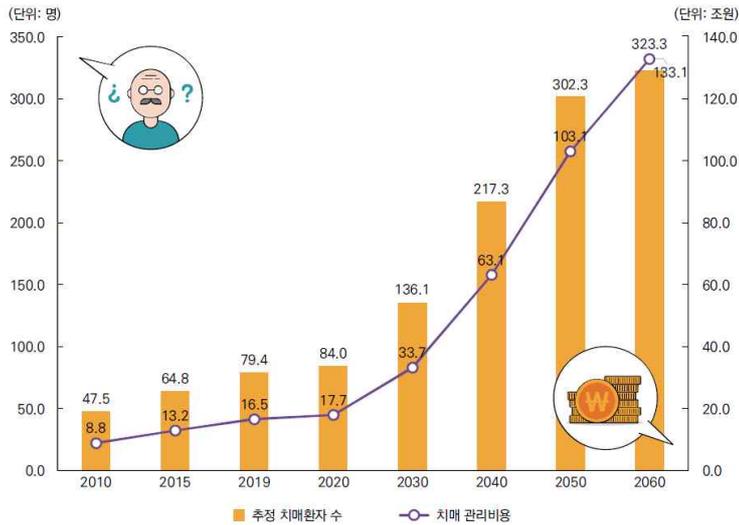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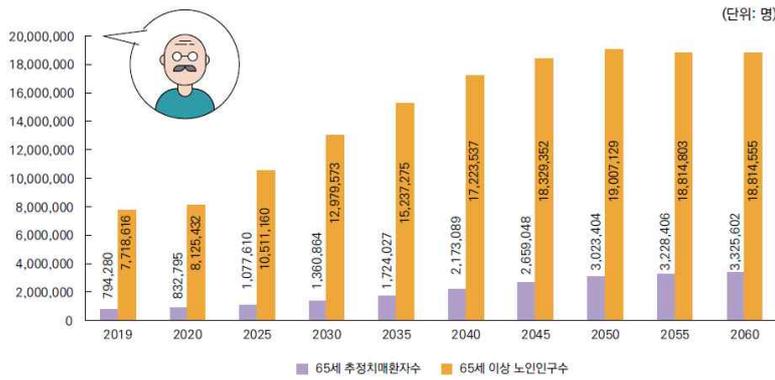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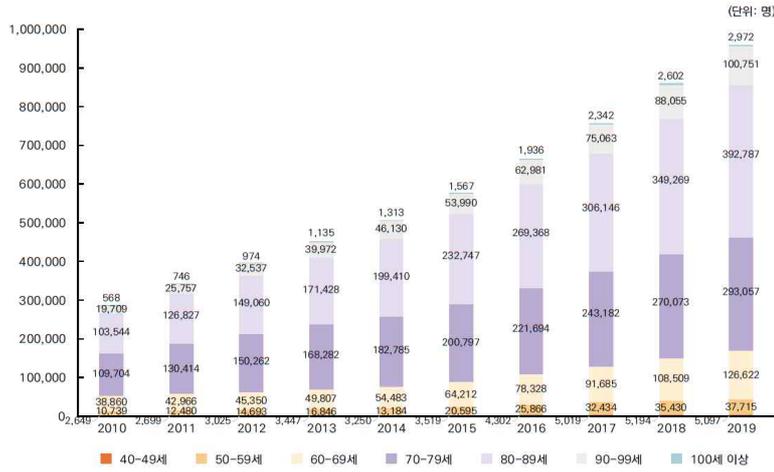
1) 이지수 외. (2021). p.15.

2) ibid. p.15.

3) ibid. p.22.

4) ibid. p.19.

5) 김가용 외. (2011). p.12.



[그림 1-1] 2010~2019 연별별 치매상병자 증가 추이(상) 및 추정치매환자 추이(중),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하)  
출처 : 이지수 외. (2021). p.9, p.15, p.22 직접인용

□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 중심의 국가 정책과 제도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2005)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2010년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내용을 시작으로 제 2·3·4차 기본계획에서 치매관련 사항을 다루며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 현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이 추진 중이며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돌봄 지원 확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치매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노력
- 「치매관리법」의 제정(2012)과 「치매관리 종합계획」
  - 정부는 치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2년 「치매관리법」을 마련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 법령을 통해 치매 고령자의 관리·지원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설치·운영 근거를 제시하고, 5년 단위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1~’25)’은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 및 전달체계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표 1-1] 치매관리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관련 정책 및 제도	주요 내용
치매관리법	· 국가 및 지자체의 치매관리 사업 시행 및 지원(제3조) ·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제6조)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설치 관련사항(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 치매 예방 및 초기 관리 · 돌봄 및 가족 지원 ·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 치매 R&D와 사회적 환경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ld=1&subMenuld=15&tabMenuld=81&eventGubun=060101&query=%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undefined> (검색일: 2022.5.12.); 대한민국정부. (2020). p.196; 보건복지부. (2020). p.59.

## □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의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치매 고령자 관리를 위해 중앙 치매센터 - 광역 치매센터 - 지역 치매안심센터 연계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로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가족과 지역주민 대상 치매인식 개선 교육 제공의 사업을 수행함

- 중앙치매센터
  - 「치매관리법」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치매 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평가 지원,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위주의 업무를 수행
- 광역치매센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치매관리사업 계획, 치매 연구,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 치매안심센터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치매관리법」 제 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해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운영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중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및 밀접한 관계를 가진

[표 1-2]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중앙치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li> <li>· 국가치매관리사업 기획 및 연구, 치매관리사업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li> <li>· 치매안심센터 업무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li> </ul>
광역치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자체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li> <li>·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지원</li> <li>·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지원</li> <li>· 지자체 내 치매 예방·치료 관련 기관 연계체계 마련</li> <li>·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li> </ul>
치매안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li> <li>· 치매환자 사례관리(케어플랜), 자원연계 계획 수립 및 실시</li> <li>·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li> <li>·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li> </ul>

출처 : 보건복지부. (2022a). p.6.내용을 요약정리 함

□ 시설 중심 서비스 전달에 따른 치매 어르신의 재가돌봄 대비 시설 입소 편중

- 치매환자의 장기요양판정은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 집중되며,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을 받음
  - 재가급여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있으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함
  - 시설급여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다양한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
-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와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한 치매 관리
  -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자택에서의 재가 서비스를 통한 치매 관리
  -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나, 단기보호는 감소하는 추세임
- 치매 고령자 가족 입장에서는 재가급여 대비 시설급여를 통한 시설 입소 돌봄·요양이 가족의 일상생활 영위에 유리한 상황임
  - 장기요양 2등급 판정자의 경우, 재가급여 활용 하루 4시간 방문간호 이용으로 월 한도지원액을 소진하게 되며, 나머지 요양·돌봄은 부양가족이 담당하거나 요양보호사 시급 기준에 맞춘 비용지급이 발생하게 됨

[표 1-3] 치매환자의 장기요양판정등급 현황

등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등급	11,780	11,659	13,098	16,300	16,944
2등급	25,484	24,255	28,735	33,046	36,136
3등급	72,460	55,323	64,711	70,284	78,331
4등급	43,751	51,158	62,037	74,599	90,208
5등급	9,737	18,695	25,084	34,333	42,159
인지지원	0	0	0	0	12,297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1). p.11. 직접인용

## □ 해외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어르신 돌봄 현황

- 영국, 아일랜드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치매친화 환경조성 지침 마련<sup>6)</sup>
  - 영국 치매정책은 치매의 조기진단,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치매친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치매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치매친화환경 조성지침(2015)을 개발하여 지방정부별로 운영함
  - 아일랜드는 영국과 차별화된 치매친화환경조성지침(2015)을 수립·운영함
  - 유니버설 디자인에 치매친화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지역공동체·주택·병원·돌봄센터·요양시설 등의 치매친화환경조성 필요 근거와 실례를 제시함
- 네덜란드,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마을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 세계 최초 마을단위의 치매 요양시설인 네덜란드 호그벡(De Hogeweyk)은 15,000㎡ 부지에 23가구의 연립주택을 조성, 마을에 슈퍼마켓, 미용실, 식당, 문화센터 등 편의시설을 치매 고령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함<sup>7)</sup>
  - 치매환자를 위한 호주의 코론지 마을(Korongee Dementia Village)은 12개 주택과 마을 형태의 시설로서 마을 내 카페, 미용실, 상점, 커뮤니티센터, 정원 등을 두어 치매친화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sup>8)</sup>
  - 미국 랜턴 마을(Lantern of Chagrin Valley), 캐나다 랭글리 마을(The Village langley), 프랑스 알츠하이머 마을(Village Landais Alzheimer) 등이 '치매친화 마을형 주거환경'으로 조성됨
- 해외 치매 고령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다양한 거주환경을 지원받음
  - 해외에서는 치매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을 개발하여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함
  -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장기요양시설·돌봄센터·병원뿐만 아니라 면(面) 단위 마을형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치매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생활을 지원함

---

6) 이수경·최윤경. (2021). p.84.

7) 이현정. (2021). p.240.

8) ibid. p.241.

□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미흡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고령자의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 필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은 치매관리를 위한 돌봄 인프라 지원 확대,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 지원 필요를 강조함
  -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1~'25)은 치매 고령자·가족·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전달체계 확충 필요를 강조함
- 국정과제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돌봄 강화를 제시
  - 국정과제45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복지부)”를 제시, 노인돌봄·치매돌봄 체계 강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환경 조성을 강조함
  - 치매 고령자일자리라도 가정과 지역에 머물며 충분한 서비스와 맞춤형 커뮤니티 환경을 통해 생활밀착형 돌봄이 확산될 필요를 강조함
- 현 법제도에서의 치매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과 치매친화 지역사회 실현 한계 존재
  - 중앙·광역 치매센터와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시설 입소 서비스 연계,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 의료적 관점에서 치매 질환의 관리에 집중하는 사업을 수행함
  - 치매 고령자와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재가 서비스 대비 시설 입소를 통한 요양·돌봄의 실효성으로 치매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이 종용되는 실정임
- 국가 법·계획, 국정과제의 치매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목표 달성과 치매안심 지역사회 실현을 지원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마련이 필요
  -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 활동과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고령자의 사회적 입소를 가능한 방어하며, 치매 고령자 가족의 부양부담 및 지자체와 국가의 관리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
  - 해외의 치매친화환경 조성 지침과 사례 등을 통해 한국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방향을 검토하고, 국내 치매 고령자와 가족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수요 등에 기반하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을 제시하며, 주체별 역할분담 및 운영구조, 모델의 지자체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치매 고령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하는 치매친화적 생활 환경 조성의 정책 방향 도출과 적용 방안 마련을 주 목적으로 함

-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 방향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① 인간 중심 돌봄 관점에서 치매 고령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역할상을 도출함
- ② 국내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정책과 사례, 해외의 관련 지침과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③ 치매 고령자 가족, 서비스 종사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과 주요 특징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한국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개선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함

□ 본 연구는 시설 중심 치매관리에서 지역사회 지속거주형 대응으로 치매 고령자 관리방향 전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방향을 검토하고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정책 방향과 적용방안을 제시함
- 치매 어르신의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방향 마련 등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 기관의 협력적 정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음
- 문헌검토, 설문조사, FGI 등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과 치매 어르신 및 돌봄 가족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를 검토, 이를 반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의 연계를 기대할 수 있음

## 2. 내용 및 방법

### 1) 주요 내용

#### □ 치매친화 생활환경 개념 정립

- 지역사회 생활환경과 치매친화 서비스의 결합 필요성 고찰
- 치매 고령자 관리·지원의 현행 법, 제도, 계획, 사업 검토
-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수단으로서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상 정립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사례조사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국내 정책, 사례 조사
- 영국, 네덜란드 등 해외 지침, 사례 조사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설문조사·분석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욕구 조사
- 치매친화 생활환경 구성 요소별 이용 욕구 조사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향 설정

- 주거공간 및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방향 제시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지역 주민의 욕구 반영 특성 제시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및 적용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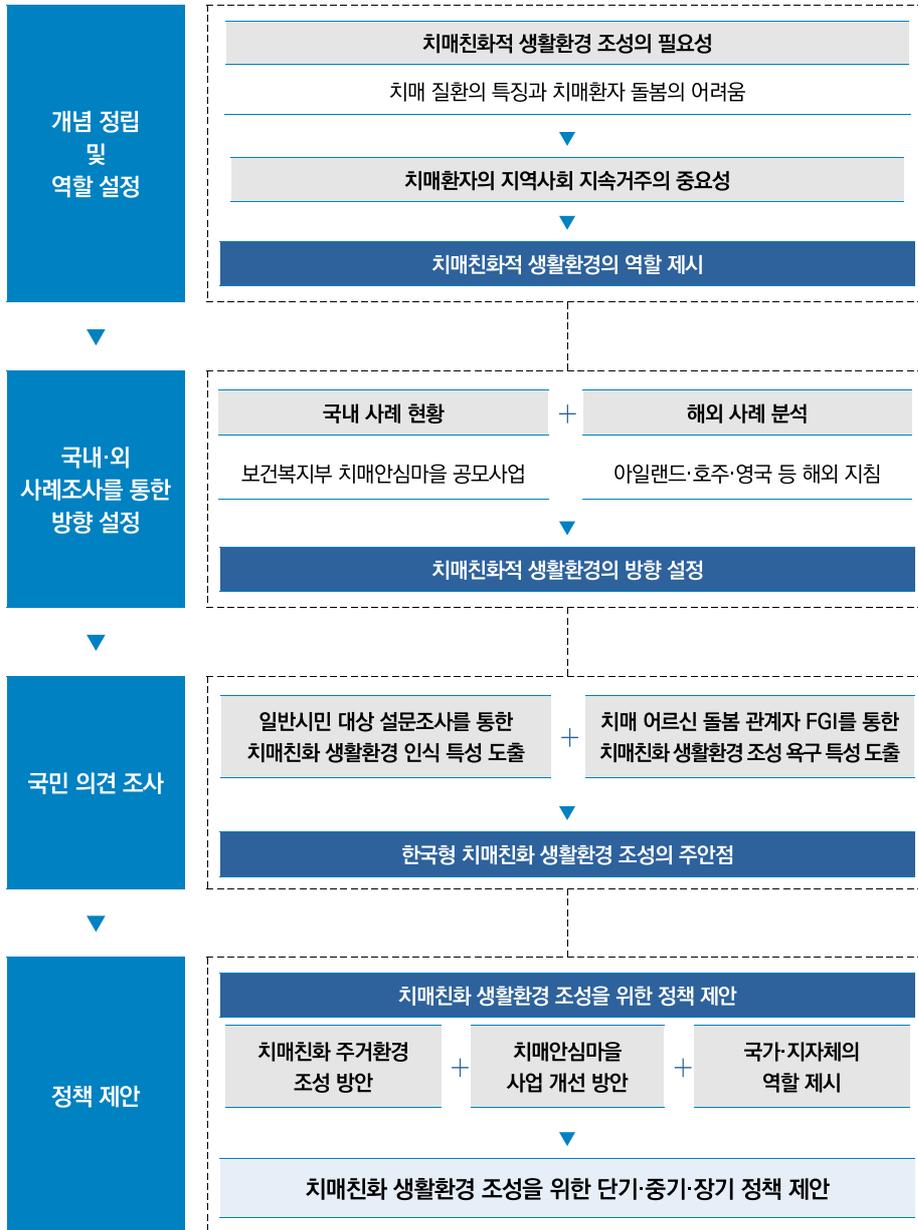
## 2) 주요 범위

- 본 연구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주요 혜택 대상자는 자택생활이 가능한 초기 치매 고령자와 가족으로 한정함
  - 초기의 치매 특성을 보이며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통해 시설 입소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치매 고령자를 주요 이용자 및 혜택 대상으로 한정함
  - 사회적 입소를 방어함으로 장기요양등급 4~5등급 및 인지기원등급, 등급외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요양시설을 제외한 치매 고령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경험하는 치매친화적 지역 생활환경 조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재 지자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마을은 교육 프로그램 중심 사업수행으로 치매 고령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생활환경이 미흡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치매 고령자와 가족, 지역 주민이 시설이 아닌 자택과 지역에서 의 일상생활이 치매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조성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치매 고령자가 입소하는 요양시설환경의 개선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초기 치매 고령자의 사회적 입소를 최대한 방어하는 지역 생활환경 조성과는 다른 주제의 연구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3) 연구 방법

- 치매친화 생활환경 개념 정립을 위한 관련 문헌 분석
  - 국내 치매 고령자 관리·지원의 정책자료, 선행연구 분석
  - 해외 치매 고령자의 지속적 재가생활 지원 사례 분석
  
- 치매친화 생활환경 특성과 요소의 수요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및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 유형의 주요 특성 수요 탐색
  - 노인실태조사, 요양등급자 현황 등 통계자료를 활용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 유형별 유효수요 산출
  
- 국내 치매 고령자 관리·지원 현황과 한계 도출, 구체적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요소 도출을 위한 현장답사, 담당자 면담
  - 마을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내용의 국내 유사 사례 현장답사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중앙·광역 치매센터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국내 사업추진 지자체 담당자 등 면담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협력을 통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TF 운영과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 및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실무자 의견수렴
  - 복지부 치매정책과, 중앙·광역·지역 치매센터, 국토부 지역정책과 등 협력 체계 구축

#### 4) 연구수행과정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 1) 치매 고령자 관리·지원 관련 주요 선행연구

□ 주요 선행연구는 치매 고령자의 독립적 인격체 존중과 치매 고령자·가족의 지역 사회 기반 지원 방향의 치매 고령자 대응 정책 개선과 사업추진 개선을 요구

- 이수경·최윤경(2021)<sup>9)</sup>은 인간중심 돌봄 모델 기반 치매 고령자 생활환경 조성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치매 고령자 시설 개선 시사점을 도출함
  -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치매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비교함
  - 자율성, 편안함, 인식, 안전성, 다양한 공간 구성, 사생활, 관계, 안녕, 집과 같은 환경, 직원관리, 포괄적 서비스와 같은 치매친화 환경 조성 원칙을 도출함
  - 우리나라 치매 고령자 시설의 설계기준 마련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함
- 이현정(2021)<sup>10)</sup>은 치매의 질환적 특징과 치매환자의 행동특성에 대응하는 치매마을의 요소를 도출하고, 자연환경 중심 디자인 개념 특성을 도출함
  - 치매환자의 인지·행동·기능 특징에 따른 증상을 정리함
  - 치매환자의 증상 정도와 주거/시설 유형에 따른 치매시설 유형을 정리하고, 치매환자의 특성 대응의 치매마을 조성의 특성 요소를 도출함
  -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치매마을 사례를 조사하고, 자연환경 중심 디자인 요소를 분석, 자연 체험성·모방성·상호작용성의 특성을 비교함
- 이현숙(2019)<sup>11)</sup>은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을 의료·사회·인간중심케어 모델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치매국가책임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함
  - 치매에 대한 관점을 의료적, 사회적, 인간중심케어 모델 중심으로 정리함
  -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치매 관련 정책 발전과 1·2·3차 국가치매전략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각 모델의 주요 관점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함
  - 우리나라 치매정책의 개선을 위한 철학적 고찰 필요, 보편적 복지 형성 필요,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버넌스 형성 필요를 도출함

9) 이수경·최윤경. (2021). pp.81-87.

10) 이현정. (2021). pp.233-243.

11) 이현숙. (2019). pp.72-107.

- 김소원·김정빈(2022)<sup>12)</sup>은 네덜란드 호그백(마을형 치매 요양시설) 사례의 환경 특징과 조성·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의 치매마을 조성 시사점을 도출함
  - 치매환자의 마을형 주거공간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고, 외부환경적 요인과 내부 구성의 요인으로 구성된 사례 분석의 틀을 제시함
  - 네덜란드의 치매 고령자 대상 복지제도, 환경 설계를 통한 치료 패러다임 전환을 분석하고, 네덜란드 호그백 사례의 조직 구조, 재정·운영 구조, 협력 구조를 분석함
  - 네덜란드 호그백 사례의 조성 주체 역할을 종합하여 도식화하고, 우리나라 치매마을 조성 시 지역 주민과 치매마을 연결에 기반하는 갈등요소 해소가 선행될 필요를 강조함
- 김영범 외(2018)<sup>13)</sup>는 사례지역(도시·농촌 각 1곳)의 치매환자·가족 일상 장애 요인,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을 조사하고, 치매친화 환경 구축을 위한 치매환자 대응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운영모형을 제안함
  - 일본,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의 치매친화 공동체 사례를 검토하고, 치매친화 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치매환자·가족 대상 인식개선 중요성을 도출함
  - 강원도의 춘천시와 신북읍, 서울의 영등포와 문래동 지역주민(총 1,400명)의 치매 관련 인식·태도를 조사하고, 치매 관련 지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치매교육 강화 필요를 도출함
  - 치매환자 및 가족(총 12명), 치매관련 서비스 종사자(총 24명) 대상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농촌과 도시의 치매친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를 도출함
  - 지역자원 조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사회서비스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농촌형 치매안심마을 운영모형을 제안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제시함

---

12) 김소원·김정빈. (2022). pp.159-176.

13) 김영범 외. (2018)

## 2) 본 연구의 차별성

- 주요 선행연구는 인간 중심 돌봄 관점에서 치매 고령자와 가족,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 중심 일상생활 영위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지만, 요양시설 이외 구체적 지역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주요 선행연구는 치매 고령자의 인간적 특성 보다는 치매 질환의 의료적 특성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과 시설 조성의 방향 전환 필요를 지적함
    - 이현숙(2019), 이수경·최윤경(2021) 등의 연구는 치매 고령자의 질환적 특성 대응 보다는 인간적 특성을 고려하는 인간 중심 돌봄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함
    - 인간 중심 돌봄 관점에서의 치매 정책과 시설 조성 기준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치매 고령자·가족의 지역사회 중심 일상생활 지속가능 환경 조성의 필요성만을 언급하는데 그침
  -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간 중심 돌봄의 치매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환경 조성 필요를 강조하지만, 치매 인식개선의 교육과 시설 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 개선안 도출에 그치고 있음
    - 이현정(2021), 김소원·김정빈(2022) 등의 연구는 치매 고령자의 행동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의 요소를 도출하고, 영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의 마을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를 통한 국내의 마을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시사점을 도출함
    - 김영범 외(2018) 등의 연구는 치매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이 지역 주민의 치매인식 개선과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부터 시작 될 필요를 강조하며, 해당 서비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역할을 제시함
    - 해외의 마을형 치매친화 환경조성 특징 도출에 그치거나 치매안심마을의 구체적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표 1-4] 치매에 대한 관점의 변화 요구

구분	의료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인간중심 관점
치매와 치매 고령자 인식	치매라는 질병에 초점 의존적 존재인 환자로 인식	사회, 환경이 장애를 제공 활동적 시민으로 인식	인간 존엄성과 개성 존중이 필요한 개인으로 인식
문제 원인	질병, 뇌손상 원인 인지장애	불평등 사회구조, 차별적 태도	개인적 심리, 생활환경, 관계
실천형태	전문가 중심	당사자 중심	당사자와 가족, 지역 주민

출처 : 유범상·문병기. (2017), p.132; 이현숙. (2019) 참고하여 재구성

□ 본 연구는 치매 고령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의 일상생활 환경에서 최대한의 독립적 생활 영위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주요 차별성을 가짐

- 인간 중심 돌봄 관점에서 치매 고령자·가족,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상과 주요 구성 요소를 제시함
- 치매 고령자 가족, 치매 서비스 종사자, 지역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주안점을 도출함

---

## 제2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개념 정립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성
  3.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생활환경
- 

###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

- 치매 어르신은 기억력 감퇴, 배회, 수집 등 인지적·행동적·기능적 장애를 가지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매발현, 치매진단 후 경도·중도·고도로 진행됨
  - 치매는 질환적 특징을 갖는 후천적 장애이며, 치매 어르신은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이상, 신경학적·신체적 증상을 나타냄
    -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기억력, 언어능력, 길찾기,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를 의미함<sup>1)</sup>
    -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함
    - 치매 발병 후 회복 유·무에 따라 가역적·비가역적 치매로 분류할 수 있으며, 10~15%의 가역적 치매는 일부 환자의 경우 조기 발견시 치료·완치 가능하고 혈관성 치매 포함 85~90%의 대부분 환자는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sup>2)</sup>

---

1) 이수경·최윤경. (2021). pp.81-87.

2) 이현정. (2021). p. 235.

□ 치매 어르신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수행능력 경감, 행동이상 증상 등으로 인해 심리적 위축, 사회교류 단절을 경험하며 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이 요구됨

-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은 사실 모든 활동과 움직임에서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일상생활 수행의 도움 필요 주요 영역으로는 옷 입기, 세수, 머리 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화장실 출입, 대소변 조절하기 등이며 도구적 수행의 도움 필요 사항으로는 집안일, 빨래, 근거리 외출 등이 있음<sup>3)</sup>
  - 일상생활 수행의 도움은 치매 전단계인 인지저하 상태에서부터 요구됨
- 치매 어르신은 소리 지르기, 욕하기, 배회 등 행동이상 증상을 보이며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 단절을 경험함
  -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상 증상은 공격, 소리 지르기, 안절부절, 성적 무절제, 욕하기, 무작위 배회 등이 있으며 불안, 우울, 망상으로 이어지며, 생활환경의 변화, 심한 자극에의 노출 등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sup>4)</sup>

**[표 2-1] 인지저하자와 치매확진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 필요 사항**

일상생활수행 도움 필요 주요 사항	도구적 일상생활수행 도움 필요 주요 사항
옷 입기	몸 단장하기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	집안일하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식사 준비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빨래하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화장실 출입 및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금전 관리
대소변 조절하기	근거리 외출하기(도보)
	물건 구매하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출처: 정경희 외. (2017). p.131.

3) 유재연. (2018). pp.121-124.

4) 이현정·윤재은. (2022). pp.277-288.



[그림 2-1] 치매의 원인 질환과 회복 유·무(상), 치매환자의 행동 특성(하)

출처 : 이현정, 2021, pp.236, 직접인용

□ 치매 어르신은 인지적·감정적 행동특성을 보이며 돌봄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 결국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모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함

- 돌봄 가족은 치매 어르신의 기능적·인지적·감정적 행동특성과 장애증상을 함께 경험하며 치매 어르신의 모든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함
  - 치매 어르신은 세수·옷 입기·빨래·외출 등의 일상생활 수행의 기능적 장애 외에도 인지적 이상 특성(기억력·언어 능력·길 찾기 능력 등의 장애)과 감정적 장애 특성(우울증·공격성·편집증 등)을 나타냄<sup>5)</sup>
  - 치매 어르신 돌봄을 위해 가족 구성원은 온종일 치매 어르신의 기능적·인지적·감정적 행동이상을 살피며 본인의 직업, 취미, 사회활동 등의 수행을 희생하게 됨
  - 가족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 서로 교대하며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으나, 특정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으로 치매 어르신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5) 오찬욱. (2004), p.61.

- 치매 어르신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는 일반 고령자 부양·돌봄의 경우 대비 상당한 피로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함
  - 일반 고령자 돌봄의 경우 대비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은 우울증, 대인민감성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하며, 치매 어르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수와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은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sup>6)</sup>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담 요인으로는 간병시간의 증가, 스트레스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사회생활 악화, 건강 악화, 가족간 불화 등으로 조사됨<sup>7)</sup>
  - 치매 어르신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는 자녀(35.04%), 배우자(17.77%), 간병인(10.5%), 며느리(5.57%) 순<sup>8)</sup>으로 나타나는 등 치매 어르신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와 삶의 질 하락은 주로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상황임

□ 치매 어르신 돌봄은 주로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자 비율 및 치매 유병률 증대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화함

- 치매 어르신의 돌봄이 힘들어 시설과 병원에서의 영양·돌봄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은 주로 자택에서 거주하시며 돌봄을 받음
  - 치매 질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주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자택거주 70%,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 시설 거주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sup>9)</sup>
  - 치매 질환의 특성상 생활하던 자택에서 시설·병원으로의 이주에 따른 환경 변화와 자극 노출은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상 상태를 악화하여 가능한 치매 어르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치매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어르신의 기능적·인지적·감정적 행동과 돌봄 가족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인해 결국 치매 어르신의 돌봄이 자택과 지역사회를 떠나 장기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게 됨
  - 자택과 마을의 생활환경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된다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상 상태 악화를 방어하고 돌봄 가족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의미하며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입소·입원을 기대할 수 있음

6) 고숙자. (2016). p.30.

7) 김민경. (2021). p.2.

8) 김민경. (2021). p.2.

9) 김민경. (2021). p.2.

□ 치매 어르신은 재가 요양·돌봄 부족과 시설 요양·돌봄 부담의 이중고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조성이 시급함

- 어르신은 치매 판정 이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서비스를 지원받음
  - 어르신이 치매로 판정되면 일상생활 영위의 다양한 문제 증상을 보이며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이 수반되기 시작함
  - 치매 질환의 특성상 증상이 극적으로 완화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후 치매 고령자는 가족돌봄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장기요양제도 이용 단계로 넘어감
  -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에서 초기의 경증 치매 증상을 보이는 고령자는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판정받게 됨
- 초기의 경도 치매 증상 고령자에게는 재가 서비스는 부족하고 시설 서비스는 부담인 상황임
  - 등급외자(등급판정 제외자로서 고위험군)로 판정된 치매 고령자와 치매 요양·돌봄서비스의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경증대상자(5등급, 인지지원 등급)에게는 자택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 입소 수준의 치매 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경증 치매 고령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수가만을 활용하는 입소를 희망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 운영의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요양·돌봄을 위한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경증 치매 고령자에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서비스를 보인부담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에야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여 시설 입소를 받는 실정임
- 초기 치매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최대 지원과 중·고도 치매 고령자의 시설 요양 지원으로 다원화된 치매안심 지역사회 실현이 필요함
  - 고령자의 치매 증상 조기 발견은 가족과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규모 증가로 적절한 시점에 치매 증상의 발견과 서비스로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우려됨
  - 치매는 완치하기 힘든 질환적 장애로서 증상 발견 이후 경도→중도→고도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치매 증상 발견 이후 치매의 진행을 지연하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함

##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성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택공간은 치매 어르신의 기능·인지·감정적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보장, 일상생활 수행 지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되어야 함
  - 주택공간이 미치는 영향은 일반 고령자 대비 치매 어르신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며 치매 증상의 완화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치매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능적 장애를 나타내며 이러한 장애로 인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태이며 사소한 자극이나 장애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음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성 보장, 인지기능·방향성 향상, 사회화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치매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sup>10)</sup>

[표 2-2] 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의 목적

목적	내용
안전성 보장	디자인 측면에서 걸어다니기에 안전한 영역을 만들고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목적 달성
의미있는 활동을 통한 기능적 능력 지원	환경은 치매노인의 경험을 지원해주고 적절한 조도와 안전한 바닥면, 난간 등으로 이 동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음으로써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장함
인지와 방향성 향상	욕실임을 알 수 있도록 구별해주는 이정표와 단서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목적지로의 통로를 명확하게 해주거나 문이나 창문에서 외부 공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계절에 대한 방향성을 향상시킴
적절한 환경적 자극과 도전 제공	치매노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자극들을 처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치매 증상을 치료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한 자극과 적절한 도전을 제공하여 치매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함
자율성과 통제력의 최대화	치매노인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극도로 제한되고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해야 함
변화하는 요구 만족	치매노인들이 함께 있는 경우는 총별로 각 단계의 노인들을 배치하거나 침실의 위치, 앉을 수 있는 공간, 식사영역 등을 분리시키며 집단의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음
건강한 것과 친숙한 것의 연결	가능한 건강한 것, 친숙한 것, 편안한 것들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노인들이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어 긍정적인 느낌을 불러 일으킴
사회화 기회 제공	치매가 진행될수록 의사소통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격리를 초래하여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간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요구 보호	환경 전체를 개조하기보다 부분적으로 간단히 공간을 개조함으로써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에 공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을 함께 두는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출처: 변혜령. (2001). pp.22-24 내용을 요약정리함

10) 변혜령·이연숙. (2003). pp.85-104.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주택공간 조성 요소는 출입구, 복도·통로, 개인 침실, 정원 등이며 치매 어르신의 안전성, 통제성, 프라이버시, 유의미성 등을 지원할 필요
  - 치매 어르신을 고려한 주택공간 요소는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행동특성과 생활특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어르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음
  - 보다 넓은 공공장소로 진입을 허용하게 되는 출입구의 통제, 치매 어르신의 무작위 배회를 방어하는 통로와 공간적 장치, 치매 어르신의 기능·인지·감정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설비 등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상 장애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 행동이상 증상이 완화되며 안정적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할 수 있는 주택과 생활공간은 돌봄 가족 입장에서 스트레스 경감과 삶의 질 도모를 기대할 수 있음

[표 2-3] 치매 어르신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 요소와 특성

개념	정의 및 예제	하위 차원
출구의 통제	· 각 생활공간들에 대한 경계조건들 · 벽, 울타리 문, 문을 잠그거나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 통제의 직접성 · 적절성
배회통로	· 치매노인들의 배회와 산책을 위해 사용되는 순환공간	· 연속성 · 길찾기
개인공간	· 대체로 침실과 같이 개인이나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때로는 이들에게 할당되는 공간	· 프라이버시 · 개인화
사회적 공간	· 치매노인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 관계, 특성	· 수량 · 다양성
옥외정원	· 옥외 공동영역에 대한 접근과 이 공간이 치매노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	· 유용성 · 지원성
주거적 특성	· 치매노인시설의 크기가 소규모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정도와 치매노인 시설이 주거용 가구 설비, 디자인 특성, 개인 물품들을 사용하는 정도	· 크기 · 친밀감
자율성	· 치매노인시설이 기본적인 일과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점잖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남아있는 능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들	· 안전성 · 보조성
감각의 이해력	· 모든 공간에서 감각환경(청각, 시각, 열, 후각, 근육운동의 특질과 이러한 조건들이 치매노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도	· 소음관리 · 유의미성

출처: Zeisel 외. (1994); 변혜령. (2001). p.60 재인용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택은 가스화재, 낙상 등 일상생활의 안전성 강화가 중요하며 관련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이 필요함
  -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장애 등에 기인하여 치매 어르신이 흔히 경험하는 생활 안전의 위기는 크게 낙상 위험과 가스 안전사고임<sup>11)</sup>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실내 낙상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전손잡이, 바닥 높낮이 맞춤 등의 낙상 예방 설비 설치가 중요함
  - 가스 안전사고 예방 역시 안전밸브 설치 등이 지원될 필요
- 고령의 장애인 역시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욕실, 현관 등을 불편하다고 응답하는 등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기능적 장애 지원을 위한 주택공간 조성이 필요함
  - 고령 장애인 가구가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 주택 외부(23.3%), 현관(18.5%), 부엌(10.4%)의 순서임<sup>12)</sup>
  - 설치나 개선을 바라는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출입 시 불편함 제거, 부엌 좌식싱크대 설비,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욕실 기타, 바닥 높낮이 차 제거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2]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장애인·고령자)

출처 : 강미나·조윤지. (2017). p.5.

11) 김미소 외. (2021). p.101.

12) 강미나·조윤지. (2017). pp.1-8.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택 외부환경은 치매 어르신의 관계·인지·기능적 행동이상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의 사회적 교류·공간 지향성·기억력 감퇴 대응 강화 방향으로 조성될 필요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은 주택공간 조성 방향과 유사하나 사회적 관계성 유지·강화를 위한 고려가 추가될 필요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은 어르신의 기능성·관계성·인지성 강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함<sup>13)</sup>
    -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의 어르신은 외부로의 간단한 외출이 가능하며 사회적 교류를 통한 적당한 자극과 자존감 유지를 위한 세부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치매 어르신의 외출 이후 안전한 길 찾기 및 귀가 지원 등을 위한 인지성·기능성 강화의 환경조성 역시 중요함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은 기억의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으로 경험되는 것이 중요함<sup>14)</sup>

[표 2-4]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 조성의 특성

특성	세부 요소	
기능성	안전한 일상	순환 동선(산책로, 복도), 통제 가능한 경계(담, 출입구), 적정 난간·바닥재
	배리어프리	접근·이용·이동권이 확보된 공간(단 차가 없는 공간, 경사로)
관계성	쾌적한 환경	자연채광 및 조망(창문), 자연·인공 환기 시설, 적정·수면·온도·조명 환경
	커뮤니티	소규모 광장, 카페, 레스토랑, 종교시설
인지성	단계적 영역	사적 침실, 욕실, 잠재적 주방, 거실, 식당, 세탁실, 공적 타 주택, 공용시설
	교육/문화 프로그램	교육·체험실, 강당, 극장, 체육시설
감각 자극	애착 환경	개인 소장 물품·가구, 출입구 애착 상자, 취미 공간
	랜드마크/재현	전통·과거 재현, 차별화된 건물 외관
	감각 자극	음악, 향, 촉각, 시각, 다면적 감각, 텃밭

출처: 이현정·윤재은, (2022). pp.277-288.

13) 이현정·윤재은. (2022). pp.277-288.

14) 광인숙. (2003). pp.1-13.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 조성은 어르신의 외출 시 안전성, 방향 인지성, 적당한 수준의 다양한 자극, 사회적 교류 등을 지원할 필요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택공간 조성에서도 강조된 어르신의 안전성 강화 지원은 외부 생활환경 조성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됨
  -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상 특성 중 주택공간 조성 시 강조되었던 기능·인지·감정적 장애 대응 필요 중 외부 생활환경 조성에서는 어르신의 기능·인지적 장애 대응을 위한 공간요소 구성이 강조됨
  - 주택공간 조성 시 강조되었던 치매 어르신의 감정적 장애 대응 필요성은 외부 생활공간 조성의 경우 관계적 장애 대응 필요로 전환됨

[표 2-5] 치매 어르신을 위한 외부 생활환경의 역할

구분	내용
안전한 공간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들의 방향을 막아주고 안전을 고려하여 벽이나 울타리가 있는 것이 길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없애주므로 좀 더 안락하게 느끼게 되고, 관리하기에도 바람직함</li> <li>· 울타리는 되도록 속박이나 제한된 느낌이 들지 않게 정원을 잘 감싸주는 조그만 관목이나 넝쿨 식물을 길러 벽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음</li> </ul>
다양한 자극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를 탄 이용자들도 꽃과 화초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정원가꾸기를 장려할 수 있어야 함</li> <li>· 시각적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네나 전망대를 계획하거나 역사적인 조형물이나 이용자의 과거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오래된 장식을 정원에 포함시킴</li> </ul>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 앉아 있거나 친구나 친척과의 사회적 접촉, 햇볕에 앉아 있기, 돌아다니기, 그룹 활동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앉을 수 있는 장소와 이에 적합한 가구, 적당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차양시설이 필요함</li> </ul>
배회자를 위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배회로가 순환형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손잡이봉과 배회로의 포장 재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출발장소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음</li> </ul>
정적인 사용자들 위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가 오는 날이나 옥외공간을 바라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나 페티오 위로 지붕이 연장되는 방향성을 고려함</li> </ul>
공간지향성이나 현실지향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산책로를 따라 매력적인 요소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시각적인 재미거리와 공간지향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li> <li>· 계절을 인지할 수 있는 나무와 꽃들을 통해 계절과 시간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함</li> </ul>

출처: 박인숙, (2003). pp.1-13.

### 3.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생활환경

#### □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욕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환경 개선이 요구됨

- 어르신의 지속적 재가생활과 지역사회 지속거주 욕구가 증가하며 노년기 삶에서 주거와 지역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
  -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2.3%이며, 다음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아서가 19.4%,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남<sup>15)</sup>
  - 개보수 등 주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9.9%,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가 있어서 9.7%,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가 힘들어서 9.6%,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가 8.1%로 나타남

#### □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치매 어르신에게 특히 중요한 재가서비스 및 병·의원 동행과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제한하는 요인은 건강악화와 생활자립 기능 저하에 있으며 이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우리나라 어르신은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25.9%), 안전 서비스(22.5%), 일상생활지원(22.2%), 병의원 외출 동행(21.2%), 상담서비스(11.3%), 주거환경 개선(11.0%) 순으로 응답함<sup>16)</sup>

【표 2-6】 노인의 지속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구분	매우필요	필요	그저그렇다	불필요	전혀불필요	계(명)
주거환경개선	11.0	56.4	21.1	9.2	2.2	100(9,930)
일상생활 지원	22.2	42.9	23.6	8.3	3.0	100(9,930)
안전지원	22.5	44.0	22.8	8.2	2.6	100(9,930)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가정 방문서비스	25.9	43.5	20.9	7.1	2.6	100(9,930)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21.2	46.5	22.2	7.5	2.6	100(9,930)
상담서비스	11.3	46.9	31.0	8.5	2.3	100(9,930)

출처: 이윤경 외. (2020), p.578.

15) 이윤경 외. (2020). p.558.

16) ibid., p.578.

□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 재가생활은 치매 증상별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경험하는 장소, 서비스, 결정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sup>17)</sup>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소 개념의 지속적 재가생활은 현 주택 유지 중심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의 선택적 지원이 유효할 수 있음
  - 초기 치매의 경우 사회적 관계성 유지를 중심으로 마을·동네 범위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 지원 정책이 유효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주거지 이전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치매 어르신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
  - 따라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에게는 사회적 관계성 유지 중심 보다는 현 주택 거주 유지 중심의 정책지원이 보다 유효할 것임
  -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교류 지원도 치매 대응의 필요 요소인만큼 돌봄 가족의 선택에 따른 지원도 유효할 수 있음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념의 지속적 재가생활은 요양시설 입소의 무조건 회피 보다는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에 대응하며 입소한 요양시설을 옮기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
  -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로 최초 입소한 요양시설을 계속하여 옮기게 되는 것 역시 환경변화에 따른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치매 요양시설이 치매 어르신의 증상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의 환경변화에 따른 과도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결정권 개념의 지속적 재가생활은 국가의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증상별 적합한 거주환경을 선택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현 주택의 거주 또는 이주, 요양시설 입소 및 입소 이후 치매 증상 악화에 따른 다른 시설로의 이주 등 다양한 치매 어르신의 생활환경 결정은 결국 돌봄 가족에게 주어진 경제·사회적 선택권 내에서 이루어짐
  - 국가는 치매 증상별 가장 적합한 치매 어르신의 주거환경과 시설입소 결정이 다양한 선택사항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17) Forsyth & Molinsky. (2021). pp.181-196.

[표 2-7] 치매 어르신의 지속적 재가생활 지원 개념 구분

구분	일반 사항	정책 지원	잠재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주택 무조건 거주</li> <li>기존 생활환경 유지</li> <li>이사비용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개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한 주택의 개조 한계</li> <li>노후 주거지로 서비스 연계 한계</li> <li>무리한 지속적 재가생활 유지에 따른 비용 발생</li> </ul>
장소 중심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한 현 주택 거주</li> <li>일반적 상황</li> <li>후기고령 등 생애주기 전환에 순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기고령(의존적 생활 필요) 시기에 서비스 집중시설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돌봄·의료 목적의 주택으로만 지원 가능</li> <li>“가능한”에 대한 개념 다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동네 거주</li> <li>적정 규모 주택으로 이주</li> <li>동일한 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성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 규모의 주거 공급</li> <li>다양한 주거 선택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동네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하거나, 기존 대비 비싼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li> </ul>
서비스 중심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시설 회피</li> <li>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 가족과 합가하더라도 시설 입소를 회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고령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li> <li>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부족 초래 가능</li> <li>가족의 돌봄 부담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시설 유지</li> <li>고령자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요양시설</li> <li>A시설에서 B시설로 이동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요양시설에서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양시설의 부담 증대</li> </ul>
결정권 중심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거 선택</li> <li>고령자 개인의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주택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이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주거 지원</li> <li>국가의 다양한 주거 지원 속에서 고령자 개인이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질의 주거 선택지 제공</li> <li>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개별 생활양식에 맞춘 삶의 질 제고와 이를 위한 이주</li> </ul>

출처: Forsyth & Molinsky. (2021), p.186 참고하여 연구진 재구성

###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치매친화 생활환경이란

치매 어르신의 기능·인지·감정·관계적 행동이상 특성에 대응하는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증상 악화 및 시설 입소의 지연, 돌봄 가족의 부담 완화를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속적 재가생활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 치매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조성이 중요

- 치매 어르신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며 심리적 위축, 사회생활의 단절, 일상생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조기의 시설 입소가 종용되는 상황임
  -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경도, 중도, 고도로 진행하며, 증상의 조기발견과 함께 증상 발전의 속도를 지연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임
  - 치매 어르신은 인지적, 행동적, 기능적 능력이 저하되어 기억력, 방향 인지력의 쇠퇴와 우울증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감소함
  -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은 치매 어르신의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함께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함
  - 치매 어르신의 자택 생활 유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은 조기의 시설 입소를 통한 집중 서비스 혜택을 선택하고 있음
  - 치매 어르신의 조기 시설 입소는 익숙한 생활환경의 급변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치매 증상의 발전을 가속하고, 돌봄 가족과의 관계성 및 사회와의 단절을 감수하게 함
-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조성 필요가 강조되며,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과 개선 필요가 높아짐
  -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의 증가는 기존 시설 중심 치매관리 정책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 사회복지학의 인간중심 돌봄 모델 강조 등으로 치매 어르신 역시 하나의 인격체로서 치매 증상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성 유지, 일상적 생활의 독립적 수행 등을 통한 자존감과 자신감 유지, 삶의 질 제고 필요의 요구가 증가함
  - 시설 입소 대비 주택과 동네·마을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개선이 치매 어르신의 인지적, 감정적, 기능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히는 모델 등이 연구됨

-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어르신의 주택 내부 생활공간과 외부의 생활환경에서의 안전성, 기능성, 인지성 등의 유지·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조성될 필요
  - 주택에서의 치매 어르신 일상생활은 화재와 낙상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와 출구의 통제 등을 통한 배회 방어가 중요함
    - 주택 내 치매 어르신은 낙상 위험과 가스(화재) 사고의 생활안전 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
    - 낙상의 방지를 위한 출입문, 바닥, 현관, 화장실 등의 개선이 중요함
    - 주택 내부에서조차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 조치가 필요함
  - 주택 외부의 생활환경에서 치매 어르신은 안전한 외출과 복귀, 안전하고 편안한 외부 활동 등을 통해 적절한 감각 자극 및 다양한 체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치매 어르신을 숙박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
    -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필요
    - 외부에서도 방향성과 길 찾기 능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 제공이 필요



# 제3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현황과 사례

- 1. 국내 현황
- 2. 해외 사례
- 3. 시사점

## 1. 국내 현황

### 1) 국가의 관련 법과 정책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 종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국가 법제도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고찰함
  - 「치매관리법」,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법과 정책, 중앙·광역 치매센터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추진 사업 등을 검토함
  - 관련 국가의 법·정책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의 한계 등을 도출함



## ① 「치매관리법」 제정과 치매센터의 설치·운영

### □ 치매 고령자 등의 질환적 특징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법」 마련

-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급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라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시행(2011.8.제정)
  -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문제에 대응<sup>1)</sup>
  - 국가 및 지자체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또한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 등 사업수행주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음<sup>2)</sup>

#### ※ 「치매관리법」 내 치매 고령자 관리·지원 관련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0. 12. 29.>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 국가적 차원의 치매 고령자 '돌봄'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 2017년 9월, 정부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sup>3)</sup>
  - 인지기능의 문제로 주변인들의 돌봄을 더욱 필요로 하는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가 나서 치매안심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8108&page=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8108&page=8) (검색일: 2022.05.26.)

2) 이동우·성수정. (2018). pp.299-300.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110/sub/17.html> (검색일: 2022.05.26.)

- 치매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환자의 지역거주(AIP)를 지원하며<sup>4)</sup>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환자 전문 요양사 파견제도 도입 등이 있음
- 치매 안심형 시설(입소시설)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에 대한 공간적 계획은 있으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마을 단위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계획은 미진한 실정임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전	시행후	차별점
치매상담·교육	경증환자 1만명	69만명 및 모든 가족	치매안심센터 1:1 맞춤형 상담·관리 제공
장기요양 보험적용	30만명	69만명 (100%)	치매등급 판정개선 모든 환자에 등급 부여
방문요양	10만명	17만명	통합형 방문서비스 제공 (요양+목욕+간호+상담)
주야간 보호	5만명	6~8만명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 제공
요양시설 입소	17만명	18만명	치매안심형 장기요양 시설 확대
일자리 창출	-	3만 6천명	



[그림 3-2] 치매국가책임제 내용 및 성과

출처: (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42870> (검색일: 2022.05.26.)  
 (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05> (검색일: 2022.05.26.)

- 지역 단위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sup>5)</sup>
  -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는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적 관리·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곳 인근의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가능<sup>6)</sup>

4) 대한민국정부. (2020). p.97.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05> (검색일: 2022.05.26.)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pWise=sub&pWiseSub=B12> (검색일: 2022.05.30.)

-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공급자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치매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 조성 및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

[표 3-1]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 및 가족 대상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으로 지원</li> <li>·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 및 치매 악화 예방,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li> </ul>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을 고려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신체기능 중심의 장기요양등급체계를 개선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li> </ul> </li> <li>·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형 시설: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 관련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li> <li>- 치매안심형 주간보호시설 및 치매안심형 입소시설 확충</li> </ul> </li> </ul>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지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행동증상(BPSD)으로 시설 및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 치료 지원</li> </ul> </li> <li>· 치매통합진료 수가 신설 등</li> </ul>
요양비·의료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li> <li>·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li> <li>·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 확대</li> <li>· 식재료비,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li> </ul>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50여개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미술 등 인지활동서비스 제공</li> <li>-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 및 지속적으로 관리</li> </ul> </li> <li>·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li> <li>· 지역사회 주민 교육 및 참여를 통한 치매 인식 개선 등</li> </ul>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 (검색일: 2022.05.26.)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

□ 치매노인의 '종합적 관리·지원'을 포함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2005.5.제정)을 토대로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2010년부터 치매 고령자 관련 내용을 포함
  - 이후 2·3차 기본계획을 통해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등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서는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돌봄 지원 확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치매 고령자를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거주(AIP) 지원,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치매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노력

[표 3-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치매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 사회 인프라 확대	- 시군구 단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제공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제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중증 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대 - '19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256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44개 구축, 치매전담형 요양 시설 42개소 신축 추진 중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치매환자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가족휴가제 확대 및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23) ※단기보호 및 중일 방문요양 서비스 - 치매 및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 ※치매알기, 마음이해하기, 부정적인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 방법 등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 개발·확산, 치매예방 실천지수, 치매예방운동법 등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통해 전국 확산 추진)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 치매진료지침 표준화,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경로 개발, 초로기(만 65세 이전 발병) 치매쉼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20), p.36., pp.100-101.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국가책임제의 완성과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치매관리 종합대책('08~'11)」을 발표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2012.2.)에 따라 해당 법령에 근거한 「제2·3·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sup>7)</sup>
  - 주요 성과로는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등 치매친화환경 조성,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확충 추진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치매환자가족 모임 지원 등 돌봄부담 경감 등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치매환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양적 부족과 접근성 문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를 가졌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 3-3] 「제1·2·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차(2008~2011)	·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
2차(2012~2015)	·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기능 보강 지원 등을 추진
3차(2016~2020)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연속적인 치매환자 돌봄경로를 위한 정책 수립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05> (검색일: 2022.05.26.)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1~'25)」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치매 관리사업 인프라 및 전달체계 확충 등 추진
  - 수요자 관점에서 치매 정책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공급자 관점의 치매 관련 인프라를 확대 및 체계화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치매환자의 지역거주(AIP)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sup>8)</sup>
  -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치매관리 관련 정책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기본계획 체계를 구성하였으며<sup>9)</sup>,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치매 예방 및 초기 관리, ② 돌봄 및 가족지원, ③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④ 치매 R&D와 사회적 환경 건설을 제시<sup>10)</sup>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05> (검색일: 2022.05.26.)

8) 대한민국정부. (2021). p.13.

9) 대한민국정부. (2021) p.13.

- 치매 예방 및 발견, 치료, 돌봄 등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표 3-4]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4대 영역, 8개 분류, 46개 과제)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 (4대 영역, 8개 분류, 41개 과제)	·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 치매관리 공급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21). p.14.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3-5] 치매관리사업 개요

연도	내용
2008.9.	· 「치매종합관리대책(’08~’12)」 수립 및 발표 - 치매검진, 치매진료 및 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2010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12.2.	·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12~’15)」 수립·시행 - 중앙치매센터 운영(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치매상담콜센터 운영 본격 추진 등
2015.12.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수립·확정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 및 관리, 치매 진단·치료·돌봄,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 추진 등
2017	·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 치매 관련 통합적 상담·사례관리 등 치매관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2020.10.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 발표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확대,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등 추진
2021.6.	· 「치매관리법」 개정(’20.12.29.)에 따른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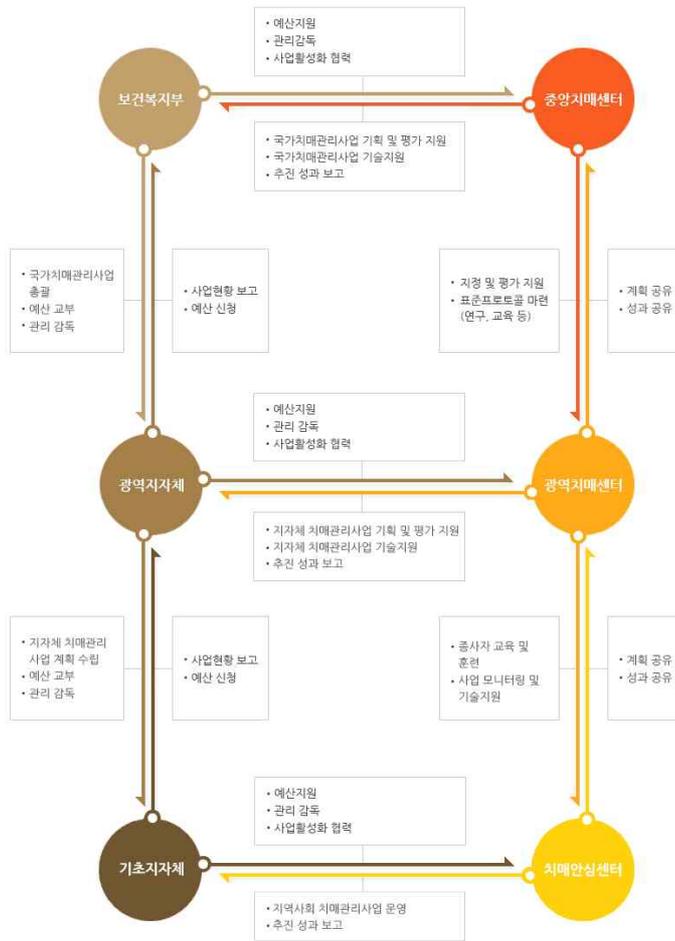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22a). pp.3-4.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10)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 <https://www.dementia.or.kr/bbs/index.php?code=news&category=&gubun=&page=1&number=1163&mode=view&keyfield=&key=> (검색일: 2002.05.30.)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 치매 고령자 등의 질환적 특징에 대응하는 ‘의료’ 성격의 사업전달체계 설치 및 유기적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중앙·광역 치매센터, 지역 치매안심센터)

-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치매정책 연계를 위한 치매관리전달체계 구축
  -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sup>11)</sup>



[그림 3-3] 치매관리전달체계

출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sub/sub.aspx?seq=001005004>

(검색일: 2022.05.26.)

11) 보건복지부 (2022a). p.5.

- (중앙치매센터) 병원·의료원의 치매 연구와 서비스 사업 수행
  - (설치 목적) 국가치매정책 추진의 중심 역할과 치매 관련 연구·서비스의 통합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됨
  - (운영 방식)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 실시<sup>12)</sup>, 2019년 12월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6월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sup>13)</sup>
  - (기능과 역할)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한 국가치매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평가·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치매친화 생활(물리)환경 조성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있음

**표 3-6] 중앙치매센터 주요 역할**

구분	내용
정책지원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국가 단위 치매정책 기획 및 개발
정책연구	· 국가 단위 정책연구 기획·조정·개발 / 국내·외 치매관련 현황 분석 / 치매노인실태조사 및 치매역학조사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평가	·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지원 /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평가지원
사업지원	· 치매관리사업 관련 지침 개발 / 치매관리사업 개발 및 확산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기술지원
교육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직종별 치매전문교육 지원 / 치매교육 이수자 이력관리
연계협력	· 정부 및 공공기관 협력·연계 / 기업 및 기관 협력·연계 / 학협회 협력·연계 / 학교 협력·연계
홍보	· 국가 치매 사업 홍보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 / 온·오프라인 치매극복 캠페인 진행 / 치매 정보 확산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p.9-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광역치매센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매정책 개발 및 치매 고령자 지원
  - (설치 목적) 국가치매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치매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간 치매환자 건강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공립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 (운영 방식)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운영<sup>14)</sup>

12) 「치매관리법」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13)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14) 2022년 1월 기준 광역치매센터 현황: 서울대학교병원(서울), 동아대학교병원(부산),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인천), 전남대학교병원(광주), 충남대학교병원(대전), 동강병원(울산), 충남대학교병원(세종), 명지병원(경기), 강운대학교병원(강원), 충북대학교병원(충북),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예수병원(전북), 성가롤로병원(전남),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북), 경상대학교병원(경남), 제주대학교병원(제주) 총 17개소

- (기능과 역할) 광역치매센터 또한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행하고 있어 치매친화 생활(물리)환경 조성 보다는 연구·사업지원·교육·홍보 등 서비스의 차원에 초점을 둠

[표 3-7] 광역치매센터 주요 역할

구분	내용
정책지원	· 시·도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시·도 단위 치매정책 기획 및 개발지원 / 시·도 단위 치매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원
연구·통계	· 지역 치매통계 관리 / 지역 치매프로그램 개발·운영
평가	· 치매안심센터 평가지원
사업지원	· 치매안심센터 사업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공립요양병원 등 지역 내 치매관련 기관 지원 사업
교육·홍보	· 종사자 교육·훈련 / 지역사회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 지역사회 치매 관련 서비스 자원 발굴 / 지역사회 치매 유관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시·도 단위 치매관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기타	· 그 외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p.23-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를 통한 치매의 예방-발견-치료-돌봄
  - (설치 목적)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치매 예방, 상담 및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능과 역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또는 외부 서비스 연계
  - (주요 사업)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중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표 3-8]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구분	
	서비스 사업	생활환경 조성 사업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1.1 등록관리	✓	
1.2 상담	✓	
2. 치매조기검진		
2.1 일반 조기검진 사업	✓	

사업명	사업유형 구분	
	서비스 사업	생활환경 조성 사업
2.2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2.3 집중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사업	✓	
2.4 검사결과지 보관 및 발급	✓	
2.5 치매검사비 지원	✓	
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4. 치매예방관리사업		
4.1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	✓	
4.2 치매예방교실	✓	
4.3 인지강화교실	✓	
5. 치매환자쉼터	✓	
6.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6.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	
6.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6.3 조호물품 제공	✓	
7.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7.1 가족교실	✓	
7.2 자조모임	✓	
7.3 힐링프로그램	✓	
7.4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	
8. 치매인식개선 사업		
8.1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	
8.2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행사	✓	
8.3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8.4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관리	✓	
9. 치매파트너 사업		
9.1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	
9.2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활동 활성화	✓	
9.3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관리	✓	
9.4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	
10. 치매안심마을 운영		✓
11.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11.1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11.2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발굴	✓	
11.3 지역사회 자원연계	✓	
12.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분석 및 성과평가	✓	
1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	✓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p.60-163.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2) 국내 관련 사례

### ① 치매안심마을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사업

- 지자체에서 시작된 치매안심마을은 '19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sup>15)</sup>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중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은 치매안심마을 운영이 유일함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2년 기준 256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별 2개소 이상의 치매안심마을 운영<sup>16)</sup>

[표 3-9]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1	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2	치매조기검진사업	7	치매인식개선 사업
3	치매예방관리사업	8	치매파트너 사업
4	치매환자쉼터	9	치매안심마을 운영
5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10	지역사회 지원강화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p.60-163.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치매안심마을 사업 개요

- 추진 배경<sup>17)</sup>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국가책임제」에서의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계획 내 세부 사업으로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서 처음 등장
  - 기존의 제1·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에 기반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방지하고 이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안전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15) 보건복지부. (2022b). p.1.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6) 보건복지부. (2022a). p.7., p.151.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7) 김민규 외. (2018). pp.330-331.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업 목적
  -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함<sup>18)</sup>
  - 또한 치매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속거주(AIP)를 지원
- 치매안심마을 현황
  - 국내 치매안심마을은 '21년 기준 64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19년 370개소, '20년 505개소)<sup>19)</sup>

#### □ 주요 사업 내용<sup>20)</sup>

- 지역사회 자원조사
  -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자율적 주민센터 등 지역 내 자원 조사 실시
- 치매안심마을 선정
  - 노인인구수, 치매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수, 접근성, 지역 자원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마을 선정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요 공공기관, 민간시설, 자율적 주민단체 등 최소 5개 기관 이상 총 10인 내외로 구성
  - 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2회 진행
- 치매안심마을 사업 수행 및 운영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교육·홍보·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18) 보건복지부. (2022a). p.151.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9) 보건복지부. (2022b). p.1.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 보건복지부. (2021a). p.130.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사업 운영 절차 및 방법

- 치매안심마을 지역 선정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하며 활동(관리) 구간은 행정구역 내 일부구역일 수 있음
  - 지역 내 고령자 수,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와의 접근성, 지역자원 활용가능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역 조사
  - (자원 조사)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 민간시설, 자율적 주민단체 등 조사
  -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 치매안심마을 운영 전에 지역주민(30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 조사를 진행
- 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 기관(공공기관, 민간시설, 주민단체 등) 및 지역 주민(치매환자 가족, 개인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 구성

[표 3-10] 운영위원회 구성 분류(예시)

주요 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치안센터), 도시가스, 전력공사 등
주요 민간기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소규모 상점 및 대형마트 등
자율적 주민단체	이장·통장단, 경로당,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아파트운영위원회 등
지역 주민	치매환자 가족, 개인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152.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정 등록
  - 치매안심마을 등록 기준 충족 시 치매안심마을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치매안심마을 지정 시 지정 번호를 부여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정현판을 제작 및 전달
- 마을 운영
  - 치매안심마을 인증 기준(치매안심마을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30인 이상)으로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

[표 3-11] 치매안심마을 운영 분류

항목	세부 내용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2회 진행 - 치매안심마을 기획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의사결정 -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사업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인식개선 교육 진행 -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환자 대응 요령 등
치매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치매안전망 구축 - 지역 내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실종 치매 노인 지원서비스 제공 등
홍보 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실시 - 주민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 진행, 현판·안내판 부착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치매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 또는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안전환경 조성	지역사회 치매노인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 - 주거환경개선, 경로당 환경개선, 실외환경개선(벽화그리기, 공원조성)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153.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치매안심마을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치매안심마을 인증
  - 1년 이상 치매안심마을 운영 후 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에 도달 시 인증

[표 3-12] 치매안심마을 인증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운영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교육 사업	운영위원회 전원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극복선도단체 또는 치매안심가맹점 2개 이상 지정
홍보 사업	주민 대상 홍보 운영
프로그램 운영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주민 대상 사후 치매인식도 조사 실시(30명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 (2022a). p.154.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②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공모사업(2022)<sup>21)</sup>

### □ 공모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지역단위 치매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활용하여 기획력이 있는 지자체에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 신규 발굴 및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추진

#### ※ (국정과제 45번 실행계획)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 강화” 주요 내용

▶ 치매정보시스템 연계 및 실태·역학조사 실시, ▶ 치매안심센터 사례 관리 기능 고도화, ▶ 지역사회 치매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치매친화 커뮤니티 조성

#### • 사업 목적

- 지역사회의 치매 친화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치매 친화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를 개선·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확산을 도모하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

#### • 추진 방향

- (지역사회 중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사업 기획 및 운영
- 지역의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치매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및 연계
- (연계·협력) 개별·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중앙 및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상호 연계
- 지자체에서 부족하거나 공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 자원 활용 또는 신규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신설 및 확충
- (치매친화적 커뮤니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친화적 커뮤니티 조성
- 치매환자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삶,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등이 추구되는 지역사회 조성

21) 보건복지부. (2022b). pp.1-8.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업 공모기간 및 신청현황
  - (공모기간) '22.6.23. ~ '22.7.8.
  - (사업기간) 2022년 7월 ~ 12월 (6개월)
  - (실시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시군구
    - \*기존 치매안심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규 지정도 가능
  - (사업예산) 금 2,000백만원
    - \*15개 시군구 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최대 3억원 지원
  - (신청현황) 대면심사 대상은 총 28개 기관(12개 시도, 28개 시군구)으로 확인
    - \*총 신청예산 : 2,410,528(천원)
- 예산 편성기준
  -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예산·회계 지침 상 편성기준을 준수하며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을 지양
  - 예산은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며 인건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80% 범위 내에서 편성
  - 운영경비(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는 합계가 총 예산의 15% 이하로 편성하고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는 운영경비의 5% 이하로 편성
  - 또한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 제작·구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비 내에서 편성
-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 시군구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및 기존·신규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황, 추진방향, 세부사업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각 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지원

[표 3-13] 치매안심마을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사업계획서 항목	세부 내용
기관명	OO시 △△구 치매안심센터
사업유형	① 사회적 지원, ② 치매 인식 개선, ③ 지역특화 사업 중 선택
사업명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마을의 읍면동 단위 지정 여부(기존 지정 및 신규 지정 현황)

사업계획서 항목	세부 내용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
사업대상자(명)	-
주요내용	사업배경 및 필요성,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용 등
기대효과	-
기타사항	해당 사업 특이사항(ex.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여부 등)
소요예산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담당자	담당자 정보(부서, 성명, 연락처)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의외의 정책실무협의회(2021.07.07.)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사업 운영 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마련 및 공모, 예산 지원 등 사업 총괄
  - 사업계획 확정 및 지침 마련 등 운영 관리
  - 사업평가에 따른 피드백 제공, 사업 지역 확산 추진
- (사업지원기관) 중앙치매센터 사업 관리 및 평가
  - 선정평가 시행, 사업평가 실시·분석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평가·컨설팅 등 지원(중앙 및 광역치매센터)
- (공모 선정 지자체) 사업 발굴 및 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그림 3-4]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운영 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2022b). p.4.

## □ 사업 유형

- 사회적 지원
  - (목적) 지역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게 유도하는 효과
  -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참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치매환자 및 가족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

[표 3-14] 사회적 지원 관련사업 예시

구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환자 및 가족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환자 및 가족 대상 야외활동 프로그램	치매환자 안부확인	치매환자 안전 네트워크 구축	외출동행 서비스
목표	• 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회통합 • 사회참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	• 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회통합 • 사회참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치매 인식 개선	•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접촉 유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	• 실종 및 배회 치매 환자 조기 발견	• 치매 환자의 사회 참여 활성화 • 가족들의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 지역 내 치매환자 • 치매환자 및 가족		
주체	• 복지관 및 지역 내 문화 시설 (관련 시설 자원 봉사 활용)	• 지역 내 복지관 및 경로당 (관련 시설 자원봉사 활용)	•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일반 주민 등	• 지역 내 관공서, 보건소, 파출소, 운수업체, 지역 내 부녀회 등	•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내용	• 환자 및 가족 대상 영화 감상 프로그램 운영 • 환자 및 가족 대상 미술 감상 프로그램 운영 • 환자 및 가족 대상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 운영	• 환자 및 가족 야유회 (소풍)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가정 정기적 방문 및 전화 확인	•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 및 배회 신고 시 지역 내 부녀회, 운수업체 종사자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	• 자원봉사를 활용한 치매환자 동행 서비스 : 치매환자 외출 시, 가족이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 동반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2022b). pp.5-6.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치매 인식 개선
  - (목적)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예방과 조기발견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
  - (홍보사업) 치매안심마을 인증사업, 치매관련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 활동 등
  - (교육) 치매 질환에 대한 정보 및 돌봄·의사소통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대중교통 운전자, 약국 등 치매환자를 자주 접하는 특정 직종의 지역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교육대상자 연령(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추진
  - (사회참여) 치매환자 및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 등 참여활동을 촉진

[표 3-15] 치매 인식 개선 관련사업 예시

구분	홍보사업		
	치매안심마을 인증	치매관련 홍보물 배포	치매관련 캠페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주민 인식제고</li> <li>• 치매친화시설 홍보를 통한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li> <li>•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 관심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관련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li> <li>• 청소년 참여 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일반 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일반 주민</li> </ul>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 파출소, 관공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보건소, 도서관</li> <li>• 지역 민간자원 : 복지관, 교육시설</li> <li>• 주민단체 :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 파출소, 관공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보건소, 도서관</li> <li>• 지역 민간자원 : 복지관, 교육시설, 병의원, 약국, 상가</li> <li>• 주민단체 : 노인정, 노인회관, 마을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교육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 마을 내 치매안심마을 선정 홍보물 게시</li> <li>• 민간자원 및 단체 : 치매친화기관 인증마크 부착</li> <li>• 관공서 및 보건소 : 치매친화 시설 표시 지역 지도 제작 및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시설 내 치매관련 홍보자료 배치</li> <li>• 기관, 시설 내 치매관련 포스터 부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 : 인식개선 캠페인(치매극복견기대회, 치매체험부스)</li> <li>• 교육시설 : 치매관련 포스터, 표어, UCC 공모전 개최</li> <li>• 관공서, 도서관 : 치매 관련 도서 전시 및 영화 상영</li> <li>• 문화시설 : 치매관련 전시회</li> </ul>

출처: 보건복지부. (2022b). pp.7-8.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역 특화 사업
  -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자율적 사업 기획을 실시

## □ 사업계획서 분석 결과<sup>22)</sup>

### •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치매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마을 조성,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공통된 주요 목적은 ①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②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및 환경 조성, ③지역사회 공동체 구축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한 AIP 실현 지원 등임

### • 담당부서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담당기관은 의료·보건적 성격의 보건소(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치매안심과 등)로 확인
- 이를 통해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물리환경보다는 의료, 보건, 교육 등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축도시환경(마을, 공간) 차원에서의 구체적 공간모델과 실행체계 마련은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 • 주요 사업 내용

- 지자체별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세부내용 검토 결과,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의료 및 보건·복지, 교육 관련 사업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지향하나 그 환경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의료·보건서비스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
- 즉, 치매안심마을 사업들은 교육, 돌봄 지원 등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에 치중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 조성은 핵심 요소가 아닌 이러한 서비스 효율을 높여 주기 위한 부수적 요소로 간주되는 실정

### • 물리적 사업 추진 범위 및 관련사항

- 치매안심마을의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범위는 크게 아파트 단지 내, 주거 공간, 공원,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실외환경(산책로, 보행로, 대중교통 정류장 등)으로 분류
- (아파트 단지) 바닥안내길 조성, 건강계단 설치, 야간 인포빔 설치 등
- (주거 공간) 미끄럼 방지매트, 손잡이 등 생활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 소방시설 안전 점검 등 화재안전 환경개선, 일상생활 안전수칙 스티커 보급 등

---

22)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와의 정책실무협의회(2021.07.07.)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원) 기억산책길 및 치매 예방존 조성, 입간판 구조물 및 고보조명 설치 등
- (공공시설) 실내 안전바, 낙상방지용 안전장치 등 시설 개선, 텃밭 조성 등
- (실외환경) 치매안심 배려석 설치, 벽화 및 꽃길 조성, 그늘막 및 안전손잡이 설치,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 매립, 치매안심벨 설치 등

[표 3-16] 치매안심마을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28개 시군구)

구분	사업 유형		물리적 사업 추진 범위					
	사회적 지원	치매 인식 개선	지역 특화	아파트 단지	주거 공간	공원	공공시설 <sup>1)</sup>	실외환경 <sup>2)</sup>
1			●	●		●	●	
2	●		●		●	●		
3		●		●		●		●
4	●				●			●
5	●							
6	●	●	●			●		
7		●						●
8			●	●		●		●
9			●			●		●
10	●	●						
11	●				●	●	●	●
12		●			●		●	●
13	●	●	●		●		●	●
14		●				●		
15			●		●			
16			●				●	
17	●		●				●	●
18		●						●
19	●				●		●	
20	●	●	●					●
21			●					
22	●							
23	●				●			
24			●					●
25			●		●			
26			●	●			●	●
27	●							
28			●				●	●

주1)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2) 산책로, 보행로, 대중교통 정류장 등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의 정책실무협의회(2021.07.07.)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③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 □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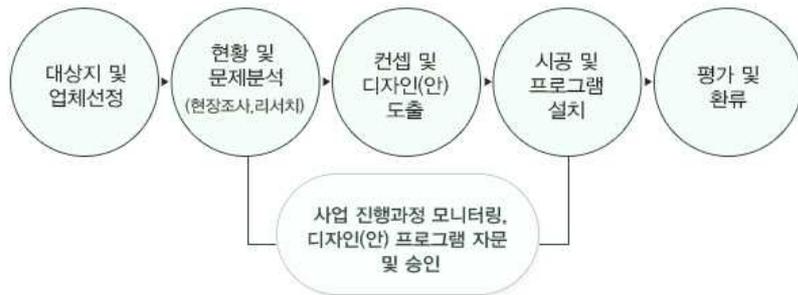
-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노인의 급증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가정과 노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응하는 인지건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sup>23)</sup>

**※ 인지건강디자인이란?**

‘인지건강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의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치매환자 등이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익숙한 주거환경 디자인을 변형한 것을 의미함

출처: 김현주·이승지. (2021). 주거지에 적용된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의 유지관리 실태 연구. p.42.

- 노인의 행태,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지강화사인, 안전마감재, 정서안정소품 등)을 시행하였으며 지역 환경의 인지강화를 위한 디자인을 개발 및 적용(사례지 내 배회 대응 커뮤니티 연계 등)<sup>24)</sup>
- 어르신이 고위험군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후 치매로 이어지기 전에 학습 및 적응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과 돌봄 가족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일상 환경을 적절히 개선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과 정서 향상, 치매 지연 및 예방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sup>25)</sup>



[그림 3-5]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출처: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74901> (검색일: 2022.11.04.)

23)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다세대·아파트단지 2곳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11월2일 보도자료.

24)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74901> (검색일: 2022.11.07.)

25)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다세대·아파트단지 2곳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11월2일 보도자료.

## □ 시범사업별 주요내용

- 영등포구 신길4동
  - (추진배경) 신길4동 아파트 단지는 1개 동 387세대 규모로 거주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26%를 차지함<sup>26)</sup>
  - 기억둘레길(보행로), 기억마당(운동공간), 기억쉼터(휴식공간), 기억마루(층별 표시), 기억이정표, 기억갤러리(추억나눔), 기억우편함 프로젝트를 진행함
  - 이 외에도 사전신청을 한 어르신 50가구에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함께 문패를 만들어 설치하여 현관 구분에 도움을 줌

**[표 3-17] 영등포구 신길4동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내용**

<b>1. 기억둘레길</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지를 한 바퀴 도는 220m의 산책로</li><li>• 바닥에 초록색으로 보행길을 표시하고 턱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구분하여 안전성 확보</li><li>• 100m 간격으로 쉴 수 있는 1인용 벤치 설치</li><li>• 낮은 키의 볼라드 조명을 설치하여 밤 시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li></ul>
<b>2. 기억마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파트 뒤편 배드민턴장을 활용한 운동공간 조성</li><li>• 벽면에 7개의 인지건강 체조 동작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함</li><li>• 바닥에는 균형잡기, 보행연습 등 가벼운 운동동작을 유도</li><li>• 지압길 조성</li></ul>
<b>3. 기억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존 파고라와 벤치 2곳을 해쉼터(방향 인지력 향상), 달쉼터(오감자극)로 구분하여 조성함</li><li>• 해쉼터: 그림자로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해시계 조성, 단지 배치도, 나침반, 날짜와 시간등을 알아볼 수 있는 디지털시계 설치</li><li>• 달쉼터: 버튼을 누르면 귀에 익숙한 옛 가요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화단, 조명, 지압길을 조성하 오감을 자극함</li></ul>
<b>4. 기억마루</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독성이 떨어지는 안내사인에 대비·명도·채도차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사인을 만들</li></ul>
<b>5. 기억이정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개로 나뉘져있는 주차장과 출입구에 해·달·별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지거점 조성</li></ul>

26)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다세대·아파트단지 2곳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11월2일 보도자료.

-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바닥, 벤치,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과 인지건강에 도움을 줌

## 6. 기억갤러리

- 1층 공용공간에 옛 기억을 추억할 수 있는 기억갤러리 조성

## 7. 기억우편함

- 387세대의 똑같은 우편함을 층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함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6] 기억둘레길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7] 기억둘레길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8] 기억둘레길 쉼터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9] 기억마당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10] 해쉼터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11] 달쉼터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12] 기억마루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13] 기억마루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그림 3-14] 기억우편함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양천구 신월1동
  - (추진배경) 신월1동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 보행 위험이 따르고 비슷한 형태의 주택이 많아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힘든 지역임
  - 이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이면도로 바닥에 라인을 표시하고, 선을 따라 동네를 돌 수 있도록 순환형태의 ‘이음길’을 조성하였음. 또한 어르신들이 보행 중 쉬어갈 수 있도록 길 중간에 쉼터를 만드는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교차로 사인을 새롭게 개선하였음
  - 이외에도 동네 지리에 밝고 주민들을 잘 알고 있는 슈퍼, 부동산 등 5곳의 점포를 ‘길 반장’으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점포에는 색깔이나 심볼 표시로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함

## 2. 해외 사례

###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

□ 해외의 주요한 정책사례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을 검토함<sup>27)</sup>

-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고령화와 치매환자급증으로 국가 차원의 치매전략 수립과 사업 등을 추진하며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함
  - 중앙치매센터는 영국, 캐나다 등 선진 7개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수명 연장과 고령화, 이에 따른 치매환자 수의 급증 상황을 보고함<sup>28)</sup>
  - 캐나다는 치매 예방·치료에 442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사업으로 지정<sup>29)</sup>
  - 아일랜드는 인간성과 시민권 중심의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노인 지원모델을 개발함<sup>30)</sup>
- 해당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을 검토하고 치매친화 주택 및 외부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 주요 혜택, 국가와 지자체 역할로 구분하여 정리함
  -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 주택,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주요 특징을 검토
  - (주요 혜택) 각 디자인 지침서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지역사회의 혜택을 검토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디자인 지침 적용의 국가와 지자체 역할을 검토

---

27) (영국)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Dementia-Friendly Health and Social Care Environments」. Stonery Office, U.K.; (아일랜드)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Universal Design Guidelines Dementia Friendly Dwellings for People with Dementia, Their Families and Carers」. Ireland.; (캐나다) The Department of Seniors and Long-Term Care. (2022). Long Term Care Facility Requirements, Canada.; (호주)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2004). 「Dementia Care and the Built Environment, Position paper 3」. Australia.

28)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 (검색일: 2022.11.30.)

29) 유송희. (2019). 캐나다, 치매 예방·치료에 442억원 예산 투입 '국가적 사업 지정'. 경인일보 6월 18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90618010006816> (접속일: 2022.05.30.)

30)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s://beautifulfund.org/62666/> (검색일: 2022.11.30.)

## □ 치매친화 주택공간 조성의 주요 방향<sup>31)</sup>

-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주택 내 생활
  - (낙상 방지 처리) 화장실, 주방 등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계단, 문지방 등의 재질, 색상 대비를 통한 안전성 강화, 어지러운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바닥 마감, 충분한 조도 확보
  - (무작위 외출 방지) 현관, 출입구 등의 위치를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여 무단의 무작위 외출과 배회를 방지
  - (방향성 확보) 주택 내 방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실, 침실 등을 찾기 쉽도록 함
  - (식사 및 복약 유도) 안내 문구, 표지 등을 통해 정기적 식사와 복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자해 및 상해 방지) 식용이 금지된 식물의 배치, 과도하게 뜨거운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수도의 노출, 날카로운 면과 모서리가 있는 주택설비와 가구 등의 배치를 금지하여 자해 또는 상해를 방지해야 함
- 치매 어르신에게 적당한 자극을 제공
  - 치매 어르신의 청각, 촉각, 후각, 시각 등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을 조성하되, 작은 규모의 방과 공간 구획으로 과다·과도한 자극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치매 어르신이 목적이 분명하며 의미 있는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주택 공간을 조성
  - 정원, 마당, 공원 등 자연이 주는 다양한 오감 자극의 아늑한 공간에서 목적이 있는 행동(식물에 물 주기, 반려 동물 먹이 주기, 잡초 뽑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시감각 및 방향성 인지를 지원
  - 대형 게시물 등을 통한 현 위치, 현 시각, 현재 날씨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자보다는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
  -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 구조물, 예술작품 설치 등을 통한 방향감각 유지를 지원
  - 주변 대비 조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공간과 장소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

31)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pp.25-3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3-18] 해외의 치매친화 주택 조성 방향

영국, 「Dementia and Town Planning(2020)」

-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주택 설계는 매우 중요하며 쉽게 눈에 띄고, 길을 찾기 쉽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등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이동상 위험 또는 단차 변화를 방지하고 대조적인 난간(레일) 및 적절한 조명을 제공
  - (시각적 단서) 건물 주변의 명확한 표지판, 시각선 및 경로 등 제공
- 주요내용
- (명확하게 정의된 방) 각 방에서 일어나는 활동(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 (내부 디자인) 반사되는 표면 및 혼동되는 패턴 사용을 피하고, 연령 및 문화적으로 적절한 디자인 적용
  - (소음) 치매환자들은 소음에 민감하거나 난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용한 장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방음 등을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
  - (조명 디자인) 대다수의 치매 환자들은 시각 및 지각 장애, 시력 손실 또는 그들이 본 것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연광 또는 강한 인공조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이미지 [그림 3-15] (좌)대조적 난간 및 적절한 조명, (우)명확하게 정의된 방



[그림 3-16] (좌)내부 디자인, (우)조명 디자인

출처: Public Health England. (2020). 「Dementia and Town Planning」, U.K. pp.12-13.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침실) 의료진과 때때로 공유해야 하는 사적인 공간
    - 거주자에게 친숙한 가구를 사용하며 거주자가 방을 개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방해받지 않고 어수선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세척이 쉽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덮개 사용 등
  - (화장실 및 목욕 공간) 개인위생, 화장실에서의 독립성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을 통해 치매환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음
    - 쉽게 볼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위치와 스타일이 익숙한 고정 장치 등을 제공해야 하며 물과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 색상 대비를 통해 장비에 대한 인식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며 접근 용이성 및 가시성, 야간 인식 등을 위해 출입구와 화장실을 적절히 배치
- 주요내용**
- (주방 및 식사공간)
    - 개방형 선반 등 안전한 물체의 인식 및 사용을 위한 단서를 시각적으로 제공
    - 화재 및 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 스위치 등을 설치
    - 위험한 장비 등은 안전을 위해 찬장 문 등으로 가려놓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정감과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를 사용해야 하며 그릇의 식별을 돕기 위해 대조적인 색깔을 사용
  - (거실 및 공용공간)
    - 운동, 공예, 음악 등을 포함하여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통합적 공간
    - 단어,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단서들로 해당 공간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

출처: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2004). pp.7-9.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아일랜드, 「Universal Design Guidelines Dementia Friendly Dwellings for People with Dementia, Their Families and Carers(2015)」

- 치매친화적 디자인의 주요 이슈
  - 해석하기 쉬운 환경의 제공, 청각 및 시각적 방해로 감소시켜 침착하고 세심한 환경의 조성 필요
  - 주거공간 내 주요 영역 또는 중요한 물건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필요
  - 주택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의 의미와 기능이 읽기 쉽고, 기억에 남도록 차별화된 공간 조성
  - 치매환자의 자아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의 개인화를 지원
- (거실)집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 중 하나로, 치매환자는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공간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매우 중요
  - 시각적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차분하고 뚜렷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
  - 적절한 조명 수준, 시인성 높은 색상, 특정 마감재 등 적절한 가구 및 재료를 사용
- (주방) 주방의 디자인은 독립성과 사회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함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방을 집 중앙에 배치하고, 식사공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
  - 주방에서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지, 외부로의 개방은 안전한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식사공간) 식사경험을 향상 및 치매환자의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개방된 식사공간은 접근과 사용이 쉽고, 요리 활동 및 음식 냄새가 시각·후각적 신호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음
  - 또한 치매환자들은 식사를 하며 다른 공간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립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침실) 치매환자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야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안전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차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및 내부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침실을 배치하고, 내부 및 외부 벽, 천장, 바닥 등에 방음재를 충분히 설치
  - 창문의 크기와 위치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하고, 침대에 앉거나 누웠을 때 바깥의 풍경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침실 내부의 화장실은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침대에서 보여야 함. 또한 뚜렷한 색상과 톤 대비를 통해 화장실 문이 잘 보이고, 화장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화장실) 치매환자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돌봄 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 메인 화장실은 모든 공간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문에 표지판, 색깔 표시 등을 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치매환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동 물 차단 밸브, 이동 센서, 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설비 등 안전장치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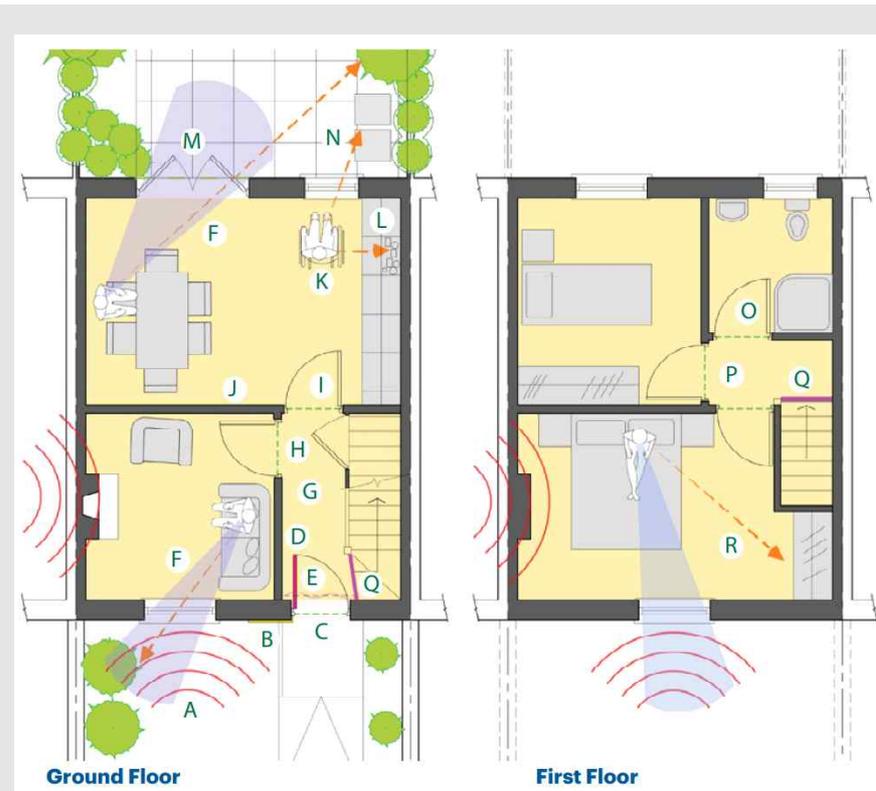


이미지 [그림 3-17] (좌)치매친화적 디자인의 주요 이슈, (우)거실



[그림 3-18] (좌)식사공간, (우)화장실

출처: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pp.8-9., pp.77-95.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19] 2층 규모 단독주택의 치매친화적 공간조성 예시

출처: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p.10.

- A: 외부 소음의 차단
- B: 외부에서의 출입구 주변 식재, 문 색상 대비를 통한 인지 도움
- C: 무장애 출입
- D-E: 내부에서 출입구가 위치함을 인지하기 어렵도록 커튼 등을 설치
- F: 외부를 완전히 가리지는 않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커튼, 블라인드 등을 설치
- G: 빛 반사가 심하거나 어지러운 패턴을 사용하는 바닥 마감을 지양
- H: 공간이 구획되는 지점에서 연속적인 색상과 재질의 바닥 마감을 지양
- I: 실내 공간이 구획되는 출입문의 경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가 강한 색상과 재질을 사용
- J: 벽과 바닥의 경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가 강한 색상과 재질의 걸레받이를 설치
- K: 마당의 설비(쓰레기통 등)가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창문을 설치
- L: 유광처리된 재질의 찬장 등을 설치하여 시각적 구분감을 제시
- M: 외부로의 탈출이 제한된 마당, 정원으로의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용이 편리한 출입문을 설치
- N: 쓰레기통, 빨랫줄 등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설치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O-P: 화장실 등 중요한 주택 내부 공간의 출입문 인지를 지원하기 위한 대비되는 색상, 재질을 사용하고 조명을 설치
- Q: 2층 바닥과 계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대비되는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고, 이동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핸드레일을 설치하며 핸드레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되는 벽체 색상을 사용
- R: 유광처리된 재질의 옷장 등을 설치하여 시각적 구분감을 제시

## □ 치매친화 외부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방향<sup>32)</sup>

- 주택의 위치 및 입지
  - 주택 인근에 지역 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치매 어르신의 도보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필요
  -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부근 등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지양할 필요
- 집 주변 보행로 및 시설
  - 집 주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구조물, 시설물, 예술작품 등을 배치하여 방향성 유지 및 길 찾기를 지원
  -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되, 과도한 표지판 설치의 지양할 필요
  - 보행로의 100~125m 간격으로 등반이와 팔걸이가 있는 벤치를 설치할 필요
  - 건물의 출입구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눈부심을 유도할 정도의 과도한 밝은 조명 사용은 자제할 필요
- 외부 생활환경에서 집으로 복귀
  - 외부에서 주택(주거단지)으로 들어서는 공간은 개별 치매 어르신에게 익숙한 색상과 재질을 활용하여 조성
  - 외부에서 각 주택으로 들어서는 문은 주택마다 다른 색상, 재질 등을 사용하여 본인의 집을 들어서기 위한 출입문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단지의 중앙 출입구 및 공동주택의 중앙 현관은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출입구와 현관 주변 식재, 벤치 등을 통해 차별성을 높일 필요
- 외부 공간의 보행 지원 손잡이(핸드레일)
  - 보행로와 치매 어르신의 주요 방문 시설 주변, 비탈길 및 경사로에는 핸드레일 설치가 필수
  - 눈에 띄는 색상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핸드레일의 시작과 끝 지점은 대비되는 색상 처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

32)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pp.28-47.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외부 공간의 조명과 식재

- 건물의 출입구, 보행로의 진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시각적 인지를 지원할 필요
- 동작 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치매 어르신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출입구, 보행로의 시작과 끝 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로 바닥, 주변 건축물의 색상과 대비되는 식재를 사용
- 과도한 그늘을 드리우는 식재가 사용되는 경우, 치매 어르신은 보행로의 조도 차이를 계단 등으로 혼동하여 낙상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그림 3-20] 치매친화 외부 생활환경 조성 예시

출처: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p.29, p.33, p.36, p.39.

[표 3-19] 치매친화 외부 생활환경 조성 방향

영국, 「Dementia and Town Planning(2020)」	
주요내용	- 외부 환경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근본적 요소이며, 지역 내 편의시설(상점, 병원, 은행 등)에 쉽고 안전하며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일관성과 친숙함은 치매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외부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친숙함) 장소와 건물들의 기능이 명백해야 하고, 변화는 소규모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독성) 거리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층화하고, 이동 중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명확한 신호(표지판 등)가 있어야 함
	- (차별화) 다양한 랜드마크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타일과 재료로 건축적 특징을 부여하며 다양한 실용적인 특징이 있으나 어수선하지는 않도록 디자인할 필요
	- (접근성) 주택으로부터 도보 5-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토지 이용은 상점과 서비스가 혼합되도록 하며 각 장소로의 출입구는 명백하고, 사용이 쉬우며, 장애인 접근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편안함) 화장실, 벤치, 휴게시설/공간 및 적절한 조명 등을 통해 편안한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할 수 있음. 또한 식재와 울타리 등을 통해 교통 소음 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보행활동을 돕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거리의 어수선함을 최소화할 필요	
- (안전함) 보행로는 넓고 평평하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두운 그림자나 밝은 눈부심을 피하도록 하고, 보행공간을 차량 등과 공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그림 3-21] (좌)이동 중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표지판, (우)접근성 높은 편의시설

이미지



[그림 3-22] (좌)편안한 오픈 스페이스, (우)안전한 보행환경

출처: Public Health England. (2020). p.9, pp.18-19.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The Dementia Enabling Project를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10가지 디자인 요소를 제시

- ① 눈에 띄지 않게 위험을 감소시키기
  - 치매환자는 안전하며 이동하기 쉬운 내·외부 환경을 필요로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능을 눈에 띄지 않게 통합할 필요
- ② 휴먼스케일로 제공하기
  - 건물의 규모는 치매 환자의 행동 및 감정에 영향을 미침. 주변 건물들의 크기에 겁을 먹거나 수많은 상호작용 및 선택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
- ③ 치매환자들이 보고, 보일 수 있도록 하기
  - 치매 환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특정 방향으로 향하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함
  -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외부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 ④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기
  - 치매환자들은 많은 양의 자극에 장기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자극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이를 위해 시각적·청각적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표지판 주변 시각적 방해요소들을 제거할 필요
- ⑤ 도움이 되는 자극은 최적화하기
  - 치매환자가 자신의 위치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물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 ⑥ 움직임 및 참여 지원하기
  - 잘 정의된 경로, 방해물이나 복잡한 의사결정 지점이 없는 경로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방향을 돕기 위한 명확한 표지판이나 길 찾기를 돕기 위한 랜드마크 기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⑦ 친숙한 공간 조성하기
  - 치매환자들은 이전의 삶에서 친숙했던 공간과 물건을 더 잘 사용하고 즐길 수 있음
  - 친숙한 건물 디자인, 가구, 재료 및 색상 등을 사용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목적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⑧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기회 제공하기
  - 혼합된 공공공간, 일부의 사교·사적 공간 등 치매환자가 필요에 따라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
- ⑨ 커뮤니티와 연계하기
  - 치매환자들의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친구나 친척, 이웃과의 잦은 교류를 지원할 필요
  - 고립감과 외로움, 지역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⑩ 삶의 방식에 대한 비전에 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 치매환자가 겪을 장애를 최소화하고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주요내용

출처: Alzheimer's Australia WA. (2016). pp.43-45.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혜택

- 치매 어르신의 혜택
  - 치매 어르신에게 익숙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자극과 방향성 제공 등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치매 증상으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를 경감, 이웃과의 교류 강화 기회를 제공함<sup>33)</sup>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의 일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일상적 생활 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sup>34)</sup>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및 치매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강화함<sup>35)</sup>
  -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매 어르신 개인의 욕구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sup>36)</sup>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혜택
  - 치매 어르신과 가족 간의 관계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며, 치매 돌봄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시킴<sup>37)</sup>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재택 돌봄 관계자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어르신 돌봄이 지속될 수 있음<sup>38)</sup>
  - 시설 입소를 통한 돌봄 대비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 어르신 돌봄이 치매 대응에 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sup>39)</sup>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국가는 치매친화 환경조성 지침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지침의 적용과 관리를 담당

---

33) The Department of Seniors and Long-Term Care. (2022). pp.7-9.

34)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2004). pp.4-6.

35)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pp.23-36.

36)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pp.23-36.

37) The Department of Seniors and Long-Term Care. (2022). pp.7-9.;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2004). pp.4-6.

38)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pp.23-36.

39)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pp.23-36.

- 영국(2015), 아일랜드(2015), 캐나다(2020), 호주(2004)는 인간중심 돌봄 모델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을 적용한 치매친화 환경조성 지침을 개발하고 각 지방정부는 이를 적용하여 기존 노인요양시설, 외래시설, 지역사회 환경 등을 개선함<sup>40)</sup>
- 영국의 지자체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함의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sup>41)</sup>

---

40) 이수경·최윤경. (2021). pp.84-85.

41) 보건복지부. (2018). pp.15-20.

## 2) 치매친화 생활단지 조성 사례

### □ 해외의 치매친화 생활단지 조성 사례 검토 개요

-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치매친화 생활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함
  - (네덜란드) Hogeweyk
  - (프랑스) Village Landais Alzheimer
  - (캐나다) The Village Langley
  - (미국) Lantern of Chagrin Valley
  - (호주) Korongee Dementia Village 등
- 해외의 조성 사례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 주요 혜택을 중심으로 검토함
  - (생활환경) 사례들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주요 특징을 검토
  - (주요 혜택) 각 사례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지역사회의 혜택을 검토

[표 3-20] 해외 치매환자를 위한 마을형 주거공간 사례 목록

네덜란드 호그벡(De Hogeweyk)	
개요	- (목적) 치매환자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사는 마을로 주거공간과 함께 편의시설을 함께 갖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함 - (규모) 5000평 규모 부지에 치매환자 총 23가구, 각 6-7명씩 모여 생활 - (접근성) 암스테르담 베스프 마을 북쪽 외곽, 시내에서 자동차로 25분 거리에 위치 - (특징) 마을의 외관을 일반 마을과 동일하게 조성함으로써 요양시설에 갇혀 생활한다는 거부감 최소화
주요내용	- 전통적 요양병원과 전혀 다른 형태로써 일반 가정에 가까운 시설환경을 조성 - 레스토랑, 미용실, 슈퍼마켓 등 일상적 생활환경 구현 - 사회적 관계 강화를 위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시설 개방 - 안전한 환경과 독립적인 행동을 보장하여 시설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 - 각 세대는 독립적인 단위로 운영되며 개인 침실과 개인 물품 소장이 가능함 - 잘 훈련된 자원 봉사자와 편의시설 종사자, 의료인의 모습을 하지 않은 케어인력 상주
이미지	

[그림 3-23] 호그벡 평면도 및 전경

출처: 김소원·김정빈. (2022). p.160.

**호주 코론지 마을(Korongee Dementia Village)**

- (연도) 2020년 조성
  - (규모) 6개의 침실이 있는 12개의 맞춤형 주택이 모인 마을로 120여명의 환자 수용
  - (특징)
    - 2020년 개장한 호주 첫 치매마을
    - 대규모 펀드와 정부 투자 유치 성공으로 태즈메이니아 대학과 전문가들에 의해 치매·노인에 특화된 디자인 제시
    - 태즈메이니아 거리 풍 총 12개의 소규모 주택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 주요내용**
- 주택은 8개의 침실과 욕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방형의 주방과 식당, 거실로 구성
  - 마을 내에는 소규모 광장을 중심으로 주택이 배치되어 있으며 식당, 카페, 잡화점, 미용실, 커뮤니티 센터, 종교를 위한 모임 공간, 강당, 간병인을 위한 숙소, 의료센터, 식료품센터 등 위치
  - 12개의 주택과 4개의 쿨데삭 형태의 도로
  - 2,500 만 달러 프로젝트는 Glenview Community Services, HESTA 및 Social Ventures Australi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
  - 친구와 친척들 자유롭게 방문 가능
  - 캐주얼하게 입은 전문 인력들로 구성
  - 가고 싶은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함
  - 익숙한 가구 배치, 각각의 주택마다 생활방식을 고려한 다른 디자인
  - 정원, 뜰 등 야외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마을 내 소음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그림 3-24] (좌)계획도, (우)주택 및 쿨데삭 형태의 도로  
출처: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0). pp.102-103.

**이미지**



[그림 3-25] (좌)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단서, (우)마을전경  
출처: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0). p.103.

호주 치매친화 마을(New Direction Care)

- 개요
- (연도) 2017년 조성
  - (규모) 7명이 함께하는 주택 17개, 약 120명이 함께 거주
  - (접근성) 경계와 담으로 통제 가능한 출입구, 순환하는 산책로,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물 내외부의 거의 모든 공간에 이동과 접근이 용이
  - (특징)
    - 선호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7인 정도가 그룹을 이루고 함께 거주
    - 소규모광장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배치
    - 주택 외관을 차별화하고 산책로 및 출입구 앞 상징물을 두어 인지성을 높임

- 주요내용
- 소규모 주택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7인 정도 함께 거주,
  - 개인 침실과 욕실, 공용주방, 세탁실, 거실, 앞·뒷마당으로 구성
  - 소규모광장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산책하고 영화관이나 카페, 미용실, 취미실, 웰빙센터, 스파, 치과, 텃밭, 동물농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 가계직원은 환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어 환자들의 알레르기, 취향, 잔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음



[그림 3-26] (좌)평면도, (중)마을전경, (우)주택내부  
출처: 이현정·윤재은. (2022). p.285.

이미지



[그림 3-27] (좌)접근이 용이한 주방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룸, (우)가게 내부  
출처: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2020). p.109.

**프랑스 알츠하이머 마을(Village Landais Alzheimer (Dax-Darrigade))**

- 개요**
- (연도) 2020년 6월 개장
  - (규모) 50,000㎡에 이르는 넓은 대지 위에 조성하여 약 100~149명 수용
  - (접근성) 경계와 담으로 통제 가능한 출입구, 순환하는 산책로,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물
  - (특징)
    - 중세시대 시골풍으로 조성된 마을형 치매·노인 시설
    - 넓은 대지 위에 조성된 공원의 조경을 비롯한 연못, 산책로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생의 기회로 삼고 있음
    - 소주택에는 7~8인이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네 가구가 모여 하나의 지구를 형성

- 주요내용**
- 주택 내부는 내부에는 개인 침실, 욕실을 비롯하여 공용 거실과 식당, 주방, 테라스로 구성
  - 보건소, 스포츠실, 취미실, 강당, 미디어 도서관, 식료품점, 레스토랑, 농장, 미용실, 동물농장, 텃밭, 교육실, 외부인 숙소 등이 있음
  - 마을 내 소음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 환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도록 권장
  - 1인당 연간 2만4000유로
  - 의사, 간호사, 노인요양도우미, 심리학자, 직업치료사, 물리치료사, 활동코디네이터 등에 의해 운영



[그림 3-28] (좌)평면도, (우)마을전경  
출처: (좌)이현정 외. (2022). p.285; (우)[https://blog.naver.com/gnbtour\\_/222207729638](https://blog.naver.com/gnbtour_/222207729638) (검색일: 2022.05.30.)

**이미지**



[그림 3-29] (좌)주택내부, (우)중앙광장  
출처: (좌)이현정 외. (2022). p.285; (우)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2020). p.132.

**덴마크 브라이구짓 치매마을(Bryghuset Svendborg Demensby)**

- 개요**
- (연도) 2016년 12월 조성
  - (규모) 125명의 치매환자 거주
  - (접근성)
    - 수도 코펜하겐에서 2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방문이 용이함
    -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외부인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을 주변에는 울타리 설치하고 출입구를 착지 어렵도록 조성함
  - (특징)
    - 덴마크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치매마을
    - 스벤보르시가 13억 원가량을 들여 예전 양조장 등으로 이용되던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설립

- 주요내용**
- 각 아파트는 방 2개와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으며 한두 명이 거주할 수 있음
  - 식당과 상점, 미용실, 헬스장, 서재 등
  - 텃밭, 닭·토끼 사육장, 목공실, 치유의정원, 캠핑시설
  - 헬스장에서 데이케어센터(노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체육수업 운영
  - 관리동에는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비롯, 직원 125명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시시각각 살핌
  - 거주자는 물론 스벤보르 지역주민도 참가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운영.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되며 정원 꾸미기, 카드놀이, 댄스교실,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
  - 일반 아파트처럼 각자 거주하는 세대 외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룹홈이나 단기보호시설 개념의 세대도 있음
  - 8인실의 단기보호시설은 보호자가 급한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 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치매 어르신을 최장 3주간 맡아주는 용도로 이용됨
  - 개인 공간에서도 긴급경보시스템으로 24시간 보호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음. 가족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음
  - 입주지만 생활하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인근 치매환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외부 지역민에 치매 관련 교육 실시
  - 운영비는 별도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모두 충당

**이미지**



**[그림 3-30] 마을전경**

출처: 이선정. (2019). GO! 치매 보듬는 사회 <6> 덴마크 스벤보르시 치매마을. 국제신문. 4월 17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18.22006006739> (검색일: 2022.05.26.)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특성

- 거주 치매 어르신의 기존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
  - 네덜란드, 호주의 사례는 치매 어르신의 일상적 주거환경과 생활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구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분위기의 주택형태와 평면유형을 제공하여 친숙하고 가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
-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영위
  - 모든 사례에서 치매친화 생활환경 또는 생활단지 는 치매 어르신이 해당 공간과 지역 내에 간혀서 생활하는 방식이 아닌 생활환경 또는 생활단지 내 치매 어르신이 제약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함
  - 네덜란드, 캐나다 사례는 치매 어르신이 제약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점, 문화센터, 극장, 미술실 등을 마련하여 일상적 외부활동 수행을 지원함
  - 네덜란드, 캐나다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이 가능한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단지의 종사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은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되 유사시에만 치매 어르신의 일상에 개입하고 있음

##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혜택

- 치매 어르신의 혜택
  - 치매 어르신의 자유로운 활동과 일상성이 보장되고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며, 치매친화 생활환경 속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마을의 울타리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함<sup>42)</sup>
  - 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시설 입소를 지연함<sup>43)</sup>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혜택
  - 시설 입소를 통한 치매 어르신 돌봄의 경우와 비교하여 치매친화 생활단지 등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치매 어르신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음
- 사회사회의 혜택
  - 치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치매 어르신에 친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치매 어르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함<sup>44)</sup>

---

42) 박훈·김정현. (2019). p.243.

43) Buckner, S. et al. (2018). pp.48-58.

### 3. 시사점

- 국내의 경우,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이 있으나 대부분 치매 인식 개선, 의료·보건 서비스 등으로 한정
  - “치매환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지향하는 치매안심마을의 주요 사업들은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에 치중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 조성은 이러한 서비스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임
    - 「치매국가책임제」에 기반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건축도시차원에서 물리적인 형태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부족한 실정
    -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치매진단서비스, 예방 캠페인, 가족모임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 주야간 보호 등을 제공하는 수준임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 가족과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는 정도에 그치며 마을(공간) 단위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 아닌 시설물 설치·개선에 머물러있다는 한계를 지님
    - 따라서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교육 중심의 사업을 벗어나 구체적인 건축도시 환경 조성과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수단이 필요
- 해외의 경우,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단지형태의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진행 중임
  - 주택, 외부 생활환경 등을 구분하여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치매 어르신인 시설 입소를 지양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조성은 치매 어르신 당사자와 돌봄 가족, 돌봄 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함
    - 치매 어르신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시설 입소를 지향하는 정책 대비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해외는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주택의 위치, 주택 내부 및 외부, 지역 내 일상생활 편의시설, 지역 내 이동공간 등에 대한 자세한 치매친화적 설계지침을 마련함

44) ibid., pp.48-58.

- 해외의 지자체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을 적용하여 치매 어르신의 일상성, 개별성을 고려하는 생활단지 등을 조성함

□ 우리나라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의 구체적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추진을 검토할 필요

- 치매 어르신, 가족 및 돌봄 관계자 모두의 삶의 질 제고 혜택이 주어지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및 외부 생활환경의 개선이 추진될 필요
  - 기존 지역의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담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은 치매진단, 가족모임, 주야간 보호 제공의 치매친화적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에 주력함
  - 해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친화적 서비스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치매친화적 주택, 외부 생활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함
  - 치매 어르신, 가족,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치매친화적 사회·서비스 환경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택과 마을·동네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과 개선이 보다 적극적인 시설 입소의 지양과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향이 가능한 생활로 경험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사례조사 결과,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보건 영역 실무자 중심의 치매친화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매안심센터 자체적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 지자체의 건축도시 및 노인복지 담당부서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연계를 통한 물리·사회·서비스 환경의 종합적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으로 개선될 필요가 높음

□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의 시설 입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구체적 욕구 검토와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

- 인간중심 돌봄 모델과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기반의 한국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성을 도출하고, <sup>(가칭)</sup>치매안심 생활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주택, 동네·마을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욕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 필요
  - 일반 지역 주민의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 특성을 검토하고 지역의 일상 생활공간이 치매친화적으로 조성·개선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 검토 필요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한 한국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경 조성의 방향과 주요 개선필요 건축도시공간 요소를 도출할 필요

- 지자체와 지역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한 (가칭)치매안심 생활마을 조성 시범 사업의 지자체 공모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치매안심마을의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 노력과 종합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제4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자 FGI
3. 소결

연구의 4장에서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를 수행하였다. 가장 먼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인을 위해 일반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인 인식조사 수행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치매환자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를 수행하여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안점을 도출하였다.



# 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 1) 일반시민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치매 어르신 돌봄 환경 및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일반인 인식을 살펴보고 치매친화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함

###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29일 ~ 9월 2일 (약 5일간)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리서치 전문기관 위탁)

### □ 조사 내용

- 치매 어르신 돌봄 인식,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표 4-1] 설문조사 항목 구성

구분	주요 내용	문항 수
치매 어르신 돌봄 인식	- 치매 증상 정도에 따른 생활환경(자택·요양시설·요양병원) 인식 - 치매 발병에 따른 희망 생활환경 - 치매 어르신 돌봄을 위한 희망 생활환경 - 생활환경 내 치매어르신 생활에 대한 인식과 이유	4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방향성 - 치매친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 치매 어르신 주택 개조에 대한 인식 - 치매친화 마을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 건축·도시 영역별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구성 요소 - 치매친화 생활환경 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도움 여부	10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인지 여부	2
응답자 일반사항	- 거주지역, 성별, 연령, 치매 어르신 접촉 여부, 건강상태 등	11

출처: 연구진 작성

□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특성

-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2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82%p

[표 4-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1200)	100.0	전체	(1200)	100.0			
성별	남성	(606)	50.5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	(137)	11.4	
	여성	(594)	49.5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209)	17.4	
연령	20대	(212)	17.7	아파트	(818)	68.2		
	30대	(215)	17.9	오피스텔	(23)	1.9		
	40대	(260)	21.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9)	0.8		
	50대	(279)	23.3	기타	(4)	0.3		
	60대	(206)	17.2	자영업	(94)	7.8		
	70대 이상	(28)	2.3	판매/영업 서비스직	(88)	7.3		
	권역	서울	(214)	18.5	직업	기능/작업직	(82)	6.8
인천/경기		(365)	31.5	사무/기술직		(417)	34.8	
부산/울산/경남		(186)	16.1	경영/관리직		(61)	5.1	
대구/경북		(113)	9.8	프리랜서/전문직		(117)	9.8	
대전/세종/충청		(141)	12.2	농/임/어/축산업		(8)	0.7	
광주/전라		(77)	6.6	전업주부		(152)	12.7	
강원/제주		(62)	5.4	대학(원) 생		(71)	5.9	
지역 규모		동 지역	(1063)	88.6		은퇴/무직	(105)	8.8
		읍면 지역	(137)	11.4		기타	(5)	0.4
		혼인 상태	미혼	(389)		32.4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기혼(배우자 있음)	(739)		61.6	200~400만원 미만	(346)	28.8		
기혼(배우자 없음)	(72)		6.0	400~600만원 미만	(375)	31.3		
				600~800만원 미만	(155)	12.9		
			800만원 이상	(173)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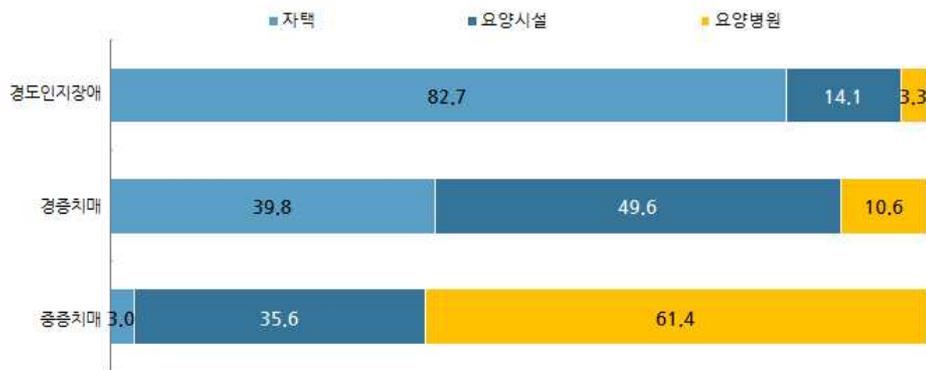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2) 조사 결과

### ① 치매 어르신 돌봄 인식

#### □ 치매 증상 정도에 따른 적정 생활공간

- 치매 증상이 경미할수록 자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높음
  -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는 자택(82.7%)에서, '경증치매'는 요양시설(49.6%), '중증치매'는 요양병원(61.4%)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경도인지장애와 중증치매는 각각 자택과 요양병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반면, 경증치매는 자택(39.8%)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 가족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
  - 경도인지장애와 중증치매는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각각 자택과 요양병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증치매인 경우는 40대 이하의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 이상부터는 자택 선호 비중이 높고, 50대는 비슷하게 나타남. 한편, 가족/친지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택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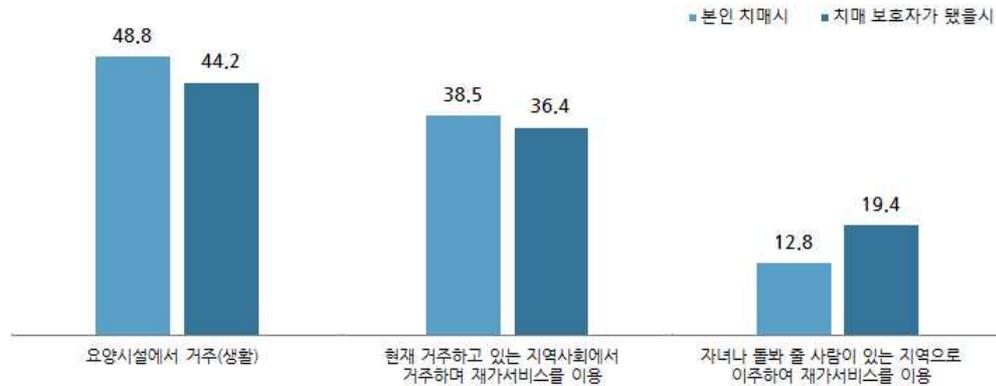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 치매 증상 정도에 따른 적정 생활공간

출처: 연구진 작성

□ 치매 발병에 따른 거주 희망 공간

- 노년기 본인에게 치매가 발병한다면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48.8%) 수준
- '현 지역사회에서 거주, 재가서비스 이용'은 38.5%,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 재가서비스 이용'은 12.8%로 그 뒤를 이음
  - 전반적으로 '요양시설' 거주 희망자가 많은 가운데, 60대 이상과 치매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는 '현 지역사회에서 거주, 재가서비스 이용' 희망이 요양시설 거주 희망보다 많아, 고령이거나 치매환자 돌봄 가족은 재가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된다면 '요양시설'에 위탁하겠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음
- 그 뒤를 이어 '현 지역사회에서 거주, 재가서비스 이용'(36.4%),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 재가서비스 이용'(1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요양시설 위탁' 의향이 많은 가운데, 60대 이상 응답자는 '현 지역사회에서 거주, 재가서비스 이용' 희망이 요양시설 위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2] 본인 노년기 치매 발생 시 거주 희망 공간 및 치매 환자 돌봄 시 돌봄 희망 공간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은 치매환자 가족이 있는 경우 공감대가 높음
  - 노년기 본인 치매 발병시와 치매 환자 돌봄시 모두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과 '현 지역사회에서의 재가서비스 이용',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이용' 순으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냄
  -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45.5%) 치매환자가 없는 경우(37.1%)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를 원하는 응답자가 많음

#### □ 지역사회 내 치매 어르신 거주에 대한 인식

- 치매 어르신이 같은 마을에 사는 것에 대해 대부분(79.3%)의 응답자는 크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치매 어르신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집단은 남성(23.9%), 50-60대 연령층, 현재 치매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31.9%)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3] 같은 마을 내 치매 어르신 거주에 대한 인식

출처: 연구진 작성

- 치매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경우 시설 입주보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또는 돌봄 가족의 거주 지역으로 이주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응답자가 치매 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29.0%) 보다 거부감이 없는 경우(41.0%) 더 높게 나타남

- 치매 어르신과 같은 마을에서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 치매 어르신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불편함, 동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 등도 주요 이유로 제시함

[표 4-3] 치매 어르신과 같은 마을 거주가 부담스러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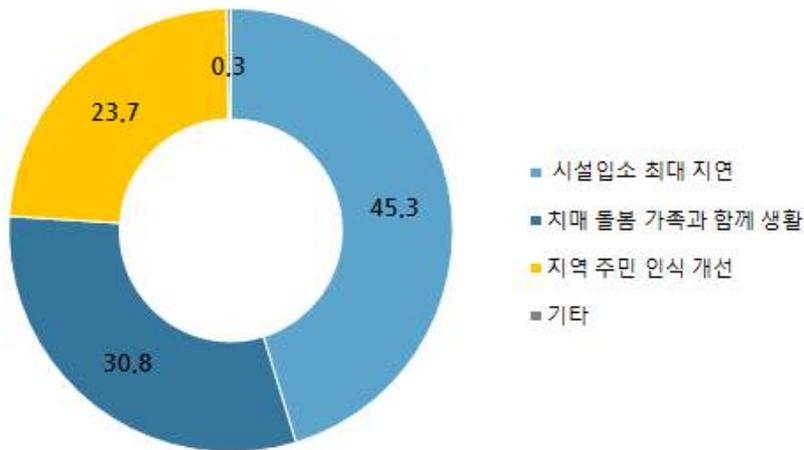
내 용	응답자 수	내 용	응답자 수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60	안타깝다	3
돌발행동을 한다	49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2
주변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된다	30	보호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불편하다	11	집값이 떨어진다	2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10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소음이 발생된다	9	거부감이 든다	2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8	요양시설을 고려해야한다	2
위험하다	8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한다	1
불안하다	7	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	1
인지장애로 인해 불편하다	6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1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6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1
정서적으로 힘들다	6	외부활동이 부담스럽다	1
집을 잘 못 찾는다	5	가족 및 주변사람들이 힘들어진다	1
이웃간 다툼이 우려된다	5	사람들과의 만남이 꺼려진다	1
대화하기 불편하다	5	전문적인 의학 정보가 부족하다	1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가 미흡하다	5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1
관리가 힘들다	5	동네 이미지가 하락한다	1
욕설을 한다	4	실버타운이 주거지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가 된다	1
가족 및 본인의 삶이 고달프다	4	부모님처럼 느껴진다	1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같은 입장으로 생각된다	1
부담스럽다	4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이 생긴다	1
실수를 한다	3	어르신들 생활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이 생긴다	1
고성을 지른다	3	자주 못 찾아 볼 경우 마음에 무거워진다	1
보살핌이 필요하다	3	당황스럽다	1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3	낯설다	1
무섭다	3	혼란스럽다	1
마음이 아프다	3	경험 등으로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1
힘들다	3	요즘은 이웃 간의 왕래가 잦지 않다	1

출처 : 연구진 작성

#### ④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지향점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설입소 최대 지연
  - 치매친화 생활환경이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치매 어르신의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하고, 익숙한 자택과 지역에서 가능한 오래 지낼 수 있는 점'(45.3%)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시됨
  - 그 다음으로 '치매 돌봄 가족이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며 가능한 오래 함께 지낼 수 있는 점'(30.8%),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점'(23.7%)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치매친화 생활환경이 돌봄 가족과 지역 공동체보다는 치매 환자 본인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치매 어르신의 시설입소 지연,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가치'는 여성(51.0%), 50대 이상의 연령층, 치매환자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50.2%), 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가 있는 응답자(49.6%)에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까지 고려하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가치'는 '남성'(34.2%)과 20대(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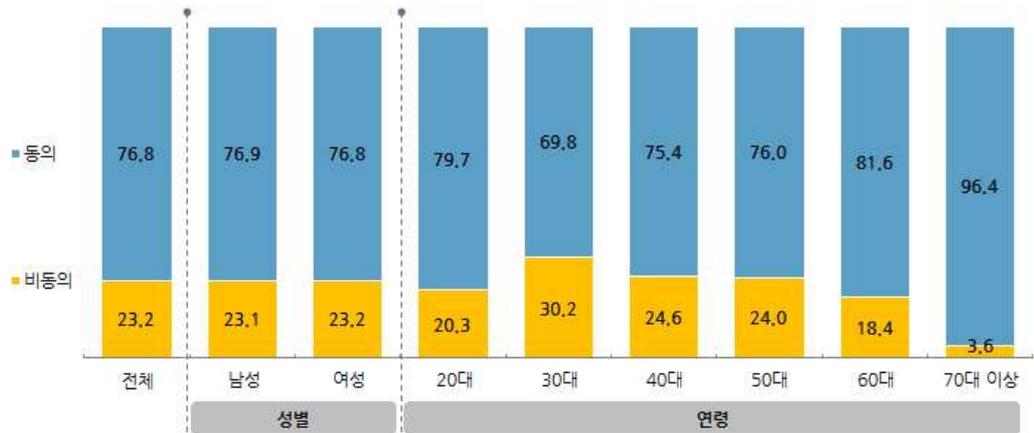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4]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지향점

출처: 연구진 작성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23.2%는 부정적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은 60대 이상, 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80.9%)가 있거나, 치매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91.5%), 단독주택 거주자(8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5] 본인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 본인 주택을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중 56.8%(전체 13.2%)는 여전히 (조)부모님 주택을 조성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의 43.2%가 (조)부모님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조)부모님 주택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응답자는 여성(50.0%)과 50대(55.2%)에서 높게 나타나, 해당 세대가 (조)부모님 치매를 당면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80.3%)이 긍정적으로 반응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동네를 조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환자를 자주 접할수록, 치매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가 호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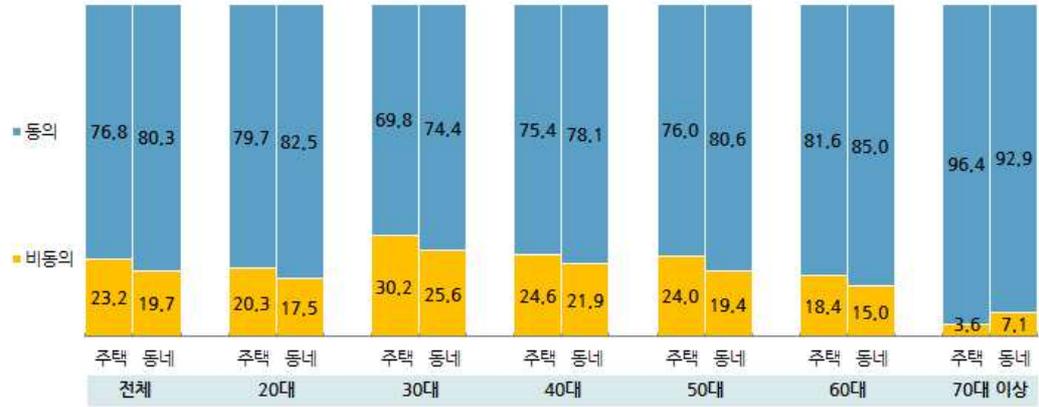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6] 본인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조)부모님 주택을 조성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던 응답자의 36.4%가 (조)부모님이 살고 있는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본인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중 63.6%(전체 12.5%)는 여전히 어느 동네든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바꾸는 것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조)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응답자는 여성(41.9%), 50대(48.1%), 치매환자를 자주 접촉하는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본인의 주택을 조성하는 것보다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더 긍정적임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7] 본인 주택과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연령별 의견 비교

출처: 연구진 작성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세금 투입에 대한 인식

- 치매 어르신의 주택을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하는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6.5%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우호적임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8] 치매친화 주택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7.8%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우호적임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9] 치매친화 마을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출처: 연구진 작성

-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치매 어르신의 주택과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데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고, 주택 또는 동네,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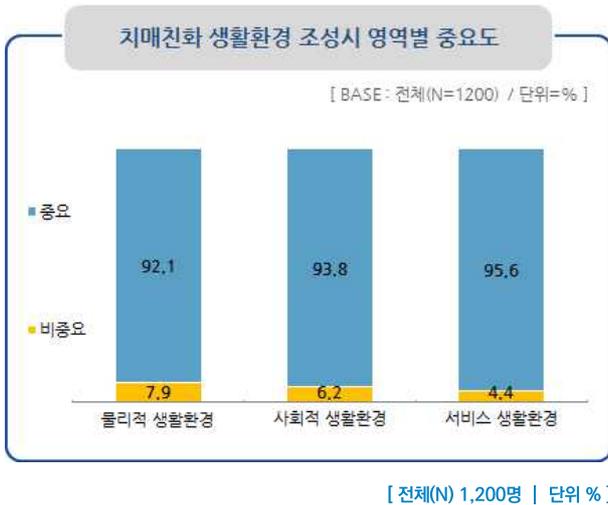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0] 치매친화 주택 및 마을 조성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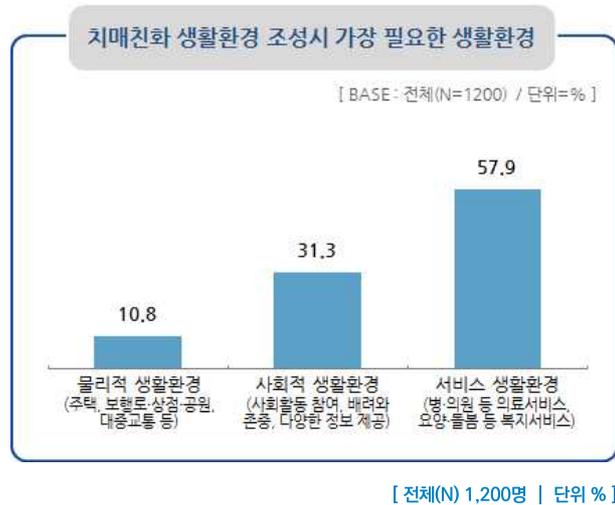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영역별 중요도

-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응답자 대부분이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영역 모두를 소홀히 할 수 없이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치매라는 질병에 대응함에 있어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환경을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요소로 이해함
  - 서비스 생활환경(57.9%), 사회적 생활환경(31.3%), 물리적 생활환경(10.8%)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함



[그림 4-11]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영역별 중요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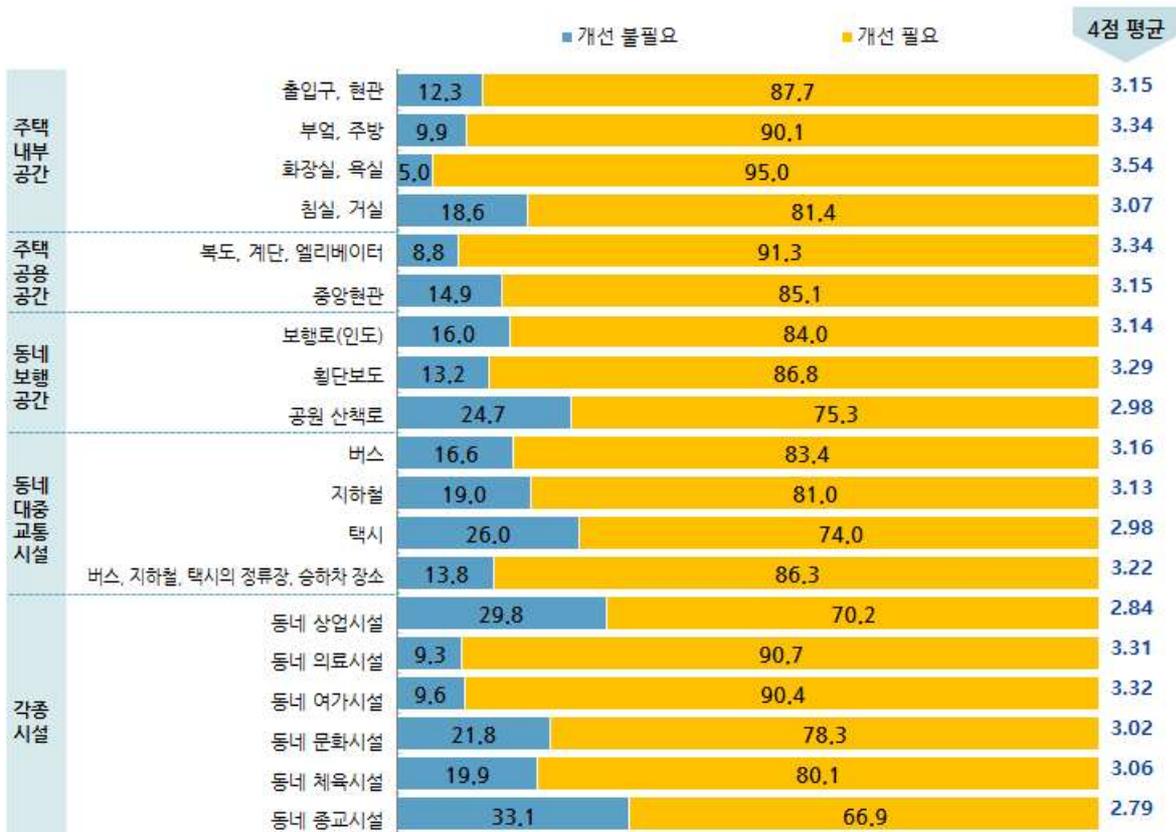


[그림 4-1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가장 필요한 생활환경  
출처: 연구진 작성

- 그 외 사회적 생활환경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환경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은 치매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시 장기적으로 관심과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환경으로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서비스 생활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40대 이하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50대 이상은 서비스 생활환경과 물리적 생활환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물리적 생활환경의 중요성은 40대 이상부터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다른 영역 대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음

## □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요소별 개선 방향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의 물리적 요소 대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 특히 '화장실, 욕실'(95.0%),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91.3%), '동네 의료시설'(90.7%), '동네 여가시설'(90.4%), '부엌, 주방'(90.1%) 순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동네 종교시설'(66.9%), '동네 상업시설'(70.2%)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함



※ 4점 평균값이 높을수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3] 치매 어르신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요소별 개선 필요성

출처: 연구진 작성

- 물리적 환경 요소별로 지향점으로 주택 내부 공간과 공용 공간, 동네 보행 공간, 동네 대중교통시설은 해당 공간·시설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한편, '각종 시설'도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가운데, 편의성과 접근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타남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4] 물리적 환경 요소별 지향 가치

출처: 연구진 작성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 희망 수혜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된다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치매 어르신 본인'(95.0%)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치매 어르신의 가족'(94.2%), '지역 주민'(66.1%) 순으로 나타나,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넓게는 지역 공동체에도 유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읍면지역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59.0%)은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 10명 중 6명(58.1%) 가까이는 ‘치매안심센터’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41.9%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친지 중에 치매환자가 있거나 치매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 50대와 70대 이상은 잘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는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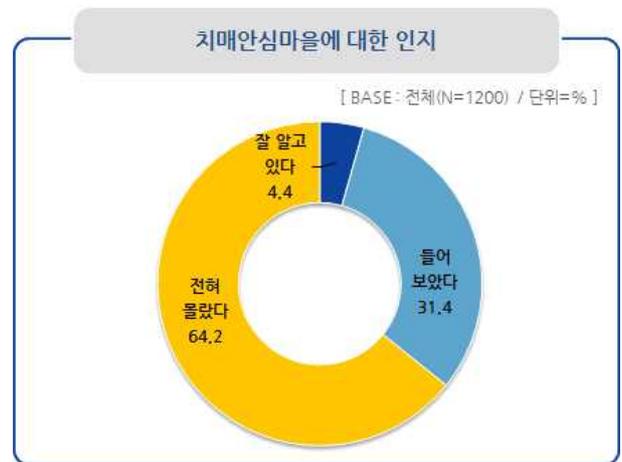
□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인지도

- 한편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들어본 비율도 31.4%로 치매안심센터(48.7%) 보다 낮게 나타남
  - 치매안심마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동지역 거주자(64.5%), 가족/친지 중 치매환자가 없는 응답자, 서울(69.6%), 인천/경기(67.9%) 등 수도권 거주자와 대전/세종/충청(66.7%)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5]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지도  
출처: 연구진 작성



[ 전체(N) 1,200명 | 단위 % ]

[그림 4-16]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인지도  
출처: 연구진 작성

## 2.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관계자 FGI

### 1)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개요

####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집과 동네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 □ 조사 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 20일(목), 21일(금) 총 3일간 진행함

####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실무자 및 돌봄가족 3개 그룹, 그룹별 4~5인<sup>1)</sup>
- 조사 방법: 표적집단면접 (※리서치 전문기관 위탁)

[표 4-4] 설문조사 항목 구성

구분	그룹 특성	표적집단면접 수행 일시	성명	성별
1그룹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2022.10.13. 16:00	김*미	여
			조*선	여
			고*천	여
			강*희	여
2그룹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영동)	2022.10.20. 09:00	서*득	남
			이*구	남
			임*식	남
			정*선	여
			박*용	남
3그룹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아산)	2022.10.21. 14:00	채*자	여
			이*희	여
			윤*희	여
			정*희	여
			최*희	여

출처: 연구진 작성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중앙치매센터의 협조를 받아 조사 대상을 구성함

## 2) 조사 결과

### ①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 □ 치매 어르신 관련 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업무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 병원 치료 및 치매 약재 투약, 절차에 대한 안내, 주기적인 전화 및 방문, 요양서비스 안내 등의 돌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 센터별 주요 돌봄 지원 업무에 대한 실무자 의견

- 치매안심센터는 지침에 의한 업무 진행(거의 모든 센터가 대동소이, 유사한 업무를 지원)
  - ① 검진 독려(시골 지역(함평)은 검진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② 병원 치료 및 치매 약재 투약, 절차에 대한 안내
  - ③ 주기적 전화 및 방문, 요양서비스 안내 제공 단계까지 최선을 다함
- 조호 물품 제공,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 등 지침이 정한 바대로 업무 추진
- 의성군 센터의 경우 ① 치매 환자 쉼터 교실(치매 어르신 대상), ② 인지 강화 교실(경도 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 어르신 대상으로 단기 쉼터 운영), ③ 2개 분소에서 쉼터 운영(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을 위한 2개 분소 설치) 등 지침 외 업무도 진행
- 함평군 센터는 지침 외, '치매 환자 발견'에 최대한 집중하여 업무 추진 중
- 의성군 센터는 인지 건강 개선, 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청주시 상당구 센터는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기업 지킴이'라는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인 활동가가 방문하여 '교구를 활용한 치매 예방 교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또한 센터의 여건에 따라 쉼터 운영, 인지 강화 교실, 예방 교육 서비스 등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돌봄 지원 업무 시 어려운 점
  -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침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센터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례관리에 집중해야 하지만 조호, 치매 치료비 지급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문제로 인식함

#### ※ 업무 시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자 응답

- 지침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히 버거운 실정 토로
-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크나, 현실적으로는 지침에만 국한된 업무 추진에 아쉬움을 나타냄
- 최근 강조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는 인력의 한계로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 입장
- 개인적으로는 '치매 어르신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나, 실제적으로는 '조호', '치매 치료비' 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편(조금이라도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지체되면 바로 문제 제기)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자택 요양 관련 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 치매 어르신에게는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과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는 배회나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센서등과 문종,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가스차단기, 치매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바, 미끄럼 방지 스티커와 매트 등이며, 자활을 위해서는 주택 내 천장 도르래와 구조물 설치를 통해 환자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기저귀와 조호 물품 등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필요한 지원보다는 치매 초기 자활과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 자택 요양 관련 주요 지원 업무**

- 기저귀, 조호 물품 제공
  - 안전바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발매트 제공에 그쳐 아쉬움
- 사례관리 사업
-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진행
  - 어르신 배회와 낙상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센서등, 문종(도어벨), 가스차단기, 안전바, 미끄럼 방지 스티커,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

**※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재 추진사항**

- 치매 보듬 센터 운영을 통해 마을 내 칩거 중인 치매 어르신 대상 주1회 인지 재활 프로그램 지원
- 치매 환자 집 꾸미기
  - 배회 어르신 위한 '문패' 달아드리기, 집안 물건 보건 위한 '안심 수납함' 제공
- 온기 나눔 한 끼 밀키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자원(경찰서, 소방서)과 연계한 돌봄 사업
  - 경찰서 연계: 유모차 및 전동차에 반사 스티커 제공, 야간봉 지원을 통한 야간 보행 안전 환경 조성
  - 소방서 연계: 가정용 소화기 지급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환경 조성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외부 활동 관련 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 센터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외부활동을 위해 차량 이동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을 위해 원예 치료, 화단 조성 사업, 폐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러한 외부활동 지원 사업 추진 시, 센터 직원의 열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센터 여건에 따라 지침에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센터가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게 외부활동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탄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 외부 활동(외출) 지원 주요 지원 업무**

- 치매 예방(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예 치료 지원
- 확산 공모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화단 경관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마을 화단 정비 및 조성하도록 지원
- 차량 이동 서비스 지원
- 이동 외에도 치매 예방 및 치매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의 외부활동 중 특화 사업으로 '페시컬, 페 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
  - 폐창고를 활용한 '자두꽃길 기억이음 미술관',
  - 폐교 운동장 활용한 걷기 공간 조성
- 경증 치매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 있어, 기존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과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외부활동 지원의 한계
  - 지침에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추가로 소요되는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큼
  -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매뉴얼을 보다 탄력적으로 정비할 시기가 되었다고 봄
- 품목 지원을 위한 센터의 노력
  - 예산 부족으로 치매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바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다 많은 수의 안전바를 제공하기 위해 타 기관에 협조를 얻어 지원함
  - 안전바 설치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부착 위치와 규격화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인식함
  - 특정 센터의 경우, 주택 내 안전과 밀접한 안전바와 가스차단기는 판매 및 설치 업체와 연계하여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센터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안전바 제공 및 조호 물품 확대에 대한 실무자 의견**

- 안전바 제공 방법 : 센터의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복지 관련 부서에 의뢰하거나 읍·면 단위 사회공헌 활동 시 대상자로 명단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
-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 만큼 안전바 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착 위치와 기본 규격 등을 지침으로 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시점이 되었다고 봄
- 조호 물품 품목 및 대상자 확대 필요: 어르신에 도움이 될만한 조호 물품 구성품 추가, 차상위나 저소득층 제외 대상자는 1년간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 외에도 어르신을 위한 자택 내 '놀이 콘텐츠'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치매 어르신 및 돌봄가족의 주요 지원요청 사항

### •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의 지원요청 관련

- 치매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호 물품과 돌봄 시간 및 돌봄 횟수 확대, 차량 서비스를 요청. 치매 돌봄 가족은 치매 증상 및 행동에 대한 케어 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전반적으로 치매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센터에 대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기대와 실제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는 현실적인 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센터 역할을 바르게 인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치매 어르신 가구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대신 셔틀 차량을 통한 치매 어르신 집체로 돌봄과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
- 더불어 보호자에게는 치매 어르신이 생활공간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 개선 요인을 제안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주요 지원요청 사항

- 조호 물품 제공 요청
- 치매 어르신의 돌봄 시간 및 횟수 증대 요청(현재 주3회, 2시간 치매 환자 실터 운영)
-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화장실 포함한 실내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패드, 이름표 부착 등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실내 거주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부분)
- **차량 서비스 지원요청(병원 방문, 장보기, 기타 외부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
- 가정 내 무료함에 대한 호소
- 코로나 이후 치매 증상 호소의 건에 대한 대응
- 치매 증상 및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케어 및 대처 요령 지원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치매어르신 및 돌봄가족의 외출 시 지원요청 사항

- 치매 어르신이 외부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배회 치매 어르신 발생 시 경찰서 실종 신고 보다 더 빠르게 정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 치매 어르신의 외부 활동을 위한 실무자의 정책 제언

- 배회 치매 어르신 발생 시, 마을 주민 대상 알림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치매 어르신의 경우, 현재의 경찰서 제공 실종신고보다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정보 공유가 실종자 발견에 시간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 이동 차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가 의견
  - 치매는 장애로 들어가지 않아서 장애인 콜택시나 시각장애인 협회 운영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이므로, 치매 환자 및 돌봄 가족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 필요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매 환자나 그 가족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치매 어르신 및 가족 외출 시, 센터에 이동 지원요청이 가장 많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 자체적으로 군청과 협력하여 택시를 지원, 센터 내에서는 운전직 직원을 두어 차량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이 외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함

※ 치매 어르신 이동 관련 실무자 인터뷰 내용 요약

- 사회자 : 지금까지는 센터 내에서 그리고 자택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나 돌봄 가족이랑 같이 집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는 거 관련 되어서 여쭙볼게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집 밖에서의 외부 활동 관련 되어서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고 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선 :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내용이 이동 지원 요청이 많아요. 하다 못해 병원 갈 때만이라도 그런데 저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침에 그런 내용 없거든요. 지침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못 따라가요, 저희가. 그런데 지침이 없는 내용까지 요청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실제로 현재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와상이 되면 택시를 못 타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많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시각장애인 협회나 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 치매는 장애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거든요. 가격 현실화해서, 공짜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인프라만 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강○희 : 저희 의성군 치매안심 센터에서는 군하고 연계해서 행복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또 치매안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운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요청하시면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구에 대한 실무자 의견
  - 각 가정을 방문해보면, 집안 환경이나 공간 활용과 관련된 여건 개선이 절박한 실정
  -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반면,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그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아쉬움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도록 직원 대상 별도의 교육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필요 사항

- 재가생활(AIP) 지원 관련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사항
  - 치매 어르신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센터 자체 또는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언급함
  - 전반적으로 재가생활(AIP) 지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정보는 존재하지만 이를

취득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사회 전반적으로 재가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장애 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산업적 토대 또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함

※ 치매 어르신 자택지원 관련 실무자 인터뷰 내용 요약

- 사회자 : 두 번째 섹션은 저희가 자택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돌봄 지원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커싱이 물리적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택에 계신 분들이 요양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지원 요청 사항,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못 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조○선 :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여러 개인데 대충 묶어서 사실 주로 요청하는 거는 지금 기저귀나 조호 물품 패드나 이런 물품 확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주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에그걸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저귀 늘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 인지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 낸 거 혹시 보셨나요?
- 사회자 : 네.
- 조○선 : 저도 치매안심마을에서 집 내외의 개선이 과제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 환자 내지는 고령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인지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에 있는데 문고리라든지 커튼 시계 달력 이런 거를 저는 패키지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 사회자 : 물품 관련 되어서?
- 조○선 : 네.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공짜로 줄 필요 없어요.
- 사회자 :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 조○선 : 네. 그런데 이런 가이드북도 서울 인지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도 이게 비매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서울시에서 개발하면서, 사실은 비매품으로 만들어도 패키지로 만들거나 또는 시공업체 이런 업체를 좀 장려해서 사실 문고리 우리가 사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밖에 배회를 막기 위한 커튼이라든지 전자시계, 날씨가 잘 보이는 달력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전문적인 업체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 사회자 : 좋네요.
- 조○선 : 한 가지만 그리고 저희가 요양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 내지는 기저귀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하체 힘이 부족하니까 사실 내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하체 힘이 부족하니까 내지는 약이 있기가 힘드니까 기저귀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침대 생활을 한다는 가정 하에 도르레를 집 천장에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우리가 허리에 묶고 화장실까지 연결이 되면 어르신이 스스로 기저귀를 쓰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묶어서 풀었다가 다시 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주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저귀, 사실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이 인간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 기저귀를 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저귀를 줄 게 아니라 일정 비용을 받고 어르신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사회 전체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지역사회 지속거주(AIC) 지원을 위한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사항
  -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을 위해 1차적으로는 배회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치매 어르신 실종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착물과 어르신을 위한 방향 표지판 설치를 제안함
  - 장기적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공감대 형성, 물리적 생활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
  - 외부활동을 높이고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시설물과 건축에서의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 노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오래전 지어진 노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 내부 환경 개선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함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실무자 의견

- 치매친화 생활환경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 전반적으로 치매친화 생활환경 부족이 서비스 지원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이유는 아니라는 인식이 많음
  - 그것보다 치매를 맞닥뜨리게 될 경우,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이를 빨리 인정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서비스를 제때 충분히 받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함
  - 이후 서비스 제공 과정과 관련해서는 인지 저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함

##### ※ 치매친화 생활환경 필요에 대한 실무자 의견

- 환경적 요인보다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인 해결 과제임
  - 치매에 대한 가족들의 편견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 많음
- 인지 저하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필요
  - 교재를 통한 자원봉사자와 1:1 프로그램 진행으로 만족도가 높음
  - 지속적으로 지원될 경우,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1회만 제공되어 아쉬움
  - ① 최소 주3회,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현재 주1회, 1~3개월만 제공)
  - ② 인지 저하 어르신 대상 교육 전문 업체나 학원 육성(유료 가능)
- 안전바와 가스차단기 사업 진행 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하는 가능하나 해체가 어려워 제한이 따름(시설물 해체까지 고려한 서비스 지원 필요)
- 치매친화 생활환경(집 외부환경)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입장
  - 치매안심센터 인력과 예산만 있으면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친화 생활환경과 치매안심서비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 치매친화 생활환경과 치매안심서비스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영역을 부서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치매안심센터는 사례 관리팀을 통해 주로 치매 어르신의 심리나 신체적 환경 위주로 살피고 있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문팀 활동이 필요함
  - 따라서 이들 두 영역이 함께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적 환경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 영역을 확인, 제공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추가적으로 치매안심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까지 포함한 치매 예산을 편성하고,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확대하여 치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과 어르신들이 센터의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과 치매안심서비스의 시너지 관련 실무자 의견

- 위기 대응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서 및 기관 간 협업 활성화
  - 현실적으로 복지 업무 내에서도 연계되지 않은 영역 많음
- 치매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의 생활환경을 파악한 맞춤형 생활 환경 제공 및 지원'이 중요
  -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자원(경찰서, 소방서, 각 지역 면단위 보건복지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환경 '방문 서비스 팀' 필요
  - 현재 '사례 관리팀'이 있으나 주로 '어르신들의 심리나 신체적 환경 위주'로 살피기 때문에 '생활환경' 측면의 방문팀 활동이 요구됨
- 환경 개선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산 편성' 추가 확보(물품 구입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시설 개선을 포함한 환경 조성 예산 편성 부재 상황)
- 치매안심마을 지정 확대
  - 치매안심마을만 많이 지정되어도 '인지 장애자 및 치매 어르신들의 부담 경감, 센터 접근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입장
- 경로당 환경이 개선되어 치매안심마을(치매안심반)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 치매 환자와 일반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진행 통해 치매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사례를 경험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친화 생활환경과 치매안심서비스 연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과 센터의 치매안심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부터 장기 요양 등급 절차 간소화와 연계 강화, 장기 요양 등급별로 대어되는 품목에 치매 어르신 생활공간에 설치가 되어야 할 품목 지원, 전문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확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가적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②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그룹 인터뷰 주요 내용

### □ 치매 어르신의 거주환경 내부 활동 관련

- 치매 어르신이 집 안에서 어려워하는 행동과 활동
  - 치매 어르신이 집 안에서 어렵거나 힘들어 하는 행동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 원하는 공간을 잘 찾지 못하는 일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과정이 넘어짐,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지 능력 감퇴로 인한 가스 안전 사고를 가장 위협하게 인식
  - 집안 내 사고는 공간 간 동선이 길고 문턱이 높은 재래식 가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 구조 개선도 아파트에 비해 쉽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잠재적으로 도사리고 있음
  - 치매 어르신이 앉았다 일어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바와 천장 도르래, 공간에 대한 표식, 적절한 조도의 센서등, 가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콧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 집 안 활동의 어려움 관련 영등군 돌봄가족 인터뷰 내용 요약

- 사회자 :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이 다 단독주택이세요?
- 응답자3 : 단독이에요.
- 사회자 : 마당이 조금 있는 단독주택이신 거죠?
- 응답자3 : 네.
- 사회자 : 그러면 집안에서 거동이 조금 힘들어지시잖아요 환자 분들이. 어떤 행동들이 가장 어려우세요 집안에서 밖에 말고?
- 응답자1 : 저는 식구가 돌아간지 한 달 되었지만 그 전에도 신경 많이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 지 지금은 나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싫어가지고 일어나면 뭐 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처음에는 식구 요양원을 보내가지고 집에서 가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집에서는 된장 끓여도 내가 끓여서 먹고 처음에는 제가 조금 했는데 1년 전부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아침은 우유 하나 먹고 점심 저녁 밥 조금 먹고 그랬는데 우유 먹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 사회자 : 환자 본인이 하실 때 힘들어 했던 활동들은 없으세요?
- 응답자1 : 간혹 가다가 이것도 나이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뭐 하다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또 말하자면 반찬 만들다가 어지러우면 가만 있다가.  
(중략)
- 사회자 : 치매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 하셨는지 화장실 가는 거 혹은?
- 응답자 2 : 나는 허리 수술을 두 번 해 가지고 힘들어요.
- 사회자 : 돌봄 하시는 거 자체가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 응답자 2 :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 힘들어요.
- 사회자 : 그때는 아버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고 같이 일어나서 가져야 되는 건가요?
- 응답자 2 : 혼자.

- 응답자1 : 집에 와서 가스불이.
- 응답자 5: 가스불 깜빡하고.
- 응답자3 : 그 문제는 내가 집사람이 갑상선을 7년간 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신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비 이런 거 태우는 거는 부지기수이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한 번은 하여간 그 위에 서랍장이라고 그게 탈 뻔 했어요. 아주 냄비가 빨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쫓아가서 끄고.
- 사회자: 제일 무서운 게 화재에 대한 위험?
- 응답자3 :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가스 차단기를 해 줘.
- 응답자5 : 정신이 있으면 가스 차단기를 본인이 하는데.....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 돌봄에 있어 부양가족이 겪는 어려움

- 치매 어르신의 주 돌봄 자가 대부분 연령대가 비슷한 치매 어르신의 배우자로, 고령으로 인해 돌봄 과정에서의 체력적 한계를 토로함
-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이동, 목욕 등 모든 활동을 직접 챙기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힘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돌봄 과정에서 정서적 우울감 호소
- 한편, 치매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낙상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설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치매 어르신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부양가족의 응답

- 연령대가 높은 치매 돌봄 가족(배우자)의 경우, 신체적 나이와 정신적 스트레스, 귀찮음, 어지럼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
- 치매 어르신의 화장실 이동에 어려움
- 돌봄 가족 개인 시간 확보의 어려움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해짐
- 주간보호센터 거부 상황
  - 방문 시간 맞추기, 등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른 개인비용(15%)의 부담
- 치매 어르신 목욕 시키기에 어려움을 호소
  - 욕조가 없는 경우, 목욕 의자 사용-신체 힘이 없어 넘어지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어려움
  - 목욕차 활용도 가능하나 수치심으로 거부 경험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집 내부 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필요 사항

-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치매 어르신의 불편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방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 문턱과 계단, 앉거나 일어설 때 보조기구가 없는 점 등이 주요 불편 사항으로 제시
- 전반적으로 주택 내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센서등, 안전바, 천장에 부착된 끈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응답

- 한편, 치매 돌봄 가족 대부분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당연히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기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표 4-5] 주거공간의 치매친화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양가족의 응답

<b>1. 문턱 제거, 계단 손잡이 보수, 화장실 이용 시 일어나는데 도움되는 장치 필요(천장 끈)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과 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동 시 불편함</li> <li>• 침상이나 앉았다 일어서기 어려움</li> <li>•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많음</li> <li>• 계단 사용 시 낙상 위험 높음</li> </ul>
<b>2. 단독주택은 전체적으로 치매 어르신에게 불편한 집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어나거나 화장실 이용 시 불편함</li> <li>•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지원 등</li> <li>• 방과 화장실 간의 거리, 문턱, 계단, 욕조 시설</li> <li>• 조명의 조도 조절</li> <li>• 치매 증상에 따라 센서등에 민감한 반응,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도록 신경 쓰기</li> <li>• 가스 사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스안전차단기(안심콕) 설치</li> <li>• 단, 고부배관은 설치 불가인 관계로 금속 배관 교체 필요</li> </ul>
<b>3. 돌봄 가족 대부분이 집 내부 불편 사항은 개인적으로 보수, 위험도를 낮추고자 노력함</b>
<b>4. 경증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 이용 시 '천장에 부착된 끈 활용' 아이디어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 되었으나, 개인적인 설치가 어려워 준비하지 못함</b>
<b>5. 불편한 것은 많으나 일일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b>
<b>6. 집 내부 불편 사항이나 필요 의료기는 자비로 구입·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화장실, 침대 옆 안전바 설치, 의료보호기 설치, 센서 등</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 □ 치매 어르신의 거주환경 외부 활동 관련

- 치매 어르신이 집 밖에서 어려워하는 행동과 활동
  - 치매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개선 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활동(산책, 운동, 장보기, 병원 및 센터 방문 등)을 하고 있으나, 항상 배회 위험성과 도로에 서의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보호자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치매 어르신의 외출(외부활동) 범위에 대한 돌봄가족의 응답**

- 집 근처 산책 및 운동 : 가능하면 운동을 매일 시키고자 보호자가 동행함
- 친척집 드라이브 : 기분 전환용 장거리 이동
- 병원(한 달에 2~3회)
- 센터 방문
- 시장 : 일이 있을 경우, 용무와 동시에 시장에 들러 귀가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밀착하여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없으며, 배회 가능성을 염두 하여 인식표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위치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찾고 있음
- 치매 어르신의 배회와 실종을 막기 위해 치매 어르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위치추적, 신고체계 마련, 치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배회 치매 어르신 관련 인터뷰 내용**

- 치매와 배회, 사고 위험과의 연관성
  - 치매 진단 전 '배회', '물품 구입', '거리/신호등 혼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남
  - 방향 감각 상실, 기억력 감퇴로 인한 배회 가능성이 높음
  - 치매 진행에 의한 외부로의 이탈, 배회 성향이 높아지는 편임
- 연락 용이성
  - 핸드폰이나 위치 추적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 많음
  - 핸드폰 사용법도 모르거나 휴대조차 안하고 외부로 이동함, 위치 추적기도 떼어버려 분실 사례 빈번
- 치매 어르신의 배회 범위
  - 집 근처, 마을 주변
- 배회 어르신의 찾는 방법
  - 직접 찾기, 아파트의 경우 경비직원, 시골의 경우 이장님 방송 통한 도움 요청
- 현재 시골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 찾기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음
  - 세종시의 무궁화 배지, 마을 알림 메시지 등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의 외부활동에 있어 부양가족이 겪는 어려움
  - 치매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동수단임
  - 치매라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자차 이용을 자제하고 있어, 주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비도시 지역은 대중교통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외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센터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병원 진료 등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만이라도 교통편을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치매 어르신과 외부활동 시 주요 이동 수단에 대한 돌봄가족의 응답

- 주로 대중교통(버스) 이용. 그러나 불편함이 큼
  - 시골의 경우, 정거장이 멀어 치매 가족과 이동 시 오랜 시간 걸림
  - 경증은 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치매 증상이 심할 경우 택시, 콜밴 이용률 높음
- 휠체어
  - 집안의 구조, 휠체어의 부피(크기), 조작 수준에 따라 활용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초경량 휠체어는 가벼우나 안정감이 떨어짐
  - 무게감이나 부피가 있을 경우 고령자인 치매 돌봄 가족이 조작하거나 휴대하기 어렵다는 단점 있음
- 대부분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함
- 모든 돌봄 가족들이 '지원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없음
- 군에서 운영하는 '행복 택시'는 소수만 인지, 마을 위치와 택시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이용에 제한 있음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 돌봄 및 돌봄지원에 대한 부양가족의 의견

- 시설 입소 또는 기존 주택 및 지역에서의 생활 고민 여부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대부분은 치매 어르신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 하지만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 주변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진지하게 기관 입소를 고민할 것이라고 응답함

※ 요양시설 입소 고민에 대한 돌봄가족의 응답

- 보호자의 신체적, 건강상 한계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엔 해 치매 어르신 입소를 결정하나, 힘이 닿는 한까지는 자택에서 함께 하겠다는 돌봄 가족의 의지가 엿보임
- 요양기관 입소 시기에 있어서는 최대한 결정을 미룸
  - 가족으로서의 미안함, 자책감, 연민 등으로 최대한 자택 돌봄을 고려
- 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가족 돌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소변 빼기를 포함한 지속적인 의료 간호가 요구되는 상태' 등의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기관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함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모두 선호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요양원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임

※ 입소·입원 희망 시설

- 요양원 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호함
-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느낌
- 차상위·생활보호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약간의 비용 부담으로 입소 가능하나, 일정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액이 커짐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지역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과 방문 목적
  -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지인이나 현수막을 통해 인지, 마을 공동체에서 공식적

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 생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참여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센터 방문을 통해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의 교류와 프로그램 참여로 치매 어르신 및 돌봄 가족에서도 정서적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

#### ※ 입소·입원 희망 시설

- 요양원 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호함
-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상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느낌
- 차상위·생활보호 대상자는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약간의 비용 부담으로 입소 가능하나, 일정 소득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액이 커짐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은 지원의 연속성을 주문함. 돌봄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중단되는 점을 매우 불편하게 인식함
  - 또한 국민 모두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고, 배회나 실종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줄 것으로 희망함

#### ※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돌봄가족의 의견

-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의 지속성 확보
  -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원액, 기간이 다름. 차상위/생활보호 대상자 외 계층은 국가적 지원이 극히 적음
-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약값 지원을 일정 기간만이라도 보장해주기를 희망
- 생활 소득에 따라 조호 물품 지원 중단되는 문제 개선(방수포, 기저귀 비용 부담이 큼)
- 장기간 돌봄이 요구되는 '치매 어르신 대상 재정 지원'에 대한 다각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
- 배회 치매 어르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특징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세종시의 무궁화 배지와 같은 표식이나 행동 특징,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 배회 치매 어르신 발견 시 연락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신고 번호' 지정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대상 심리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출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소결

####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주요 대상과 목표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주요 대상은 경도인지장애부터 경증 치매환자까지 포함할 수 있음
  -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중증 치매 이전까지는 자택 생활에 대한 필요에 공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주요 대상을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부터 경증 치매까지 포함하고자 함
  -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치매환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 시키는 것이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안됨
  -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45.3%의 응답자가 '시설입소 최대 지연'을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하였음
  - 지역 주민 인식 개선이 23.7%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긴 하였으나, 일반인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79.3%는 '치매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해 인식 개선보다는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요소

-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주거 공간의 경우 주택 내부와 공용 공간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주거 공간의 경우 주택 내부(출입구·현관, 부엌·주방, 화장실·욕실, 침실·거실)과 공용 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중앙현관) 모두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화장실·욕실 이용의 안전성·편이성 도모 필요
  - 치매안심센터 실무자의 경우 안전한 주거공간 내 이동을 위해 화장실을 포함한 실내 안전 바 설치,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안전 바 설치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발 매트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돌봄 가족 또한 치매 어르신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하는 문턱 걸림,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치매환자의 안전성 보장 및 배회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필요
  - 이 외에도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등, 문종(도어벨), 가스차단기 등의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주택 내부공간에서부터 치매환자의 배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음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요소

-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외부 생활공간의 경우 시설 별 환경 개선 요구의 편차가 큼
  - 다수의 응답자가 의료시설(90.7%)과 여가시설(90.4%)로 물리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 동네 종교시설(66.9%)과 상업시설(70.2%), 대중교통 중에서는 택시(74.0%)가 물리적 환경개선에 낮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실무자·돌봄 가족의 경우 외부환경 개선보다 이동수단의 확충 필요성 강조
  -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및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경우 치매환자의 독립적인 외부활동 및 배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비교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음
  - 치매환자의 야외활동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동행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돌봄 가족의 동행외출 시 치매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동수단(대중교통, 휠체어 이용 등)을 꼽음

####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및 치매안심마을 사업 연계 필요

- 치매친화 생활환경과 치매안심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기대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인터뷰 결과 치매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괄적인 지원 보다는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 소방서, 보건시설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 치매안심센터 지원 업무에 있어서 물품 구입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반면, 시설 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이 부재한 상황
  -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 제5장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에 따른 정책개선 방향
  2.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의 정책개선 방향
  3.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정책개선 방향
- 

## 1.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역할에 따른 정책개선 방향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모두의 안전하고 활기찬 일상생활 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치매 어르신에게는 익숙한 생활공간을 유지하도록 하며 적절한 자극과 방향 인지성 제공 등을 통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강화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의 일상을 통해 치매 어르신은 자존감·자신감을 유지하고 일상적 생활 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치매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강화함
  - 돌봄 가족에게는 가족 간 관계성 유지를 지원하며 돌봄 부담을 완화함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 가족의 부담 완화와 재택 돌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어르신 돌봄이 지속될 수 있음
    - 시설 입소를 통한 돌봄 대비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재가생활·재가돌봄의 지원으로 치매관리에 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됨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정책은 장소와 결정권 개념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장소 차원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은 치매 어르신의 치매 증상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수준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경우, 현 주택 유지 지원에서부터 어르신과 가족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 범위 내 거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음
  -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수준의 치매 어르신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만남과 일상 대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와 익숙한 생활환경 유지를 동시에 지원해야 할 필요
  - 중증 이상 수준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경우 치매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익숙한 생활환경 유지에 집중한 현 주택 유지 또는 가능한 현 주택 유지 방향의 정책지원이 적합함
- 결정권 개념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은 치매 증상 악화에 대응 가능한 주거환경의 다양한 개선과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의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은 경증 이하의 치매 증상까지는 재가 요양과 돌봄을 지속하다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 치매 시기부터는 요양시설·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임
  - 중증 상태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자택, 이후는 시설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중증 상태 이전에도 다양한 유형의 치매친화적 주택과 주거환경을 선택하여 재가요양과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중증 이후 시설·병원으로 입소·입원이 필수인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다양한 개인적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설·병원이 지원될 필요

□ 장소 개념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정책은 치매안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의 치매친화적 개조 지원, 도시 생활권계획 연계의 치매안심지구 조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내용으로 확대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한 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치매 증상 발견 또는 기존

- 치매 증상의 악화 지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BF 시설을 갖추고 고령자의 주거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거주 고령자의 치매 증상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적용은 미흡한 상황임
- 아일랜드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치매친화 주택공간 조성 지침 등을 참고하여 고령자의 인지능력 지원, 안전성 강화의 주택설계요소를 추가하여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등은 거주 치매 고령자의 기억력 감퇴,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야기되는 화재, 낙상, 추락 등의 주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치매친화적 신규 주택의 공급 또는 기존 주택의 개조 시 치매 어르신과 돌봄가족의 일상적 어려움 해소(화장실 이용, 목욕 시키기, 불 켜고끄기, 집 안에서 방향감각 유지하기 등)를 위한 요소를 우선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치매친화적 주택공간의 조성은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치매 어르신에게 적당한 자극을 제공하는 공간환경, 시각각과 방향성 인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등의 생활권계획에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구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도시 거주 고령자의 외부 생활환경의 안전한 이용, 배회 특성 고려 안전한 귀가 지원, 인지능력 및 방향인지력 지원 등의 환경계획·디자인 요소를 지구 단위로 집중하여 초기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FGI 결과 치매 어르신의 외출 지원에 가장 요구되었던 치매 어르신의 이동차량 지원 등을 지구 내 주거단지와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
  -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치매친화적 거주환경의 조성은 치매 어르신의 행동 이상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주택의 입지 선정, 집 주변의 보행로와 표지판·조명 등의 가로시설, 외부에서 자택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함

## 2.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의 정책개선 방향

- 기존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보건복지 서비스 중심 수행 한계 극복과 실효적 치매안심의 “마을” 조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등록, 사례관리, 돌봄 가족의 부담 완화 지원 등 서비스 공급 차원의 내용으로 진행됨
  -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경우 설문조사와 실무담당자 및 돌봄 가족 FGI를 통해 주택 및 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조성이 함께 추진될 필요와 타당성 등이 종합되었음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연계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지역의 치매친화적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 조성, 도시와 마을 차원의 환경 개선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국민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지자체의 치매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지원은 주택의 공급·개조, 도시·마을 환경개선 등과 연계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등은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 고령자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등과 연계하여 치매친화적 주택공간의 조성을 담당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
    -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및 주택공급·개선 대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의견조회를 통해 지역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필요를 반영할 필요
  - 치매친화적 주택 공급과 개선 계획 시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주택 생활과 적당한 자극 제공, 시각각 및 방향성 인지 지원을 필수로 고려해야 함
    -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주택 생활 지원은 치매 어르신의 낙상 방지, 무작위 외출 방지, 주택 내 방향성 확보, 식사 및 복약 유도, 자해 및 상해 방지에 관한 요소가 포함될 필요
    - 치매 어르신에게 적당한 자극 제공을 위해 치매 어르신이 주택 내에서 목적이 분명하며 의미있는 일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구성이 중요
    - 치매 어르신의 주택 내 시각각 및 방향성 인지 지원을 위해 집 내부에 현 위치, 현 시각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림 등의 요소 설치, 주택 내 방향감각 유지를 위한 창문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함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과 방향 인지성 강화 방향으로 대중교통 이용, 횡단보도 이용, 보행로 등의 치매친화적 조성 과 개선을 추진할 필요
  - FGI를 통해 드러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안전환 외부활동 지원 요구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대상 대중교통 지원 및 수요 대응형 교통편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
- 치매친화적 외부 생활환경의 조성은 초기 치매 어르신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외출과 귀가 지원, 사회적 관계성 유지·강화 증진, 중증 치매 어르신의 배회 시 안전한 귀가 지원 등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
  - 집 주변 보행로에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시설물 등을 배치하여 방향성 유지와 길 찾기를 지원하며, 치매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함
  - 건물과 시설의 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되는 색채와 조명 등을 설치할 필요
  - 보행로와 치매 어르신의 주요 방문 시설 주변 등에 핸드레일과 벤치를 눈에 띄는 색상을 활용하여 촘촘하게 설치할 필요
  - 집 주변의 조경 등은 주택별 또는 단지별로 충분히 구분되게 식재하여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완하고 안전한 길 찾기 및 귀가를 지원할 필요
-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는 국토부 등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추진 시 충분한 지역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의 주요 생활편의시설과 연계한 치매 어르신 배회 감지 및 안전 귀가 체계 운영을 추진할 필요
  - 물리적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은 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담당 실무과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해당 사업의 추진 시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특성 반영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
  -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및 돌봄 가족 대상 FGI에서 도출된 치매 어르신 배회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는 기존의 치매안심가맹점 지정·관리 사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내 주요 생활편의시설(마트, 편의점, 커피숍 등)과 연계, 배회 위험이 높은 지역 거주 치매 어르신의 신상정보와 비상 연락처 등을 공유하고 치매 어르신의 무작위 외출·배회 상황 시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안심마을 사업과 국토부 등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선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안부의 보행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시 지자체 사업추진 실무과와 지역 치매안심센터 실무담당자의 협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편의시설 업주와의 연계·협력의 추진 근거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 마련하고 관련 사업 추진예산을 지원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의 지정과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지원 시 해당 위원회에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고 기존의 인식개선·교육·홍보 등의 비물리적 상황 개선에 물리적 환경 조성 노력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3.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정책개선 방향

####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치매친화 생활환경이란

치매 어르신의 기능·인지·감정·관계적 행동이상 특성에 대응하는 주택과 외부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증상 악화 및 시설 입소의 지연, 돌봄 가족의 부담 완화를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속적 재가생활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함
- (단기) 치매돌봄 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방향을 포함하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의 고도화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토교통부 및 관련 정책연구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치매돌봄 개선 TF를 운영할 필요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 또는 치매정책과장을 TF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치매센터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
    - 치매돌봄 서비스 개선 분과 및 치매돌봄 환경 개선 분과로 구성
    - 치매돌봄 환경 개선 분과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치매친화적 주택공간과 외부 생활환경 조성 관련 부서 실무자 참석 필요
    - 치매돌봄 환경 개선 분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공간과 외부 생활환경 마련에 관한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
    - 치매돌봄 서비스 개선 분과와의 총괄회의를 통해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국토교통부 등의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사업 연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TF 논의결과 등을 활용하여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의 '3.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할 필요
    - (개선-9.4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의 치매 어르신 중 무작위 배회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마주치게 되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와 배회 어르신 대응 매뉴얼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선-10. 치매안심마을 운영 절차) 치매안심마을의 운영 절차 중 지정과 인증에 관한 사항에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개념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개선 - 10. 치매안심마을 운영 방법)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지역 자원조사 양식(서식 9-2)에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 자원을 조사하도록 하고 현황을 치매안심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신설 - 10. 치매안심마을 유형 지정) 치매안심마을의 지정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치매안심마을 유형을 '치매돌봄 서비스 안심형'과 '치매돌봄 환경 안심형'으로 분류하여 지정·운영하고, '치매돌봄 환경 안심형' 지정·운영에는 국토교통부 등 생활환경 개선 업무 부서의 협력이 추진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중기)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업무처리지침,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과 복지부 치매돌봄 서비스 사업의 연동을 통한 다부처 협력의 치매안심마을 또는 치매안심지구 사업 추진을 노력

-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주택)과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령자복지주택 저층부의 서비스 공간을 지역의 치매안심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치매 돌봄 관계자 FGI에서 나타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시·군·구별 하나씩 마련된 치매안심센터의 과도한 민원 대응 업무 집중을 해소할 필요
  - 국토교통부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저층부(1~2층)에 마련된 복지서비스 공간을 치매안심센터 분소급으로 활용하거나 치매안심센터 직원 1~2인의 파견처로 활용하고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고령자복지주택 설치 치매안심 서비스와의 네트워크 구성
-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에 따라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 등이 수립하고 있는 생활권계획과 광역치매센터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치매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조성
  - 보건복지부는 광역 시·도별로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시·도 치매관리시행계획과 치매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수행 중
  -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고 도시민의 일상 생활권을 단위로 생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의 광역치매센터와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돌봄 관련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생활권계획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 생활권 단위의 치매 돌봄 및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가칭 치매친화 생활권)이 시·도 차원의 생활권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장기)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선을 통한 복지부·국토부 협업의 (가칭)치매안심 생활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수립된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계획을 포함할 필요
  -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1~’25)은 주요과제로서 “4.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치매안심마을의 단계적 확산을 계획하고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발굴 확산,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 등을 제시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치매안심마을의 확산이 추진되도록 계획 내용 개선을 검토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가칭)치매친화 생활마을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은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등을 계획함
  -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지역내 자원 연계 방안으로서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도록 검토하고, 실천적 방안으로서 (가칭)치매친화 생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제시할 필요



- 강미나·조윤지. (2017).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620).
- 건강보험연구원. (2019).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할 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고숙자. (2016).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의 사회적 부담과 예방 및 관리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인숙. (2003).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의 옥외공간에 관한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과 삶의질연구. 가정과 삶의질 학회, 2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undefined> (검색일: 2022.5.12.)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110/sub/17.html> (검색일: 2022.05.26.)
- 김기웅 외. (2011). 치매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김미소·장숙량·김인아·김정애·임종한·박진아·김미희·이옥진·강민지. (2021). 치매환자 케어 플랜 및 지역사회 연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신한대학교 치매R&D 사업단.
- 김민경. (2021).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01.12.3.(금)), 토론회. 보건복지부.
- 김민규·장예빛·손정훈. (2018).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서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정책적 고찰. 노인복지연구, 73(1).
- 김소원·김정빈. (2022). 치매환자를 위한 마을형주거공간의 조성과정에 있어 참여 주체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지, 23(2).
- 김영범 외. (2018). 치매친화적 사회구축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모델 개발. 2016-20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연구개발사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수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42870> (검색일: 2022.05.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pWise=sub&pWiseSub=B12> (검색일: 2022.05.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405> (검색일: 2022.05.26.)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대한민국정부.
- 대한치매학회 홈페이지, <https://www.dementia.or.kr/bbs/index.php?code=news&category=&gubun=&page=1&number=1163&mode=view&keyfield=&key=> (검색일: 2002.05.30.)
- 박훈·김정현. (2019).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화시설의 전략적 계획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39(1).
- 변혜령. (2001). 치매노인시설을 위한 환경디자인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혜령·이연숙. (2003). 치매노인시설을 위한 환경디자인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 연구. 한국노년학, 23(2).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8108&page=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58108&page=8) (검색일: 2022.05.2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 (검색일: 2022.05.2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SEARCHKEY=CONTENT&SEARCHVALUE=%EC%B9%98%EB%A7%A4+%EA%B5%AD%EA%B0%80%EC%B1%85%EC%9E%84%EC%A0%9C) (검색일: 2022.05.26.)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와의 정책실무협의회(2021.07.07.) 내부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치매친화적 사회구축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모델 개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1).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동향. 중앙치매센터.
-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다세대·아파트단지 2곳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11월2일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74901> (검색일: 2022.

11.07.)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s://beautifulfund.org/62666/> (검색일: 2022.11.30.)
- 오찬욱. (2004). 치매노인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공간디자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5), pp.59-68.
- 유승희. (2019). 캐나다, 치매 예방·치료에 442억원 예산 투입 '국가적 사업 지정'. 경인일보. 6월 18일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90618010006816> (접속일: 2022.05.30.)
- 유재연. (2018).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범상·문병기. (2017). 사회복지정책론 워크북, 서울.
- 이동우·성수정. (2018). 대한민국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1차에서 3차까지. 대한의사협회지, 61(5),
- 이선정. (2019). GO! 치매 보듬는 사회 <6> 덴마크 스벤보르시 치매마을. 국제신문. 4월 17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18.22006006739> (검색일: 2022.05.26.)
- 이수경·최윤경. (2021). 인간중심 돌봄적인 측면에서의 치매친화환경지침 비교검토.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1(1).
- 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선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수, 강민지, 이옥진, 이흥훈, 광미영, 유원섭, 서지원, 고임석. (2021).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 이현정. (2021). 치매마을에 나타난 바이오필릭 디자인 개념의 공간적 표현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6(1).
- 이현숙. (2019). 영국의 치매대응 정책분석과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1).
- 이현정·윤재은. (2022). 치매 친화적 마을 구축 관점으로 본 치매노인시설의 공간 특성 연구 - 'World Alzheimer Report 2020'에 선정된 마을형 시설을 중심으로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7(1).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sub/sub.aspx?seq=001005004> (검색일: 2022.5.26.)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2.aspx?gubun=0201) (검색일: 2022.11.30.)
- 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 치매관리법. 대통령령 제31743호.
- 통계청. (2019). 장애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 Forsyth, A. & Molinsky, J. (2021). What Is Aging in Place?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HOUSING POLICY DEBATE, 31(2), pp.181-196.

- Alzheimer's Australia WA. (2016).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Australia.
-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20). World Alzheimer Report 2020. Vol.2.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 Alzheimer's Australia. (2004).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Dementia Care and the Built Environment.
- Buckner, S., Mattocks, C., Rimmer, M., Lafortune, L.(2018). An evaluation tool for Age-Friendly and Dementia Friendly Communities. Work Older People, 22(1).
- Department of Health, Estates and Facilities Division. (2015). 「Dementia-Friendly Health and Social Care Environments」. Stonery Office, U.K.
- National Dementia Behaviour Advisory Service. (2004). 「Dementia Care and the Built Environment, Position paper 3」. Australia.
- Public Health England. (2020). 「Dementia and Town Planning」, U.K.
- The Department of Seniors and Long-Term Care. (2022). Long Term Care Facility Requirements, Canada.
-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2015). 「Universal Design Guidelines Dementia Friendly Dwellings for People with Dementia, Their Families and Carers」. Ireland.
- Zeisel, J., Hyde, J., & Levkoff, S. (1994). Best practices : an environmental-behavior(E-B) model for Alzheimer special care units.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9(2).

---

# 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for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SUMMARY

Ko, Youngho  
Kwon, Youngran  
Choi, Gayoon

---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n Korea are tend to be recognized as patients that are subject to unconditional care. However, dementia seniors cannot be understood only as unconditional care targets, in a situation where the propo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t may be a policy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care families to help them live with their family and enighbors in ther homes that are familiar to them. Korea's support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remains in case management centered on health and welfare services, and there is lack of concerns at th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level where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ir care families can maintain their existing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before considering entering the facil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a deme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that can support the continuous residence of dementia elderly and caring families in the community and deriving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for creating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combining the community living environment and dementia management services, and reviewed current laws, systems, plans, and projects o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creation of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a public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survey (FGI).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tatus and cas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and the results of an in-depth interview, th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reation of a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in Korea was suggested.

**Keywords**

Dementia, Dementia Care, Housing, Living Environment, Dementia-friendly Living Environment,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



- ① 동 지역(대도시/중소도시)      ② 읍·면 지역(군지역)

SQ가족2 :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_\_\_\_\_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SQ가족3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 A. 치매 어르신 돌봄 인식

※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치매의 증상) 치매 어르신은 기억력, 방향감각, 언어, 판단력, 환각, 우울증, 일상생활능력 등에 장애를 보인다.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 경증 치매 → 중증 치매로 증상이 진행하며,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진행 속도를 늦추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 (치매 요양시설에서 생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살던 집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어르신에게 식사, 돌봄, 간호, 요양 등 일상생활 필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치매 어르신은 살던 집을 떠나, 다른 노인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 돌봄,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 ▶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생활) 최근 **해외 선진국은 치매 어르신의 인권과 삶의 질 강화에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능한 오랜 기간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즉, 주택과 동네의 생활환경) 조성을 노력 중**이다. 이러한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래,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가족1 : 치매 증상은 경도인지장애 → 경증 치매 → 중증 치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치매 정도별로 **치매 어르신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해 어디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 증상 정도	주택	요양시설	요양병원
1) 경도인지장애	①	②	③
2) 경증 치매	①	②	③
3) 중증 치매	①	②	③

A가족2 : 귀하가 만약 노년기에 치매 어르신이 된다면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 ①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
- ②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 ③ 자녀나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A가족3 : 귀하가 만약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된다면 어디에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싶으십니까?

- 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도록 한다
- ② 현재의 거주지역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며 거주하시도록 한다
- ③ 자녀나 돌봐줄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며 거주하시도록 한다

A가족4 : 치매 어르신이 같은 마을 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거부감이 든다	다소 거부감이 든다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 A4-1로		→ B1로	

A4-가족1 : 치매 어르신이 같은 마을 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B.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치매친화 생활환경**이란 **치매 어르신이 이전부터 생활하던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능한 오랜 기간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과 요양돌봄 서비스**가 합쳐진 모습을 의미한다.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어르신은 불필요하게 이른 시기에 치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불필요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보호자(가족)**는 치매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치매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 ▶ **지역 주민**은 치매친화 생활환경 속에서 **치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상에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

B가족1 : 다음은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주요 특징입니다.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매 어르신의 시설입소를 최대한 지연하고, 익숙한 자택과 지역에서 가능한 오래 지낼 수 있는 점
- ② 치매 돌봄 가족이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며 가능한 오래 함께 지낼 수 있는 점
- ③ 지역 주민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과 함께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점
- ④ 기타(\_\_\_\_\_)

B가족2 :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 B2-1로		→ B3으로	

B2-가족1 : 그렇다면 귀하의 (조)부모님(치매 여부 무관)이 살고 계신 '집'을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B가측3 :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 B3-1로		→ B4로	

B3-가측1 : 그렇다면, 귀하의 (조)부모님(치매 여부 무관)이 살고 계신 '동네'를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B가측4 : 치매 어르신의 '주택'을 치매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B가측5 : 치매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의 환경'을 치매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적극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B가측6 :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음 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 친화적 생활 환경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어느 정도 중요	매우 중요
1) 물리적 생활환경(주택, 보행로·상점·공원, 대중교통 등)을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생활환경(사회활동 참여, 배려와 존중, 다양한 정보 제공)을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	①	②	③	④
3) 서비스 생활환경(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을 치매 친화적으로 조성	①	②	③	④

B7.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영역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물리적 생활환경(주택, 보행로·상점·공원, 대중교통 등)
- ② 사회적 생활환경(사회활동 참여, 배려와 존중, 다양한 정보 제공)
- ③ 서비스 생활환경(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

B8.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해 다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 환경 요소	전혀 개선 불필요	별로 개선 불필요	다소 개선 필요	매우 개선 필요
<b>주택 내부 공간</b>				
1) 출입구, 현관	①	②	③	④
2) 부엌, 주방	①	②	③	④
3) 화장실, 욕실	①	②	③	④
4) 침실, 거실	①	②	③	④
<b>주택 공용공간</b>				
1)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①	②	③	④
2) 중앙현관	①	②	③	④
<b>동네 보행공간</b>				
1) 보행로(인도)	①	②	③	④
2) 횡단보도	①	②	③	④
3) 공원 산책로	①	②	③	④
<b>동네 대중교통시설</b>				
1) 버스	①	②	③	④
2) 지하철	①	②	③	④
3) 택시	①	②	③	④
4) 버스, 지하철, 택시의 정류장, 승하차 장소	①	②	③	④
<b>각종 시설</b>				
1) 동네 상업시설(슈퍼, 편의점, 식당 등)	①	②	③	④
2) 동네 의료시설(보건소, 병·의원 등)	①	②	③	④
3) 동네 여가시설(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①	②	③	④
4) 동네 문화시설(문화센터, 영화관,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5) 동네 체육시설(체육관, 공원 운동시설, 수영장 등)	①	②	③	④
6) 동네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등)	①	②	③	④

B9. 방금 보신 '치매친화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별로 치매 어르신의 해당 공간·시설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 환경 요소	해당 공간·시설 '접근성'	해당 공간·시설 '안전성'	해당 공간·시설 '편의성'
1) 주택 내부 공간 (출입구, 현관, 부엌, 주방, 화장실, 욕실, 침실, 거실 등)	①	②	③
2) 주택 공용공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중앙현관 등)	①	②	③
3) 동네 보행공간 (보행로(인도), 횡단보도, 공원 산책로 등)	①	②	③
4) 동네 대중교통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정류장, 승하차 장소 등)	①	②	③
5) 각종 시설 (동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①	②	③

B10.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이 '치매친화 생활환경'으로 조성된다면, 그 혜택은 다음 대상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별로 도움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1) 치매 어르신 본인	①	②	③	④
2) 치매 어르신의 가족	①	②	③	④
3) 지역 주민	①	②	③	④

### C.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

※ 다음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설명을 잘 읽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설치 목적)** 치매 예방, 상담 및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기능과 역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 어르신의 등록·관리, 치매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 어르신 쉼터 운영, 치매 어르신의 가족 지원사업,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또는 외부 서비스 연계
- ▶ **(주요 사업)**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치매 어르신 쉼터, 치매가족 지원,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조성 등

B1가족1 : 귀하는 방금 설명에서 보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알고 계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 보았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                      ③ 전혀 몰랐다

B1가족2 : 그렇다면,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 보았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                      ③ 전혀 몰랐다

### DQ. 응답자 일반 현황

DQ가족1 : 귀하는 동네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평소 얼마나 자주 마주치거나 만나고 계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1주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일년에 1-2회 정도                      ⑤ 마주친 적 없음

DQ가족2 : 귀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 과거 또는 현재 치매를 앓았던(현재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DQ가족3 : 귀하의 가족 구성원 중에 현재 치매를 앓고 있거나 치매 우려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DQ3-1로      ② 없다 → DQ4로

DQ3-가족1 : 현재 치매 또는 치매 우려 증상을 보이는 가족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함께 산다                      ② 따로 산다

DQ가족4 :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기혼(배우자 없음)

DQ가족5 :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일상 생활에 지장 없음(건강함)  
② 일상 생활에 약간 지장 있음(허약함)  
③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음(도움 필요함)

DQ가족6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주택/연립주택      ③ 아파트  
④ 오피스텔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⑥ 기타(\_\_\_\_\_)

DQ7.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자영업                      ② 판매/영업 서비스직                      ③ 기능/작업직(단순 노무직)  
④ 사무/기술직                      ⑤ 경영/관리직                      ⑥ 프리랜서/전문직  
⑦ 농/임/어/축산업                      ⑧ 전업주부                      ⑨ 대학(원)생  
⑩ 은퇴/무직                      ⑪ 기타(\_\_\_\_\_)

DQ8. 실례지만, 귀하를 포함한 가구 전체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너스,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을 포함한 세전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 부록2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수행 계획

### □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수행 계획

- 목표 표본 수는 총 3그룹으로 도시 지역 거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1그룹, 비도시 지역 거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1그룹, 지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1그룹으로 구성하고, 그룹 별 4~5인과 인터뷰 수행
- 녹취 스크립트 작성, 그룹별 질의에 따른 인터뷰 내용 정리
-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거주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입장에서의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일상 생활환경(주택/외부 생활환경)의 개선 욕구, 개선 필요사항 등을 도출

### [ 녹취 스크립트 정리 예시 ]

Digital Transformation  
전문가(대남-포스트) 코로나 시대용량비  
9999999 2020.03.08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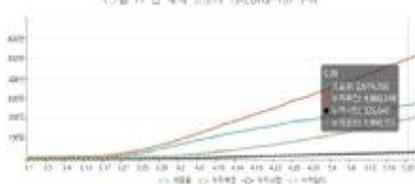


▶ 일시: 2020년 5월 20일 14:00~17:00  
▶ 장소: 레스팅 플레이스(충북 청주시)  
▶ 참석자:  
우원석 KDI 글로벌경제실장(주장)  
박병원 STEPI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이영호 역시재 Solution Designer  
이성호 Inno O-Lab 대표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미래인문학 교수  
최형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원석: 오늘 마련된 회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고자 마련 자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5월 20일 현재 219개국에서 498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32만명 이상 사망할 만큼 코로나19의 여파가 큼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유행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정책(containment policy)을 취하는 동시에 뉴질랜드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반적인 상황과 실정에 대해 먼저 한번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리는 경기침체 속에서 전 세계 통제정책·경기부양책 실시"**

〈7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1960년~19년 추이〉



이영호: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많이 눈여겨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사회적 측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가 과잉생산이나 금융시스템의 버블로 인한 위기였다면,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의 이동이 줄어지고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기에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높지 않지만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전체 공명차 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 서스(2003년)나 메르스

부록 141

##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좌담회 수행 가이드

### ○ (5분) Introduction & Warming-up

- 좌담회 참석 감사 말씀, 인사, 연구원/사회자 소개, 핸드폰 진동 요청
- 참석자 자기소개(소속, 이름, 직급 등 간략히)
- 좌담회 목적 설명

#### 〈진행 방법 소개〉

- 이번 좌담회는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 정답 또는 오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핸드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 들어주시고, 한 번에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 〈본격적 의견청취에 앞서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분위기 환기〉

-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생활) 최근 해외 선진국은 치매 어르신의 인권과 삶의 질 강화를 위해서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며 가능한 오랜 기간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 조성을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을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어르신이 이전부터 생활하던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능한 오랜 기간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을 말합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치매 어르신은 불필요하게 이른 시기에 치매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지연하며, 불필요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돌봄 가족은 치매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로 발생하는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치매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지역 주민은 치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상생활에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모두 치매 어르신 돌봄을 지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이번 좌담회에서는 “지역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분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대한 치매돌봄센터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15분) 일반적 일상생활 질문
    - 센터의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주요 업무
    - 치매 어르신 또는 돌봄 가족의 주요 지원요청 사항
      - 센터의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주요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 센터에 접수되는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에 관한 주요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25분)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질문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자택 요양 관련 센터의 주요 지원업무
    -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으로부터 접수되는 주요 지원요청 사항
    -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속적 재가생활(AIP) 지원 관련 주택과 관련된 물리적 개선 필요사항(센터 업무 무관) 및 연결 가능한 센터 지원 업무
      -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접수하는 주요 지원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안전하고 편안한 자택생활 지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생활환경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센터의 업무와는 무관하여도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분들로부터 듣는 평소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았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 말씀해 주신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센터의 지원업무 개선 가능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25분) 집 밖에서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 관련 질문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집 밖에서 어딘가를 다니시거나 외출하시는 것 관련 센터의 주요 지원업무
    - 외부 활동을 원하시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으로부터 접수되는 주요 지원요청사항
    - 외부 활동과 관련하여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AIC) 지원 관련 동네/지역 생활환경의 물리적 개선 필요사항(센터 업무 무관) 및 연결 가능한 센터 지원 업무

- 치매 어르신(돌봄 가족)의 집 밖에서의 외부 활동 관련하여 접수하는 주요 지원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안전하고 편안한 외부활동 지원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생활환경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센터의 업무와는 무관하여도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분들로부터 듣는 평소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았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 말씀해 주신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센터의 지원업무 개선 가능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25분) 치매안심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질문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부족과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 치매친화 생활환경 기반 치매안심서비스 지원
- 센터 업무를 통해 이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생활하시는 집 또는 외부환경의 미흡으로 센터의 치매안심서비스 지원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센터 업무를 통해 이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이 이른 시기에 불필요한 입소·입원하는 것을 지연하고 가능한 오랜 기간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존의 치매안심서비스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5분) 기타

- 국가적 지원 필요부분
- 치매친화 생활환경의 조성과 센터의 치매안심서비스가 적극 연계되어 지역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 말씀해 주세요.

## 치매어르신 돌봄 가족 좌담회 수행 가이드

### ○ (5분) Introduction & Warming-up

- 좌담회 참석 감사 말씀, 인사, 연구원/사회자 소개, 핸드폰 진동 요청
- 참석자 자기소개(지역, 이름 등 간략히) - 엠브레인, 국무총리실 산하의 건축공간연구원 내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 이번 좌담회 목적 설명

○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진입, 치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국민의 치매부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도시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방안 연구를 수행 중

- (연구목적) 치매 고령자와 가족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의 정책 개선방향 도출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과 치매안심센터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집과 동네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 도출 예정

### 〈진행 방법 소개〉

- 이번 좌담회는 1시간 30분에서 최대 2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 정답 또는 오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핸드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잘 들어주시고, 한 번에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 좌담회 끝난 후에 사례금 지급을 위해 성함과 통장번호 받아야 합니다.

### 〈본격적 의견청취에 앞서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분위기 환기〉

- (치매의 증상)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 경증 치매 → 중증 치매로 증상이 진행하며, 증상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 (치매 요양시설에서 생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은 살던 집에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에게 식사, 돌봄, 간호, 요양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시설 입소를 위해 치매 어르신은 살던 집을 떠나, 다른 노인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생활) 최근 해외 선진국은 치매 어르신의 인권과 삶의 질 강화를 위해서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며 가능한 오랜 기간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 조성을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을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 치매친화 생활환경은 치매 어르신이 이전부터 생활하던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능한 오랜 기간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환경을 말합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치매 어르신은 불필요하게 이른 시기에 치매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지연하며, 불필요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돌봄 가족은 치매 어르신의 요양시설 입소로 발생하는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치매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서 지역 주민은 치매 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상생활에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모두 치매 어르신 돌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이번 좌담회에서는 “집과 집 밖에서의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15분) 일반적 일상생활 질문

- 치매 어르신의 하루 일상
-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하루 일상
- 치매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일상을 아침 기상 후 3시간 단위(오전 6-9시, 9-12시, 12-3시, 3-6시, 6-9시 등) 또는 주요 활동 단위(아침 기상, ○○○, 점심 식사, ○○○ 등)으로 말씀해 주세요
- 돌봄 가족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일상을 아침 기상 후 3시간 단위(오전 6-9시, 9-12시, 12-3시, 3-6시, 6-9시 등) 또는 주요 활동 단위(아침 기상, ○○○, 점심 식사, ○○○ 등)으로 말씀해 주세요

- (25분)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 어려움 질문 (집 안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 집 안에서 치매 어르신이 지내시는데 어려워하는 행동 또는 활동
  - 집 안에서 돌봄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돕는데 어려운 행동 또는 활동
  - 집 내부 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필요 부분
  - 치매 어르신이 집 안에서 지내시는데 어려워하는 행동이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리적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은 좋은데 사람의 문제인가?)
  - 돌봄 가족 입장에서 치매 어르신을 보살피고 일상을 돕는데 어려운 행동이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집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주택 내부 공간(1) 출입구, 현관 / 2) 부엌, 주방 / 3) 화장실, 욕실 / 4) 침실, 거실)
  - 주택 공용공간(1)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2) 중앙현관)
  
- (25분) 집 밖에서의 일상생활 어려움 질문 (집 밖이라는 점을 환기시키기)
  - 집 밖에서 치매 어르신이 어딘가를 다니시거나 외출하시는데 어려워하는 행동 또는 활동
  - 집 밖에서 돌봄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돕는데 어려운 행동 또는 활동
  - 집 밖 환경(외부 생활환경)의 치매친화적 개선 필요 부분
  - 치매 어르신이 집 밖에서 어딘가를 다니시거나 외출하시는데 어려워하는 행동이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오고 계신가? => 지원사항은?)
  - 돌봄 가족 입장에서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다니실 때 보살피고 돕는데 어려운 행동이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집 밖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동네 보행공간(1) 보행로(인도) / 2) 횡단보도 / 3) 공원 산책로)
  - 동네 대중교통시설(1) 버스 / 2) 지하철 / 3) 택시 / 4) 버스, 지하철, 택시의 정류장, 승하차 장소)
  - 각종 시설(1) 동네 상업시설(슈퍼, 편의점, 식당 등) / 2) 동네 의료시설(보건소, 병.의원 등) / 3) 동네 여가시설(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 4) 동네 문화시설(문화센터, 영화관, 도서관 등) / 5) 동네 체육시설(체육관, 공원 운동시설, 수영장 등) / 6) 동네 종교시설(교회, 절, 성당 등))

○ (25분) 지원기관, 지원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질문

-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경험, 목적
- 치매 돌봄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목적
- 시설 입소에 대한 고민과 살던 집과 지역에서의 지속 생활 고민
-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일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치매 돌봄 관련 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디에서(집/치매안심센터/기타 장소) 어떤 서비스를 받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치매 어르신 돌봄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 입소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디로(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입원을 고민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곳을 고민했나?)
- 집을 떠나는 시설 입소와 비교해서 살던 집과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이 가능한 오랜기간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예상되는 이로운 점과 불편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

○ (5분) 기타

- 국가적 지원 필요부분
- 요양원·요양병원 등으로 입소·입원하기 보다는 살던 집과 동네에서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가능한 오랜기간 생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현재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수준, 가장 큰 어려움 (물리적 환경인가? 사람들 시선인가?)
- ① 물리적 생활환경(주택, 보행로·상점·공원, 대중교통 등)
- ② 사회적 생활환경(사회활동 참여, 배려와 존중, 다양한 정보 제공)
- ③ 서비스 생활환경(병·의원 등 의료서비스,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

## 부록3 : 치매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 치매 어르신 돌봄 관계자 FGI 녹취록

### 1.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그룹 좌담회 녹취록

**사회자:** 치매 어르신 관련 되어서 치매 친화생활 환경 관련된 인터뷰를 전문가 분들, 안심센터 계시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내외가 될 거 같아요. 잠깐 휴대폰은 꺼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 만나 뵙지 못 하지만 인연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고순천 님, 강정희 님, 조인선 님, 김미미 님 이 순으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시작 할까요?

**고순천:**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함평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 치매정신 팀장, 고순천 팀장입니다.

**강정희:**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 치매안심 센터에서 2019년부터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원 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인선:** 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담당하고 있는 조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미:** 저는 청주시 상당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다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공감되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을 답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정답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견,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 의견 보다는 나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끝나고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 다르구나 하고 듣기만 하시면 되고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나의 어떤 경험 기반에서 이야기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고 특히 평소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선점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왜 이런 게 없을까 라는 부분들까지 이야기 해 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

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연구는 저희가 치매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가 좌담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치매 어르신들 돌봄 가족들도 추가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릴 부분은 치매 친화 생활 환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잘 몰랐더라고요. 간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 다 받으셨어요?

**조인선:** 네. 받았습시다.

**사회자:** 사전에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다 받으셨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 보셨겠네요?

**조인선:** 네. 읽어 봤습시다.

**사회자:**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생활 관련 되어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해외 선진국은 치매 어르신의 인권과 삶의 질 강화를 위해서 집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함을 깨닫고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 시설에 입소 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해서 가능한 오랫동안 자택에서 익숙한 동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 친화 생활 환경 이것은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추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친화 생활 환경에 대한 개념은 치매 어르신이 이전부터 생활하던 익숙한 자택과 동네에서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능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 환경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친화 생활 환경은 어떤 치매 어르신이 불필요하게 이른 시기에 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것을 지연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환경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을 최소화

하고, 그리고 돌봄 가족은 치매 어르신의 요양 시설 입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심리적 그런 부담감을 좀 덜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이 좀 더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은 치매 질환에 대해서 인식 개선과 일상생활에서 치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어떤 생활 그런 방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하는 건축공간연구원이라든지 고령 친화 정책 연구센터 이런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연구 관련 되어서 좀 데이터를 얻고자 여러분들을 모셨고요. 그래서 관련 되어서 조금 아이디어나 의견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데요. 첫 번째 섹션은 일반적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희가 크게 어떤 업무들 많이 하세요? 질문이 조금 반복될 건데요. 조금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되어서 주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들을 센터 안에서 중심으로 좀 먼저 이야기 해 주시면.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가족들은 어떤 주요 요청을 하고 있고, 나는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센터 내에 업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얘기가 자유롭게 안 되면 제가 순서대로 아까처럼 들겠습니다.

**조인선** : 그러면 저 말씀드릴게요.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조인선이고요. 사실 센터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주요 업무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모든 센터가 대동소이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호 물품 제공, 치매 치료비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 사례 관리, 저희는 진짜 딱 지침에 있는 그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는 추가로 또 하는 게 있으실지 저도 궁금해요.

**사회자** : 포션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것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조인선 : 일단 사실 사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업무가 치매안심 마을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업무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호나 치매 치료비가 조금 크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나오거나 줄어들거나 지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조호, 치매 치료비 이 정도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비율을 보자면 이 비율이 이 업무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 본인 이외에도 우리 센터 내에서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신 거죠?

**조인선** : 네.

**사회자** :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나는 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

강정희 님?

**강정희** : 지금은 센터에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주요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까 용인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는 지침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용인시에서 말씀하신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환자 쉼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지 장애, 치매 전 단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 단기 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 강화 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분소,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이 떨어져서 각 지역마다 분소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고순천 님?

**고순천** : 저희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전에 정신 국립병원에 간호사로 있다가 이쪽 보건소로 2001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6급을 달 정도 위치에서 와서 제일 처음에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게 이 보건소 내에서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나? 이런 좀 부딪침을 받았었는데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아 정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좀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인 정부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치료를 하고 관리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개소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업무 고리를 연결 시켜놔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력 풀을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해줬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기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던 인력 관리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충분히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 군은 아주 열악한 농촌 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었던 게 머리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그 지침에 의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함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강조하는 거는 일단은 시골에서 검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검진을 독려했었고, 그리고 검진이 되고 나면 치매 그 약재를 먹는 약재를 투약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나 이런 안내에 저희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매 환자 발견에 최대한 집중했었고요. 한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치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눈

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손에 쥐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가 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는 맞춤형 사례 관리를 요새는 강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인력이 안 됩니다. 저희 인력이 18명 정원인데 우리 소장님까지 해가지고 소장님, 과장님, 저 그리고 우리 직원 2명 포함해서 18명으로 카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10명 정도 채용했었는데 그 10명이 코로나 이후로 딱 빠져 나가버리고 인력이 줄어서 5명 6명 있습니다. 2명 휴직 가고 그래서 이런 여건에서는 애들한테 어떤 걸 강조해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조기 검진하고 병원 치료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한 번씩 전화 드리고 방문할 수 있으면 또 가가호호 방문도 해 보고, 하고 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의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것까지만 우선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랬는데 또 프로그램을 안 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치매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게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김미미 님?

**김미미:** 저희 쪽도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침대로 센터 내에서는 프로그램을 전부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충청북도에서는 기업 지킴이라는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 활동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 데에 방문을 해서 1대1로인지 교구를 사용해가지고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 정도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사회자:** 센터에서 좀 접수 되는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되어서 주요 요청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고순천:**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접수 되는 민원이 치매 환자 이상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그 대상자 경우를 많이 민원으로 가지고 오세요. 보호자 분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 되다 보니까 섬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섬망을 이렇게 호소하는데 그게 치매라고 보시고 치매로 모시고 와서 어떤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다른 개인병원에 가면 치매 진단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왜 섬망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좀 더 미루지 하시던 분들도 이제 병원에 저희 합평이 이제까지 제가 제일 처음에 지역 사회로 오게 된 이유가 여기 합평이 정신과 의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런데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생님하고 치매 이상 행동을 하고 환자 좀 이상하고.

**사회자:** 조인선님 이어서 할까요. 어떤 주요 요청 사항들이 있는지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되어서?

**조인선:** 아까 함평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치매를 모르지는 않아요. 다들 치매가 어떻다 이런 거를 아는데 막상 닥치면 내가 케어하는 입장에서 내가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이랑 다르게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센터에 보내는 게 아직 보편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애기들은 유치원에 가는 게 당연한데 어른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어서 돌보는 사람의 신체적 피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행동 관련해서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케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실 보호자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굉장한 전문가 이기를 원하죠.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아까 함평군에서 저희 서울, 경기도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주 줬죠.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자체 정규직이고 경기도는 아직도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이게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자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5년까지도 못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가 전문가이길 원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응대를 못 하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사회자:**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 부분들이라든지?

**조인선:** 저는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파트가 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주력으로 하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파트,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아니면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꼭 의사 선생님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상담 정도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해 주면 어떨까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요청을.

**사회자:**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자주 하는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겠네요?

**조인선:** 네. 그렇습니다.

**강정희:**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 가족 분들이 치매 어르신의 돌봄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간 보호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사실 지금 치매 환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월, 수, 금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밖에 돌봄 혜택을 못 받기 때

문에 그 시간이나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또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안전 바나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방에 이음표 부착 등 우리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환경으로는 차량 지원 어르신이 장 보거나 약타거나 어디 볼 일 보러 갈 때 지원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 지원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미** : 저희 쪽에서도 차량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택시 회사랑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택시 회사에서 지원 도움을 받는 거에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추진까지는 가지 못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지 교구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집에서도 좀 심심하고 무료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회자** : 고순천님 고생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려운 부분들. 주요 요청 사항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순천** : 아까 했던 그 내용이 제가 이런 지침대로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그 증상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장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서 뭘가를 해 주기를 많이 바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집에 가보면 집안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이 더 절박한데 그걸 이렇게 개선하고 그럴 생각은 별로 안 하셔서 오늘 이 좀 회의가 있어서, 맞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게 함평군에 이렇게 치매안심을 위한 어르신들 주택 소개 매뉴얼 주택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서초구 쪽에 한번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10년 다 됐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기 했는데 이게 이 좀 회의를 거치고 나서 조금 치매 환자를 위한 주거 환경이나 이런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꿈틀대는 거 같아서 지금 엄청 바쁠 때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바쁠 거예요. 지금 시범평가하고 그래서 저희도 힘들 텐데 광역에서 요청이 올 때 제가 요청을 수락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 사업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그걸 또 하나 하는데, 이게 문제가 지침에서는 쓸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안 되는 것을 이 공모 사업에서는 제 마음대로 플랜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 정서적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 쪽으로 자활센터에다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나면 그리고 환경 조성이나 화단 환경 조성이나 집안 청소 대여 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 지원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진짜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 분들이 와서 이게 필요한 내용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리고 나면 주민들도 아 이게 치매라는 게 그 지역에서 충분히 좀 바뀌주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갖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고순천** : 예산, 직원도 없고 예산이 좀 늦었어요. 9월 말에 사용장 승인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기는 한데 지금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저 혼자 하고, 애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하되 진짜 도와줄 때는 좀 화끈하게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플랜 짜는다고 정신 없습니다.

**사회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이 주로 센터에 접수 되는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주제들인 건가요?

**고순천** : 그 분들이 보호자들이 원하는 건 실은 조호 물품이나 이런 거예요. 조호 물품 제공이나 우리가 좀 더.

**사회자** : 금전적인 거 요구하는데?

**고순천** : 그런데 어머님들 아버지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정말 살아가는 환경 안이 전혀 본인들이 진짜 익숙하게 이렇게 있는 환경이니까 하지, 점점 인지가 떨어지면서 그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게 너무 산만하고 불편하고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요청하는 거는 우선 자식들 때문에 요구는 못 해요. 그거는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치매안심센터는 보호자가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떤 역할을 치매안심센터가 해 주는지 알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좀 강구해가지고 자주 가족들이 못 가는 만큼 우리 안심센터에서 자주 들여다봐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양 서비스에 버금가는 서비스 요청이 많아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요양기관하고는 다르다는 걸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자** : 앞에서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 파트에 다음 파트 질문 가지고 계신 것처럼 자택에서는 좀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택 밖에 집 밖에서 치매 어르신이나 돌봄 가족이 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이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갈 거예요. 질문지 다 가지고 계시죠? 그에 앞서서 저희 지금 담당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 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랑 오늘 좌담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영호** :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바쁘신 시간일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여러 정책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우리나라 건축이랑 도시 환경 이런 것을 어떻게 바뀌어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건축 공간 연구원에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고령 친화 정책연구센터장 맡고 있는 고영호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연구하는 여러 주제 중에서 하나인 게 지금 치매 어르신들에게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사는 집 아까 고순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동네 환경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뀌어야 어떻게 좀 좋게 바뀌어서 치매 어르신들이 조금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시기를 최대한 좀 지연 시켜보자. 그래서 최대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어르신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치매 어르신들도 다 느끼시고 이거를 표현하고 이게 조금 능력이 조금 저하 되어 있는 상황이지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도 계속 높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또 돌보는 가족들이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하니까 이 가족 분들도 같이 삶의 질을 좀 올릴 수 있는 집 안의 환경과 집 밖의 환경을 조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저희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도시 지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의 치매 어르신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돌봄 가족분들 대상,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치매 어르신들 돌봄 가족분들 대상, 그 다음에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과 돌봄 가족분들을 많이 접하시는 지금 실무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은 물리적인 생활환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겠나 라고 평소에 느끼셨거나 대화하면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로 정리하고.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의성군 선생님께서는 제가 얼굴이 낫아 익은 게 얼마 전에 우리 치매안심 마을 우수 공모 사업 했던 거 그때 실제 발표하셨었잖아요?

**강정희** : 네. 맞습니다.

**고영호** : 그때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지부 치매 정책과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치매안심 마을 사업을 치매안심 센터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그 업무 매뉴얼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매안심 마을이라고 해놓고는 사실 딱히 뭔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는 게 없다는 거를 복지부에서도 한계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가지고 이

참에 이 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치매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치매안심 마을이라는 게 좀 더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거고, 하지만 이미 저도 치매안심센터가 기존에 보건소 역할에서 조금 더 특화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까지 치매안심센터의 담당으로 주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그거는 지자체의 건축과나 아니면 도시과나 그런 개발과의 업무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치매안심센터의 일이 더 원활하고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협업 방안을 제시할 거거든요. 그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이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업무를 계속 여쭙보고 요청 사항을 여쭙보고 해서 업무와 관련 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저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도 좀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많이 만나시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요청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업무에 해당 되지 않는 거라도 친화적인 치매친화 생활 환경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저희가 자택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돌봄 지원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커싱이 물리적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택에 계신 분들이 요양을 하고 계시는 때 어떤 지원 요청 사항,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못 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선** :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여러 개인데 대충 묶어서 사실 주로 요청하는 거는 지금 기저구나 조호 물품 패드나 이런 물품 확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주는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기저기 늘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 낸 거 혹시 보셨나요?

**사회자** : 네.

**조인선** : 저도 치매안심마을에서 집 내외의 개선이 과제로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 환자 내지는 고령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에 있는데 문고리라든지 커튼 시계 달력 이런 거를 저는 패키지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자** : 물품 관련 되어서?

**조인선** : 네.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공짜로 줄 필요 없어요.

**사회자** :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조인선** : 네. 그런데 이런 가이드북도 서울 인지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도 이게 비매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 서울시에서 개발하면서, 사실은 비매품으로 만들어도 패키지로 만들거나 또는 시공업체 이런 업체를 좀 장려해서 사실 문고리 우리가 사서 줄 수 있어요. 문고리를 내가 바꿔주는 것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게 집에서 필요한 거는 사실 받은 게 조호 물품뿐이라서 조호 물품을 저는 많이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밖에 배회를 막기 위한 커튼이라든지 전자시계, 날짜가 잘 보이는 달력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내지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전문적인 업체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회자** : 좋네요.

**조인선** : 한 가지만 그리고 저희가 요양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 내지는 기저귀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하체 힘이 부족하니까 사실 내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하체 힘이 부족하니까 내지는 앉아가 힘들니까 기저귀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침대 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 도르레를 집 천장에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우리가 허리에 묶고 화장실까지 연결이 되면 어르신이 스스로 기저귀를 쓰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묶어서 풀었다가 다시 꼈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주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저귀, 사실 수치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이 인간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 기저귀를 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저귀를 줄 게 아니라 일정 비용을 받고 어르신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사회 전체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강정희 님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으신지?

**강정희** : 지금 일단 자택 요양 치매 어르신 돌봄 지원 관련 질문이라서 일단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아까 사례 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치매 보듬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저희 치매보듬 마을 사업으로는 치매 보듬 센터를 운영해서 마을 내에 첩거 중인 제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나가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좌담회가 건축 공간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좌담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관련 해가

지고 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치매 환자 집 꾸미기라고 해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 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패를 달아드리어서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치매 어르신들은 쉽게 물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에 안심 수납함을 만들어서 잊어버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지역 사회 자원 연계해가지고 경찰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한 사업으로는 유모차 및 전동차에 반사 스티커를 제공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밤에 야간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와 연계해서는 가정용 소화기를 지급해서 일상생활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관해서 업무 하시는데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거 요청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주요 요청사항들이 있을까요?

**강정희** : 그런데 보호자 분들의 주요 요청 사항으로는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에서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 해가지고 교구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자** : 김미미 님?

**김미미** : 저희 쪽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 분들이 좀 요청을 주셔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안전바라든지 가스 차단기, 센서 등 문종 이런 거 다 배부를 해드렸어요. 문종 같은 경우에 배회 어르신들을 두고 있는 가족 분들이 되게 활용도 높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피드백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치매 환자 분들한테 미끄럼 방지 스티커라든지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어쨌든 화장실에서의 낙상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자** :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은 어떤 거의 일환으로 진행된 건가요?

**김미미** : 치매 환자 가족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 같다, 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의견을 듣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사회자** : 우리 청주시에서 진행한 건가요?

**김미미** : 저희 상당 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에서.

**사회자** :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았나요?

**김미미** : 저희는 다 반응이 좋았는데 생각보다 센서등이랑 문종이 저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필요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자** :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 구비해서 제공을 해 주신

건 거죠?

**김미미** : 네. 안전바나 가스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가게랑 맺어가지고 그 쪽에서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회자** : 그것도 무료인가요?

**김미미** : 네. 저희 쪽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자** : 고순천 님, 어떤 자택 요양 관련 되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요청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고순천** :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해마다 치매안심마을 위주로 해서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고, 올해 5호 치매안심마을 해가지고 5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 업무 보고 할 때 최근에 의원께서 치매안심마을을 지침에는 두개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분께서는 각 읍, 면에서 어디 면은 치매안심마을이 있고 어디 면은 왜 치매안심마을을 주지 않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번에 공모 확산 사업 그걸로 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우선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읍, 면에다 지금 마을을 우선순위로 해서 3개 마을씩 추천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치매 환자나 노인 인구 수나 이런 접근성 관련해가지고 선정하게끔 공문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읍, 면에 하나씩 하고 나면 치매안심 마을에 예산이 자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안전바를 작년에 하려다가 그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한 3년 차 했나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출입구 쪽에 바닥에 매트 설치하는 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또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복지 그 쪽에서 안전바를 좀 하는 게 있어서 의뢰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쪽에 좀 요청을 하고 읍, 면에서 또 사회공헌 활동 할 때 대상으로 명단을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전바 같은 것은 조금 어디어디 부위에 안전바를 할 수 있는 기본 사이즈를 복지부 쪽에서 지침에 넣어가지고 안전바는 지원을 해줄 시기적인 도래 기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고령화 되고 저희도 지금 40% 정도 거의 다 노인 인구가 비율이 가거든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인데 정말 가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힘든 시기를 노력했던 어르신들 나이 연령인데 안전바만 있어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침에 힘들지만 그것도 조호 물품을 어떤 관계를 이거 이거 8가지에서 10가지 그것도 코로나 때 물티슈나 이런 거 추가 된 거 몇 가지 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조호 물품도 1년 차상위나 저소득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주지만 처음 제공하고 1년간만 주고 나면 다른 대상자들은 배부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계속 되는 서

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조호 물품 확대를 좀 요청을 항상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번에 자산 취득을 절대 안 되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서 노인들은 대체 뭘 하고 놀지 그런 말을 한 게 언급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해피 테이블이라고 다행히 4명에서 6명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콘텐츠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산 취득을 군비로 요청을 해서 두 대 사가지고 한 대 치매안심센터 하고 한 대는 노인복지관에 준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조달 구매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해요. 집 밖으로 나가서 놀기 어려우니까 경로당 안에 어떤 경로당에 당구대를 미니 당구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폼 잡으면서 큐대를 잡을 때 뒤로도 하고 팔이 뒤로 제껴지기도 하고 앞으로만 쓰던 근육들이 좀 사용하게 되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서 자라를 하셔서 일단 그거 한번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오면 그거는 좀 더 확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기하고,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집 안에서 여건은 복지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집 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문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장애 열린 관광지 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사회자** : 그건 다음 질문에서 또 들어가는데.

**고순천**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 말씀하신 것처럼 자택 내에서도 계속 자택에서 계속 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 자택 내에서 놀이까지도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도 자택에서 요양한다 라고 했을 때 치매 어르신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 환경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이야기 해 주신 거는 패스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공간을 생각해 보면 주택, 내부와 공용 공간이 있을 수 있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현관 그리고 부엌 주방, 화장실, 욕실, 침실, 거실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택 공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중앙 현관 이렇게 거주하면서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물리적 생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어한다 평소에 들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순천** : 여기 나온 선생님들이 다 젊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공감하는 게 제가 제일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요양원에 계셔서 광주에서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엄마를 시골에 모셔봐야겠구나. 요양원에서 벗어나서 하는 생각으로 시골에다 전원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거기에서 생활하

면서 어떤 게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겠구나 하는 것을 옆에 어르신들과  
고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무장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  
어요. 그래서 진짜 치매 어르신들이 2018년인가 우리 치매안심센터  
개소 할 때 무슨 평가에서 우리 함평이 그 평가를 우수한 평가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군수님이 선진지 견학을 가게 해줘 가지고 일본 선진지  
견학을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을 때 느낌  
이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개념이 치매 친화적 환경이라는 개념이 치매  
안심마을 지금 현재 치매안심마을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 환경은 정말 화려하고 좀 세련  
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고 생활 공간도 조금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공간을 상당히 여백을 많이 주고 이렇게 휠체  
어 비에프 관련해서 휠체어 운영 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  
씀하신 출입구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옛날 지어진  
집을 리모델링해서 현관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의 어르신들  
현관을 다 가봤더니 다 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제가 60, 70, 80이 되면 이 현관도 더 커야 될 거 같고  
현관도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리고 옛날 전통 가옥  
은 화장실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썩 들어가 있고 높낮이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욕실도 어르신들은 목욕탕 목욕을 하길 원하는데  
간소화 되다 보니까 샤워장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욕조를  
했거든요. 엄마를 하려고, 그래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욕조가 없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 시설로 배치를 해 주고 이런  
전체적인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던 매뉴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  
체에 모든 안 모든 젊은 자식들이 볼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센터 업무와 무관해도 평소에 들었던 이  
야기 있을까요? 자택에서 이런 환경이 조성이 필요할 거 같다. 강정희 님?

**강정희:** 환경은 앞에서 다 이야기해 주신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환경하  
고는 상관 없는데 저희 의성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보듬마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독거 치매 어르신하고 집에 가족이 계시지만 일상생활하기 어  
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반찬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서 온기 나눔 한끼 밀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 보듬 마을 치매  
어르신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총 20명 정도 주 1회 시행하고 있습  
니다. 지금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불편  
함을 겪어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미:**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농촌이 복합된 지역이거든요. 그

런데 도시 쪽이랑은 다르게 농촌 쪽으로 가면 집들이 조금 올라와 있잖  
아요. 지대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고 내리실 때 낙상 사고  
가 빈번히 일어나세요. 그런 부분에서 돌계단이라든지 이렇게 슬라이  
드 이렇게 된 그런 걸 설치를 해드리면 어르신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 있을 거 같아요.

**조인선:** 아까 함평군에서 말씀 주셨는데 무장애 건축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사실 무장애 건축 표본 같은 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자료를 토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내지는 업체가 좀 활성화 되면 좋겠  
다는 생각 굉장히 지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런 게 업체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도 분명히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 되고 그리고 만약  
에 위탁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업체를 조금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  
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조성해서 활용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들 풀을 센터에서 가이드 해 줄 수 있겠네요?

**조인선:** 네.

**사회자:** 말씀해 주신 거 관련 되어서 혹시 센터의 지원 업무랑 금방 말  
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런 것들이 뭔가 모델링 되면 센터에서 가이드 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정  
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  
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조인선:** 네. 사실 자료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인지 건강 주거 환  
경을 기초로 해서 어르신들이 스티커북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사판 내  
지는 어르신들이 문이 닫히면 못 찾으시니까 티, 바지 이런 스티커를 제  
작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게 개인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지  
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소모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애  
하는 시간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나눠드렸더  
니 저희가 대행을 맡기잖아요. 인쇄 업체에, 그런데 디자인을 해 준 업체  
죠. 그 업체가 다른 시군에 제가 만든 걸 뿌렸더라고요. '이거 제작하세  
요' 그런데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이 한다기 보다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주면 구입할 수 있게, 뭐든지 공짜로 할 필요 없거든  
요.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패키지나 책  
자 그러니까 사실 자료가 없다라기 보다 이거를 현실화 되지 않았다. 그  
러니까 문헌으로 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저도 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  
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지금 물리적 생활 환경 개선과 연결해서 센터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이 혹시 있는 부분 있을까요? 다 이야기 해주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앞에서 좀 이야기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집 밖에 대해서 여쭙볼게요.

지금까지는 센터 내에서 그리고 자택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나 돌봄 가족이랑 같이 집 밖에서 외부 활동을 하는 거 관련 되어서 여쭙볼게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집 밖에서의 외부 활동 관련 되어서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고 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인선** :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오는 내용이 이동 지원 요청이 많아요. 하다 못해 병원 갈 때만이라도 그런데 저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침에 그런 내용 없거든요. 지침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못 따라가요, 저희가. 그런데 지침이 없는 내용까지 요청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실제로 현재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와상이 되면 택시를 못 타세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많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시각장애인 협회나 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 치매는 장애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 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거든요. 가격 현실화해서, 공짜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인프라만 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 밖에 치매 어르신이 사실 집 밖에 잘 못 나가게 하잖아요, 보호자가. 왜냐? 실종 되면 실족사가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 단체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르신이 집 밖에 나갔다는 걸 깨닫고 어르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배회할 때 그때 사실 30분 안 짝이면 마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어르신 실종 신고 문자를 보내주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없어졌을 때 마을 주민들에게 문자를 오늘 인상착의나 간단히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제가 할 수는 있죠. 마을 분들 전화번호 수집해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뿌려진다면 이렇게 하면 30분 안에 내지는 1시간 안에 우리가 어르신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정희** : 저희 의성군 치매안심 센터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지원, 차량 지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고, 저희는 군하고 연계해서 행복택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고 또 치매안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운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필요 요청하시면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 밖에서의 치매 어르신 돌봄과 외부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저희 치매안심센터 특히 우리 의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4개의 치매 보듬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치매보듬마을 5개의 주요 사업 중에 저희 의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인지 건강 개선, 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위해서 각 공공기관에 프로그램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특화 사업 중에 하나로 마을에 방치된 폐 시설을 활용해서 각각 마을에 특히 탐리 2리 치매 보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옆에 버려진 폐가 터를 활용해서 우리마을 작은 미술관을 만들었고 삼산 1리 치매 보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는 방치된 폐창고를 활용해서 자두 꽃길 기억이음 미술관을 만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함평군에서 이번에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 됐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도 2022년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서 폐 시설을 활용하여 만든 미술관에 어르신들 치매 예방과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참석 할 수 있는 기업 고등학교를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중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아무래도 치매 어르신들이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 같아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치매 보듬 마을인 서부1리에는 저희가 폐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걷기 공간, 건강을 위한 걷기 공간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미** : 저희도 이제 시장님께서 먼 단위까지 다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청주시 상당구에만 7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안심마을이라는 거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다가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 인지가 되실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그런 데 왜가? '나 거기 가면 사람들이 치매라고 놀려' 이런 식으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분들이 낮 시간에 배회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회자** : 고순천 님, 집 밖에서의 어떤 주요 업무와 지원 요청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고순천** : 이게 작년엔가 우리 복지부에서 원에 치료를 이렇게 한번 해서 코로나 시점에 치유 기능을 돌보자 했는데 저희가 원에 치료를 하려고 계속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안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원에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집에서 상추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왜 또 여기서 심자고 하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치매안심마을에 안심센터에 갖다 놓고 어르신들 오시면 이렇게 상추 뜯어가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저희가 다 상추 뜯어 먹고 보건소에서 직원들 점심 식사할 때 제공하고 몇 번 했던 저기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술관 활용하는 공간 조성,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원에 치료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이거를 마을 다니면서 이사님들한테 저희가 말을 해요. 저희가 조성을 못하니깐 여기 좀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확산 공모 사업 일환으로 치매안심마을 화단 경관 조성 사업을 넣었어요. 일단은 인부인만 사가지고 한 6일 정도씩 각 구역의 읍, 면에 6일씩 해가지고 화단 정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우리 치매안심마을 할 때 입간판을 세우고 그 근처만 마을에서 스스로 화단을 정비하고 조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나서서 한번 해 보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첫 걸음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좋아지면 어르신들은 시샘이 많아요. 옆에 마을이 좀 예뻐지면 또 그 옆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배를 질러가지고 여기 마을은 깨끗한데 예쁜데 왜 여기는 못 하지 하면서 라이벌 의식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도 읍, 면장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결국은 하는 여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에서 하는 사업 간단 간단하게 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용인 선생님님이 말씀했던 치인구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뭘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그 지침에 맞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냥 매뉴얼로 이렇게 딱딱하게끔 한 번쯤은 정비할 시기가 된 거 같아요.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도 아까 자택처럼 집 밖에서 어떤 외부 활동 관련 되어서도 센터 업무와 무관해도 상관 없는 어떤 물리적 생활 환경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더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집 밖이라고 하면 동네의 보행 공간 예를 들어 보행로, 인도, 횡단보도, 공원 산책 같은 이런 보행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대중교통 시설 관련 되어서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아니면 그런 승하차 장소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리적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시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동네 슈퍼 편의점 식당 같은 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시설들이 조금 더 구성이 되면 치매 친화적인 어떤 환경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좀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 힘들어 하신다, 돌봄 가족이 이런 거 필요하시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 물리적 환경 개선 관련

되어서 조금 더 이야기 해 볼까요?

**고순천:** 저는 아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무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꾀했어요. 치매안심센터 할 때 비에프 인증 때문에 많이 고통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공간은 협소한데 저희 합평이 옆면적은 100평인데 50평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신건강 정신 치매 팀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정신 팀까지 2층 사무실에 같이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앉아 있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비에프 하면서 느끼게 무장애 쪽이 치매로 와야 될 거 같아서 그 동네에 가보면 제가 토목 직들하고 건축직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건축을 하나 짓더라도 좀 똑바로 지어야 된다고, 제가 면사무소에 총무 팀장으로 두 번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임에도 총무팀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장애 대해서 저기하고 경로당 개보수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복지팀에서 싫어하지만 같이 다니면서 검토하고 이견 아닌 거 같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 위원장님 설득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우리 치매도 교통 약자로 노인이 들어가서 무장애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하면서 우리 합평 엑스포 공원이 낮았이가 맞지를 않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걷기를 저녁에 많이 하세요 그 쪽에서, 그런데 걷기 하다가 발을 삐었다는 분들이 아주 조그만 낮았이인데도 많이 삐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으면 여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하던 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장애 열람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팀하고 시설직들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작년에 코로나 우울 대응 치유 정원 해가지고 무장애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관광지수가 6등급 플러스더라고요 합평이, 6등급까지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40점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났어요. 그래서 관광공사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지역 관광지수는 의미 없다 계획을 필요로 한 지자체에 좀 줄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관광지수 점수를 30점을 떼고 올해 신청을 했는데 3차 현장 서류 심사는 통과했고, 현장 답사를 온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다 하면 제일 처음에 코로나 뭘 우울 무장애 관광을 하나 그랬는데 이게 치매 어르신들하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움직이게 하고 걷고 그러고 싶어서 제가 우리 합평에도 한번 그런 공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설직들이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작년에 도와준다고 했었고 오래 되면 직접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치매도 치매 어르신 열린 무장애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좀 해서 시설비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안심마을이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토목직이나 시설직들이 아니 건축직들이 '아 이게 무장애를 위해서 마을 경로당도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사고가 확산이 되길 바래서 북

지부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인선**: 어르신들이 물론 본인이 과거에 기억했던 먼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 밖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내가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게 길이 헷갈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집마다 도로명 주소 표가 붙어 있는데 바닥에 내지는 전봇대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비슷하게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못 나서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주소판 붙인 것처럼 바닥에 이쪽 방향이 경로당 내지는 이쪽 방향이 슈퍼 이런 눈에 띄게 그렇게 만들어도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도로나 내지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안심센터가 아니라 아까 군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협조를 해줘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협조 어렵죠,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각 마을이나 거기에서 포인트를 바닥이나 전봇대에 붙여서 어르신들이 길을 조금 더 찾기 쉽게,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강정희**: 저희는 일단은 마을에서 외부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은 마을을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심리적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마을 벽화 사업을 이렇게 조성을 했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 벤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일이 없어서 무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화단,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일거리로 꽃을 키울 수 있는 화단, 화분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사회자**: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서 뭐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 라든지 이런 사례나 아니면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거는 좀 어떤 것들 때문인가요?

**조인선**: 저는 치매 어르신은 아니시고요. 옛날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노인 일자리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 어르신들이 1000명에서 1500명, 이 사이였었는데 격년에 한 분씩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야 밤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사회자**: 없어도 밖에 다니다가 만약에?

**조인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 뒤꿈치에 붙이는 반사판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안 예뻐서 그런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뉴발란스 운동화 보시면 반사판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얘기를 신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외부에서 사고, 저는 교통사고가 가장 안타까웠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미미**: 저는 지금 질문이랑 이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싶은데 저는 경로당 환경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다 2층으로 지어놨는데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도 정말 높아요, 한 칸 한 칸이. 그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자**: 혹시 말씀해 주신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과 연결 되어서 좀 우리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어떤 개선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저희 의성군에서는 아까 전에 배회 치매 어르신에 대상으로 저희는 실종 예방이나 실종 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발 안심하라 해서 신발 안쪽에 우리 어르신 성함이랑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해서 만약에 실종 됐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지품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가방에 가방 끈 안쪽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서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실종 치매 노인을 위한 실종 제로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김미미 님 혹시 우리 센터와 좀 지원 업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김미미**: 이런 좋은 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진행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침 이외의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회자**: 개개인의 어떤 의지 보다는 뭔가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조인선 님?

**조인선**: 저는 이게 사실 열정 넘치게 일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드북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치매안심센터 256개가 있고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잖아요, 생활환경 개선이. 그런데 제가 열정 스티커북 만들어 보고 반사판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일단 제가 가진 지식이 조금 짧고 그리고 예쁘지 않아서인지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사실 퀄리티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가격도 소량 천부는 소량이더라고요. 제작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게 판매를 좀 해주면 다 쓸 텐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스티커 북 제가 서우시에 이거 좀 보고 쓰겠습니다. 공문 보내고 팽택시에 공문 보내고 해서 만들었더니 업체가 그걸 가지고 다른 대구 광역시에 이제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내가 고생은 다 했는데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부,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 연구를 토대로 이거를 판매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그게 제가 개인이 만드는 것 보다 훨씬 퀄리티와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런 거를 조금 공짜로 해 줄 필요 없어요. 팔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관련 되어서 치매 환자 관련 되어서나 또는 노인 관련 되어서 물품 관련된 것들을 뭐가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나요? 어떠세요?

**조인선**: 없죠.

**사회자**: 그냥 다 알아알음하시나요?

**고순천**: 네.

**조인선**: 지역 업체에 맡기는 건데.

**고영호**: 그런 거 없어요.

**조인선**: 그래서 전문 업체를 육성하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사실, 집 안 환경 개선하는 전문 업체 내지는.

**사회자**: 많은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그렇죠?

**조인선**: 그거를 꼭 공짜로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실비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기초 수급이나 차상위를 구분해서 무료로 줘도 되는데 저는 너무 무료로 줬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주는 거의 문제점이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 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싶는데 내가 이거에 참여하고 싶는데 학원은 내 돈 주고 가면 되는데 학원도 없잖아요.

**사회자**: 치매 관련된 환자들이 꼭 차상위 계층한테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인선**: 네. 그래서 비용을 받더라도 조금 퀄리티 있는 업체나 교재나 패키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요즘 노인들도 어쨌든 인식이 높아졌으니까 뭐가 환자에 대한 어떤 코리표라든지 치매에 대한 코리표가 붙은 뭐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양들을 하시니까.

다음 섹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치매안심 서비스 지원 관련 되어서 좀 어려움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질문지를 드렸으니까 답변도 준비를 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어려움 관련 되어서 정리하고 기타 부분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어떤 집이나 외부 환경의 어떤 미흡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런 치매안심 서비스 지원이 조금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조인선**: 저는 지금 안심 마을에서 인지저하 어르신들만 별도로 모집을 해서 10분 중에 8분이 인지저하 어르신인데 사실 이거를, 사실은

인지저하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1년 2년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실 실제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사람에게 오랜 기간 이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물론 교재 가지고 자원봉사자 붙여서 1:1로 재밌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집에 가면 못해요. 우리 애기들 엄마 아빠가 애기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만큼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도와주지 못 하잖아요. 하다 못해 일주일에 세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나 학원이 있으면 그렇게 다니시면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사회자**: 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

**조인선**: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길어야 3개월 짧으면 한 달 이 게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나 이런 생각 저는 듣거든요. 진짜 꾸준히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순천**: 결국은 최근에 우리 간역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우리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그리고 기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부모를 부양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요양보호사를 저희 선배가 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족 요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땀인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국가가 책임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좀 치매에 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도 저분이 치매하는데 치매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외국처럼 조금 가정간호 사업소나 이런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진료소 보다는 조금 조금 마을을 쪼개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직원들 하나 하나를 쫓으면 그러다 보면 장로 면허인 간호사들도 조금 보람을 우리 간호사들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간호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좀 적게 받아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처럼 그냥 아침에 일찍 가서 그 분이 기저질환 있는 거 체크 해 주고 좋아지는 상태 이야기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정이 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족과 상의를 하고, 그러기 전에 나라에서 조금 생활환경 개선을 치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개선을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까지는 나라에서 하고, 실내는 가족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을 해가지고 해 주고 직접 방문을 받고 거기서 생활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렬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위해서 하는 추진 사항이 아닌 것은 좀 국민들이 알고 좀 필요한 부분은 마음을 열어서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노령화 되는 시기가 많지 않거

든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심의를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3만 조금 넘는 이 함평군 안에서 요양 등급 신청하는 건수가 7,800건은 돼요. 그런데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심의를 해서 심의를 넘기는 데도 등급을 받게 해내는데도 계속 그런 대상자가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치매 환자 수하고 지금 치매 환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지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정책적인 것도 조금 많이 건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해요.

**사회자** : 마지막 질문이 아닌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강정희 님 집이나 집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이런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 안심 지원센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강정희** : 저도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이게 사실은 집 외부 환경에 미흡으로 서비스가 효과를.

**사회자** : 집이랑?

**강정희** : 효과를 이렇게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인력이나 예산만 있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는 가족들의 치매에 대한 편견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어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으로 서비스를 못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미미** : 저희는 안전바랑 가스 차단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사실 집이 자가가 아닌신 분들 집에는 설치 해도 굉장히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거 같아요.

**사회자** : 나중에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원치 않으면 해체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김미미** : 네.

**사회자** : 지금까지 이 질문 두 개가 좀 어렵기는 한데 기타 질문 위에 부분, 마지막 질문으로 치매와 친화 생활 환경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센터 내에 이런 서비스들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치매 친화 생활 환경 관련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면 우리 안심센터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 같다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조인선 님?

**조인선** : 저는 이 질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해가지고 저는 치매 친화 환경 생활 환경 사실 이게 아직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표준도 없고, 앞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데 실체가 아직 없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치매안심 마을이 많이 지정 되면.

**사회자** : 눈에 보이게?

**조인선** : 왜냐하면 인지 저하 어르신들이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른데 그나마 우리 마을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전에 전화해서 나오세요 아니면 옆에 친한 다른 어른한테 전화 드려서 나오세요.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치매 물론 담당자도 불러줘야 돼요. 혼자 10개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치매 친화 환경은 모르겠으나 치매안심 마을만 지정이 되어도 인지자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이 센터까지 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렸든 참여도가 높고 우리가 헛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렸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나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지정만 많이 되어도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희**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먼저 이게 치매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어르신 개개인 생활 환경을 파악해서 맞춤형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치매 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지역 자원과 연계한 방문 서비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역 자원이라 하면 경찰서, 소방서, 각 지역 면 단위 면사무소 보건복지팀하고 등 연계해서 같이 한 조가 되어서 방문해서 그 어르신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례 관리팀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례 관리팀은 어르신의 심리적이나 신체적 환경 위주로 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아서 따로 방문 서비스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예산 편성이 추가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나 이렇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추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등급에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치매가 진단이 되면 이게 저절로 치매 관련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연계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치매 관련 등급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장기 요양 등급별로 치매 환자들은 인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 되어서 생활환경 지금 현재로는 전동차라든지 이동 변기, 보행기, 전동 침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나 대역해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안전바라든지 미끄럼 방지 패드 여러 가지 문턱 같은 거 없애는

그런 환경 조성은 아직 제공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추가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생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미** : 저도 입소나 입원을 좀 지연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사실 경로당 환경 개선이 되어서 치매안심 마을이 늘어나는 게 가장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례로 저희 마을 중 한 곳에서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저희는 치매 환자랑 일반인이랑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사람 치매니까 이 사람 오면 나 프로그램 안 할 거야 이러다가도 치매가 꼭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계속 인식 개선 교육을 하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이 그 치매 어르신이 안 오거나 이러면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시간 뵈다 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로당이 개선 되어서 더 많은 치매안심 반이 늘어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자** : 고순천 님 혹시 아까 앞에서 얘기 다 해주셨나요?

**고순천** : 지금 저희 치매 정책과가 노인 파트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책 사업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복지 업무하고 연계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확연하게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연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노인 정책 안에서 치매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경로당 개선, 시설 개선 할 때 우리 치매안심센터 읍, 면 담당 직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에 또 간호직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어디가 먼저 필요한가, 열악한가도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최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연계 의뢰를 자주 해라. 그리고 연계 의뢰 공문만 딱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같이 얼굴 보고 고생한다고 하고 홍보물이라도 이렇게 들고 가서 그 마을에서 또 홍보하면서 직원들도 홍보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안심 버스가 쏠라티 조그마한 걸 공모 사업으로 받았어요. 작년에 정신에서, 그래서 그 차를 같이 우리 정신팀하고 가서 치매 검진도 하고 이상 행동 증상이 있는 경우 정신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치매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같이 뜨거든요. 위기 대응할 때도 같이 협의해서 어느 팀이 가고, 같이 가야 될 상황은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엔 정신 치매 등을 분리할 해야 됴도 업무 추진하는 건 같이 있으니까 연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읍, 면에서도 그런 연계들이 좀 되고 시설 개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정부에 가장 바라고 싶은 게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 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돌봄 경감을 위해서 털어낼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우리 직원들도 교육만 열심히 하지, 힐링 프로그램 별로 없거든요. 정신 쪽은 힐링 프로그램 많이 가요. 그런데 치매는 의외로 힐링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런 평가하고도 이렇게 기념 행

사도 이제까지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애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고순천 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치매 친화 생활 환경의 조성이란 그리고 치매안심 서비스가 좀 적극 연계 되어서 좀 지역의 치매 어르신이란 돌봄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국가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거는 어떤 거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강정희** : 저는 아까 전에 기타 질문 사항에 첫 번째가 국가적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다입니다.

**고순천** :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가적으로 치매 파트너하고 파트너 플러스 양성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많이 되거든요. 치매 파트너 플러스를 좀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 대안으로 해서 좀 더 이게 국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 포인트를 좀 주는 방안 다른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인식을 바꾸는데 조금 포인트를 좀 더 과감하게 줄 수 있어서 어떤 메리트 받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균형 직원들한테 교육을 저기 신규 오면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는 동영상 보고 간단한 화면이지만 많이 공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익 광고로 자주 이번에 현수 씨 동영상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쉐린지도 좀 하고 우리 정신은 동영상 쉐린이 많습니다. 우리 치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참여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해서 보상도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사회자** :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는 어떤 것들일까요?

**조인선** : 저는 일단 의성군에서 얘기 해 주신 자기 요양 등급 절차 간소화 이것도 생활 환경에 해정 절차 간소화 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서간의 협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나서서 행정 절차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도 아이들처럼 기능 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간 보호 센터인데 그런데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 심어줄 수 있는 아까 함평군에서 말씀하셨던 광고 만화 이런 거를 컨텐츠를 조금 제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간 보호 센터 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내 건강 위해서 가는 게 당연하다 인식이 확산 되면 좋겠습니다.

**김미미** : 저도 앞에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치매가 표면 상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드러나고 치매 라는 게 숨겨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노출 되면 좋겠어요.

**사회자:**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잘 준비 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즐겁게 진행 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조인선:** 없습니다.

**사회자:** 코로나 이후에 환경 인지 정도에 따라서 경도 인지나 경증이나 중증이나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요인으로 치매 친화생활 환경이라

든지 서비스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다 얘기 해 주셨나요 늦은 시간까지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연구원님과 관계자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듣고 간다고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많이 도움 되었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 그룹 좌담회 녹취록

### ① 비도시지역(영동군) 거주 돌봄가족 그룹

**사회자:** 이런 모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가족2:** 몇 년 되었죠.

**가족1:** 사람이 많이 죽고 안 나오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가족3:** 지들이 나오서 가지고 다 틀리잖아요. 면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헤어지지 말고 식사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자 해서 자조 모임이라는 명칭을 두고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사람이 연세들이 많으니까 못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지금 치매 환자들 돌보미 하시는 분들하고 가족 분들하고 지금 교육 받아요. 10시부터 12시, 1반, 2반 나눠서 10명씩 그 회원을 저희들한테 흡수를 시키려고 해요.

**사회자:** 그 얘기는 이거랑 관련이 조금 없어서 제가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따가 필요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 진행하는 게 치매친화 생활환경입니다. 치매 돌봄 가족도 계시고 치매 증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고 집과 요양시설 들어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편안하게 제공 해 줄까 하는 의도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간단하게 각각 어르신들 치매 돌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그렇거든요. 다 가정 내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돌봄을 하고 계세요?

**가족1:** 저는 제 식구가 7년 동안 하다가 집에서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보미가 오죠. 오면 하루 2시간 이래 하다가 돌보미 보내면 같이 등산도 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게 중대에서 약을 갖다 먹는데 좋

아졌다고 하는데도 자꾸 안 좋아져요. 헛소리를 하고 또 내 돈이 있는데 '당신이 훔쳐갔지' 이라고, '아니 안 훔쳐갔어. 내가 돈 줄게.' 돈을 주면 어디다가 놓은 지 모르고 자꾸 돈은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한 2년 지나니까 아주 안 좋아져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들이 동창회를 왔는데 밤 12시 넘어서 초저녁에는 얘기도 잘 하고 하는데 12시만 넘으면 동창회 간다고 어디 간다고 옷을 입어요. 밤인데 어디를 가나 하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있는 것도 안 보인다고 와서 안 보이나.

**사회자:** 중증 치매로 몇 년 정도를 돌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1:** 집에서 3년 데리고 있다가 요양원을 보내서 소대변도 싸지 내가 치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양사를 쓰면 낮에 오지 밤에는 안 오거든. 그러다가 요양원에 한 2년 있다가 영동 요양 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보내는데 거기서는 꼼짝도 못 하게 하다가 지난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딱 한 달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못 나오고 가족 모지가 있는데 거기로 아들 딸들이 안 된다고 아버지 안 돼요. 화장해 가지고 공원에 모신다고 해요. 상의한 결과나 혼자만 가족 모지에 해달라고 하는데 아들 딸 다 안 된다고 해서 충남 가 가지고 화장해서 충북 공원에다가 모셨어요.

**사회자:** 다른 분들도 말씀 들어 봐야 하는데 혹시 지금 돌봄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가족2:** 할아버지 치매 기간이 서울 아산병원 가서 수술을 세 번 했어요. 79살에 수술해서 그 전부터 치매기가 있어서 그때까지 제가 오줌 똥을 받아냈어요. 오줌 똥 받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쉬지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집 앞에 나오면 복숭아 밭이 있어서 복숭아를 나는 따지를 않아요, 자꾸 다 걸어나요 그리고 나를 자꾸 때리려

하고 이러니 결국은 작년 6월 15일 날 요양원에 데려다 왔어요. 도저히 내가 5년을 오줌 똥 받았는데 더 못 하겠더라고요.

**사회자** : 제가 과정이나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 드리고 한 분 한 분씩 돌봄 기간들이 궁금해서 다들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환자 분들이 전부 다 중증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보이네요. 초가나 이런 게 아니고 상태가 중증으로 넘어가 있는 그래서 요양원도 생각하고 계셨던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가족3** : 저는 경증이라고, 제가 운동을 어려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마취를 세 번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복식을 10여년 했는데 연습 과정도 맞아야 하고 할 적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알츠하이머인가 이런 것이 올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사회자** : 잠시만 그러면 돌봄이 아니라 아버님이?

**가족3** : 집사람이 돌봐 줬죠 나를.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나 지금도 제가 또 작년에 뇌경색이 또 와 가지고 두 달 간 서울에 가서 입원 해 있었고 뒷바라지를 이 사람이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까 하여간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사회자** : 혹시 아버님은 돌봄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가족 분, 얼마 정도 돌봐 주셨어요?

**가족1** : 몸 아픈 지가 오래 되었어?

**사회자** : 꽤 오랫동안 지금?

**가족1** : 아주머니 살아있어?

**가족4** : 응.

**가족1** : 몇 년 되었어?

**가족4** : 한 20년 됐어.

**사회자** : 아주머님이 전에도 아프셨다가 치매도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가족4** : 허리도 이래요.

**사회자** : 어머님이 치매를 걸리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가족1** : 치매로 앓은 지가 몇 년 되었냐고?

**가족4** : 치매로 그런지가 수술하고 바로 그랬어.

**가족1** : 한 10년 되었어?

**가족4** : 10년도 넘었어.

**가족5** : 저는 식구가 3,4년 전서부터 자꾸 영똥한 소리를 하고 안 한 말을 하고 그래요 사람 의심하고, 그래서 약을 사서 타다 먹었는데 요새 점점 더 한 거 같아요. 금방 해 놓고 안 했다고 하고 어제 저녁 꿈에 돈을 2만원 잃어 버려 갖고 누가 훔쳐가서 그거 찾느라고 애 먹었다 하고 영똥한 짓을 자꾸 해요. 헤꼬지 같은 거는 안 하는데 금방 했다가도 몰라 자꾸 하는데, 약을 먹어도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사회자** : 초기에는 발견하시고 나서 어떤 치료라든가?

**가족5** : 치료 같은 거는 없고 약을 계속 치매 약이요.

**사회자** : 센터에 방문하신다거나?

**가족5** : 센터에 여기는 방문해서 보내는 거죠 몰랐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이예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나이나 많으면 모르는 나이도 이제 80도 안 되었는데 오늘 아침도 그래요. 어디 간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디 갔어 영똥한 소리 자꾸 안 했다 하고.

**사회자** : 그런 증상 보이시는 거 같아요. 내용을 하루 종일 일과를 여쭙 보고 싶어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어떻게 기상해서 몇 시에 기상하시고 오전에 어떤 일을 하시고 오후에 어떤 일을 하시고 시간 대 별로 확인하고 싶거든요. 대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가더라?

**가족2** :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씩 운동해요. 운동하고 월요일, 수요일 복지관에 다니고 활동하고 놀러 가요 집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서.

**사회자** : 밖에 활동하신다 라는 거는 어떤 활동이요?

**가족2** : 자꾸 돌아다녀 집에 안 있고.

**사회자** : 걷는 거 산책 하시는 거예요?

**가족2** : 네. 혼자 있으니까 식사를 못 하겠어요. 원래 입이 짧은데다가.

**사회자** : 어머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가족2** : 회관에 사람이 없으니까 회관도 안 가고 자꾸 갈 데 있으면 자꾸 돌아다녀요.

**사회자** : 아버님은 아침에?

**가족2** : 아버님은 2년 다니다가 집에서 출퇴근 아침 저녁에 그래 다니다가 결국에는 내가 못 모셔 가지고.

**사회자** : 지금은 계시니까 조금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가 있는 시간이 되시는 거죠?

**가족2** : 정신이 자꾸 깜빡 깜빡 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사회자** : 아버님이셨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제실 때에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가족2** : 할아버지가 74살부터는 본인이 똥을 싸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변은 계속 싸요. 그래 가지고 서울 아산병원 가서 수술 세 번 하고 5년 오줌 똥 받아냈어요.

**사회자** : 그냥 댁에서만 계속 계셨던 거네요. 하루 중에 운동을 시킨다거나 산책을 한다든지?

**가족2** : 운동은 주방 왔다 갔다 하고 3년 그래 다니다가 결국에 저기 보냈죠.

**사회자** : 다른 분은 어떠세요 아버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가족1** : 저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8시 반에 밥을 먹고 그리고 식구 데리고 같이 산책 다니다가.

**사회자** : 오전부터 운동 하시는 거예요?

**가족1** : 네. 그런데 낮에 싸돌아 다니면 감기가 자주 걸려요. 그런데 오후에 보건소나 교회, 저는 교회 다닌 지 2년 되었는데 사람 도우미가 와서 같이 따라 해요 못 하게 해도. 한 시간 요양사가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요. 잘 지내요. 그러다가 비 오고 이러면 나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이래요. 그러면 '오늘 된장이 먹고 싶네.' 이러면 내가 2층에 가서 내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갔다 오니까 없어요. 경로당에 가도 없고 경로당에 가서 잘 있으면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다 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 소장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도 신고하고 그래서 4시경에 나간 사람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또 안 받아요 어떨 때는. 밤 그때 9시가 다 되었는데 계속 내가 핸드폰을 해요. 그러면 '나 여기 있어.' 그래요. '여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얘기하냐고 화를 내요. 그래서 '큰 건물이 있어요. 물은 있어요.' 하니까 물은 있고 다리가 있다. 그래서 파출소 직원들하고 우리 경로당 회원들하고 찾았는데 저 밑에 다리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방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사회자** : 그런 일이 자주 있으셨어요?

**가족1** : '왜 여기 와 있어.' 이러니까 '이 가시나들이 놀러 가자고 해 놓고 여기 앉아 있어.' 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잘 자요. 그 이틀 날 아침에는 또 '오늘 이놈의 가시나가 데리러 안 와.' 해서 아직 시간이 안 되었어요. 시간이 아직 안 되었어. 그런데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아침마가 와서 밥을 해서 먹으면 밥은 잘 먹어요. 그런데 그 아침마가 오면 이 자식이 나를.

**사회자** : 식사 준비는 아버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가족1** : 네.

**사회자** : 외부에서 오셔서 준비 해 주시는 거는 전혀 없으시지요?

**가족1** : 네. 요양사 와서 나오면 요양사 밥 좀 같이 먹자고 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같이 먹고 나오는데 내가 경로당에 가서 있다가 오고 이러는데, 경로당에 있다가 어쩔 때 혼자 나가면 또 찾고 찾고 굉장히 애를 먹어요.

**사회자** :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들 마을 내에서 산책하시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족5** : 네. 저도 안 움직이려고 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들에 나가서 하라고 살살 꼬시죠. 그러면 자기도 나와서 하는 거지. 안 하려고 하고 밥도 있어도 둘이 먹으니까 제가 얼른 밥 좀 먹게.

**사회자** : 아버님이 직접 음식을 다 준비 하시는 거예요?

**가족5** :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식구한테 자꾸 만들게 만들어요. 가서 해서 먹고 조금 먹다 보면 나가야 하면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버려둬요.

**사회자** : 그거를 지금 어머님께서 음식을 준비 하신다 라는 거예요?

**가족5** : 네. 제가 일부러 하게 만들어요. 가만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저거 할까봐. 말도 시키고 놀러 가자고 하고, 가끔 하자고 하고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제 앞으로 점점 더 하는 거 같아요. 될 수가 있으면 운동을 시키려고요.

**사회자** :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족5** : 아침에는 10시까지도 자요. 제가 6시나 되면 빨리 일어나, 밥해, 제가 흔들어서 깨워서 움직여서 활동하게 만들어요. 제가.

**사회자** : 그게 주중에 매일 거의 똑같은 생활이 반복 되시는 거예요?

**가족5** : 네. 그렇죠.

**사회자** : 외부 활동은 없으세요?

**가족5** : 외부 활동은 가끔 가다가 복지관에 나와서 요가인가 그거 데리고 나와서 하고.

**사회자** : 대부분 지금 아버님도 거의 어머님 돌봄에만 시간을 보내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 거죠?

**가족5** : 내 개인 시간도 있죠. 볼 일이 있으면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요.

**사회자** : 모시고 다니고?

**가족5** : 네.

**사회자** : 어떻게 하세요 같이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가족6** : 아직까지는 크게 저기 안 하나까 차츰 차츰 좋아져요 이 양반은.

**사회자** : 초기에 지금 그걸 발견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죠?

**가족3** : 제가.

**가족6** : 그런데 자꾸 정신이 없대요.

**가족3** : 코로나 오면서 제가 처음에는 청주에서 충청북도 실버 예술 단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산이니 진천이니 음성이니 다니려면 아침에 서둘러서 미리 의복까지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년을 다니니까. 그리고 단장이라는 사람이 또 영동병원이면 영동병원 위문공연 갔으면 끝나고 나면 50만원을 준다든지 30만원을 준다든지 하는데 거기서 떼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꼴을 못 봐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결과 보고를 1년이 되었으면 하든지, 아니면 각 군에서 모여서 자원봉사인데 이것도 머리 맞춰서 식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듬 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지러움도 있고, 내가 청주까지 오려면 영동에서 새벽밥 전달부터 의복 챙겨놔야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못 나오겠다.' 그랬더니 제가 나온 후에 전화 해 봤더니 다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노인 병원에 한 달에 6번씩 당원을 단원들 3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을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해요. 색소폰도 못 불어요 노래도 못 해요.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마음도 중심도 전부다 내려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리고 그런데 제가 운동으로 단련된 체질이라 극복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일을 밖을 못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회자** : 다 회복은 되셨어요? 건강, 힘든 분도 계셔 가지고?

**가족3** : 네. 그래서 그 뒤에 20일 경과 후에 제가 공설 운동장 들어가서 말고 사람 없는 데로 운동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자꾸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병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울증 전 단계라고 제가 느껴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가족6** : 안 나가요. 나가라 해도.

**사회자** : 지금 치매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활동을?

**가족6** : 많이 했죠.

**가족3** : 가만히 있지를 못 했죠.

**사회자** : 요즘에는 시간 대별로 어떻게?

**가족3** : 제가 보통 초저녁 잠이 많은데 새벽 잠이 없어요. 2시 3시면 깨요. 잠 못 자면 TV 보죠, TV 보고 그러다가 살짝 자거나 보통 5시 전에 일어나서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복지 회관이 없었으면 아마 저 큰 병에 걸렸을 거예요.

**사회자** : 거기 나가서?

**가족3** : 여기 나오면 지금 저거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으로 그림을 색칠 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엮는 거를 한다든지 복지 회관도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을 위한 교육이 여기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자** :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회복 된다는 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가족3** : 그렇죠. 여기 나와야 하나까 오늘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내일 화목 있어요. 저기서 목요일 날은 1시부터 1시간 있고요.

**사회자** : 아버님은 경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 하셨잖아요. 다른 아버님들이나 어머님은 그런 생각을 못 해 보신 거죠 그때는?

**가족2** : 그럼요.

**사회자** : 그냥 진행 되는 거 그렇게 쪽 오고 계신 거죠? 아니면 여기 나오셔서 프로그램 참여 하고 이런 적은 있으세요?

**가족2** : 모르겠어요. 일하느라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사회자** :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 여기 나와서 프로그램 해서 뭐 만들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옆에서 자꾸 가르쳐주지만 하다 말고 몰라 가지고.

**사회자** : 이거 때문에 좋아지지 않지만 지연 시켜주니까?

- 그러다가 내 옷 버려요. 그러면 욕을 하고.

**사회자** : 많이 힘들셨네요?

- 치매는 약 바르지 모르겠어요.

- 본 정신이 아니니까 이렇지.

**사회자** : 활동들을 하시면 개선 되는 거 같으세요 지연 되는 거 같으세요?

**가족5:** 저희 식구도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전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가족2:** 본인이 노력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지 시켜 가지고 안 돼요. 본인 의지가 강한 거지.

**사회자:**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이 다 단독주택이세요?

**가족3:** 단독이에요.

**사회자:** 마당이 조금 있는 단독주택이신 거죠?

**가족3:** 네.

**사회자:** 그러면 집안에서 거동이 조금 힘들어지시잖아요 환자 분들이. 어떤 행동들이 가장 어려우세요 집안에서 밖에 말고?

**가족1:** 저는 식구가 돌아간지 한 달 되었지만 그 전에도 신경 많이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지 지금은 나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싫어가지고 일어나면 뭐 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처음에는 식구 요양원을 보내가지고 집에서 가두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집에서는 된장 끓여도 내가 끓여서 먹고 처음에는 제가 조금 했는데 1년 전부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아침은 우유 하나 먹고 점심 저녁 밥 조금 먹고 그랬는데 우유 먹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죠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사회자:** 환자 본인이 하실 때 힘들어 했던 활동들은 없으세요?

**가족1:** 간혹 가다가 이것도 나이라고 신경을 많이 써서 뭐 하다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또 말하자면 반찬 만들다가 어지러우면 가만 있다가.

**사회자:** 어지러움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가족1:** 네.

**가족5:** 저는 식구가 그런 거 하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 힘들어하고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해요.

**사회자:** 그게 치매로 인한 건지 연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5:** 치매기가 있는 거 같아요. 치매기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래도 '야 이거 사려면 아직 멀었는데.' 저 혼자 '이거 큰일 났네.' 싶고, 이제까지는 식구 덕분에 편하게 잘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가족2:** 요즘은 뭐든지 다 귀찮아요.

**사회자:** 치매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 하셨는지 화장

실 가는 거 혹은?

**가족2:** 나는 허리 수술을 두 번 해 가지고 힘들어요.

**사회자:** 돌봄 하시는 거 자체가 쉽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족2:**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 힘들어요.

**사회자:** 그때는 아버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고 같이 일어나서 가서 야 되는 건가요?

**가족2:** 혼자.

**사회자:** 혹시 그런 것도 궁금하고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싶은 게 아까 말씀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도록 일부터 움직이게 만들려고 준비 시키는 게 있지만 집안에서 보통 아침 식사를 하시고 화요일이나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센터 나와서 활동이 있으면 거기 참여도 하시고, 아니면 중간에 어디 주변에 돌아다닐 때 있으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님이나 어머니 잠깐 집에 단디 있어 하고 잠깐 불일이 있으면 나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갔다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버님 잠깐 된장 푸러 위층 올라갔다 오는 사이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잠깐 집 밖으로 나가 버리는 상황이 있고 그럴 때 생활에서 일단 지금은 집 안에서 만을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아버님이나 어머니 집안에서 씻으러 갈 때 그러면 혼자 씻는 거를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데 집에 화장실이 그런 게 너무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어 두는 데에서 신발 벗고 신는 것도 사실은 허리 굽혀 가지고 하는 게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집에서 가스 켜고 끄고 하는 것도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가스 분명히 잠근 거 같은데 안 잠근 거 같고, 냄비 분명히 불 끈 거 같은데 불 켜져 있어서 불 날뻔한 적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이야기 나눠봐주시면 어떨까?

**가족2:** 많이 싸우고, 이제 하루 나와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얼마 지나면 생각이 나고 점심을 먹고 살짝 누워서 자잖아요. 이게 저녁인가 아침인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가 귀찮아요. 뭐든 지 다.

**가족5:** 식구가 제가 자꾸 시켜요 일부러, 저는 방에서 잠깐 앉아서 TV를 본다거나 하면 켜 놓고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있으면 타는 뽀새가 나, 저기 가봐 뭐 했어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 날뻔도 하고 어떨 때에는 아찔할 때가 있는데 식구 더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애로점이고, 또 아프게 되니까 신발 신고 하려면 어떨 때에는 신겨 달라고 하고 제가 그

래요. 손 떨쭉한테 신겨 달래 자기가 신어야지 그러면서 안 신겨줘요  
일부러, 손 잡고 일으키래요. 어디 허리가 부러졌어 잡아 줘 하고 식구  
가 성질 내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가스불이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  
니예요.

**가족1** : 집에 와서 가스불이.

**가족5** : 가스불 깜빡하고.

**가족3** : 그 문제는 내가 집사람이 갑상선을 7년간 앓았어요. 그리고 나  
서는 정신이 아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비 이런 거 태우는 거는  
부지기수이고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한 번은 하여간 그 위  
에 서랍장이라고 그게 탈 뻔 했어요. 아주 냄비가 빨간 거예요 깜짝  
놀래서 쫓아가서 끄고.

**사회자** : 제일 무서운 게 화재에 대한 위험?

**가족3** :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가스 차  
단기를 해 줘.

**가족5** : 정신이 있으면 가스 차단기를 본인이 하는데.

**가족3** : 자동으로 하나야.

**가족5** : 자동도 본인이 있어야.

**가족3** : 20분 넘어가면 자동 가스 나가요.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읍사무소 가서 난  
리를 쳤죠.

**사회자** :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3** : 신청을 했는데 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선이 파이프로 거기에 테어  
야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한 거라서 고무줄로 호수로 되어 있으니 그  
시설을 해 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설을 해 주더라고요. 해 줬는데.

**가족6** : 5만원 줬잖아.

**가족3** : 5만원 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줬는  
데 어느 날 전화 왔더라고요. '아버님들 자택에 가스 차단기 해 드리겠  
습니다.' 해서 그러냐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그걸 참 해줬는데. 20  
분 넘어가면 자동으로 잠가져요.

**가족5** : 저는 그런 정신이 있고 그런 저거 있으면 태우지 않아요. 그런  
데 그런 정신도 없잖아요. 틀어 놓고 나가버리니까.

**가족3** : 이게 틀어 놔잖아 정신이 없잖아 20분 지나면 자동 잠가준다니까.

**가족5** : 20분만 쓰게 만들어 놓고?

**가족3** : 켜 놓고 내가 나갔어, 몰라. 20분 경과 하면 잠가진다니까 자동

으로.

**사회자** : 아버지 그거를 이름이 가스안전록이라고 해요. 가스안전록이  
라고 하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많이 보급 사업 하는데 아직 필요한데 만  
큼 다 보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시지만 약간 깜빡 깜빡하실 때가 있잖아요?

**가족3** : 많죠.

**가족6** :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자** :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님을 볼 때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  
다.' 싶을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혹시 집 안에서 아버지 생  
활하시는 거 보다가 '저러다가 넘어지지', '저러다가 다치지' 그런 것  
들 있으세요?

**가족6** : 어지러워서 자꾸 조심을 많이 해요 어지러워서, 자고 일어나도  
어지럽다 하고 뭐 하다가 어지럽다고 하고 조심스럽죠.

**사회자** : 집에 잡을만한 게 있나요 집 안쪽에?

**가족6** : 그런 거는 없죠.

**사회자** : 화장실 가실 때에는 어떠세요 화장실에서 불편을 느끼고 계  
세요?

**가족3** :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뇌경색 약을 아침에 6알을 먹고  
오후에 2알을 먹는데 그 약에서 의사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뇌경  
색 처음에 왔을 적에 느꼈을 때처럼 약간 어지러움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다른 거는 못 해요. 전에는 걷는 거 헬  
스까지 2시간 반 정도 했었는데 이 운동 중독이 되어서 제가 지금은 많  
이 하면 표가 나요. 어지러움이 오고 과로 현상이 어지러움이 오는 걸  
로 시작이 되는 거 같아요.

**사회자** : 오히려 너무 많이 해서?

**가족3** :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그렇고 서울 신경과 박사한테 가서  
뇌 촬영을 했거든요. 특히 체질이래요. 제가 그래서 뜨거운 데서도 안  
되고 추운 데서도 안 되고 절대 운동 많이 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는 아  
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체육관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헬스 옛날  
에 하던 있어서 거기 안 가고 집 위에 법원이 있거든요. 법원 위에 걸어  
서 이 밑으로 해서 학교 뒤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지러우면 집에서 쉬죠.

**가족6** : 이 양반은 스트레스가 운동을 반대로 못 해서 받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자** : 아버지 집에서 힘들어서 쉴 때 예전에는 내가 안 이랬는데 이

게 진짜 치매가 조금 오기는 왔나 보다 할 때가 좀 있으실까요?

**가족3** : 그거를 제가 느껴요.

**사회자** : 그게 어떨 때 그래요?

**가족3** : 우울할 때, 내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좌절감이 들고.

**사회자** : 그러면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내가 사는 집이,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나이가 있어 가지고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치매가 걸린 안사람이나 바깥양반이랑 같이 사는 이 집이 이렇게 좀 바뀌면 저사람이 안전하지, 좀 편하지 이렇게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집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거 말씀이 있으실까요?

**가족5** :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방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려고 하면 문턱이 있고 그런데 식구가 어떤 때에는 잘 넘어져요.

**사회자** : 낙상을 많이?

**가족5** :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사회자** : 어머님은 아버님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퐁 오쭈 5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하고 같이 생활하실 때 우리 집에 저런 거 좀 고쳐 놓으면 저 양반 저렇게 덜 고생하지 아니면 내가 저 양반 돌보느라고 내가 고생인데?

**가족2** :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 지은지가 올해로 42년 되었는데 앞에 다 고쳤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없어요. 화장실이고 뭐고 불편한 거는 없어요.

**사회자** : 어머님이 20년 정도 치매 계속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면 안사람 이렇게 살기 좀 편할텐데 집안에서 지내기 좋을텐데 그런 거 좀 있을까요?

- 집에 아주머니가 같이 있잖아. 그런데 집에 계단을 올라가든 방에 불편한 거 이거는 이래하면 좋겠다 그걸 말 해 달라고.

**가족4** :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짓을 하고, 못하게 하면 성을 내고 자꾸 싸우고 다투죠.

**가족1** : 우리는 그 전에 집이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가 불편해서 다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저거를 하니까 또 그게 아내가 요양원에 가게 되어서 다 고쳐 놓고 요양원에 갔어요.

**사회자** : 그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가족1** : 식구가 계단 올라가다가 많이 넘어졌어요.

**사회자** : 그걸로 인해서 많이 병원도 다니시고요?

**가족1** : 네.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많이 넘어져서 요양원에 가기 전에 집을 고쳤어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갔어요.

**사회자** : 집안에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치매 걸린 집사람이나 바깥 양반도 위험하지만 나도 위험 할 수 있는 게 집안에 뾰족하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는 건데 치매가 오면 이렇게 자꾸 자기를 다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집안에 뾰족한 거를 치운다든지 뾰족한 부분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가족1** : 그 전에 문턱이 나뻐는데 그거 자꾸 넘어지면 지금도 넘어지고 다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요양원에 가게 된 게. 거기 문턱 같은 게 나빠요 나쁘기는.

**가족3** :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단이 5계단인데 마당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양쪽에 손잡이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지금. 있고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도 집 지은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방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지금 다들 그래요.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뒤통 방바닥이라도 짚어야 일어나고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노인들이 지금. 제가 경로당에 가서 그런 문제는 천장에다가 무슨 끈을 달아 놓고 잡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가까워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단에 손잡이는 제가 양쪽에 만들면 되니까 그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사회자**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머님은 집 지은지 40 몇 년 되었다고?

**가족2** : 42년 되었는데 집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없어요.

**사회자** : 42년 되었고, 어머님 집 지은지 30년 된 거예요? 집이 몇 년 되었어요?

**가족5** : 80년도에 지었어요.

**사회자** : 지금 40년 정도 된 거고, 아버님은 집 언제 지으셨어요?

**가족4** : 남이 지은 집 살죠. 오래 되었지 옛날 집이라.

- 다른 집이 지어 가지고.

**사회자** : 그 집이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들어가 있는 집이 몇 년 되셨는지?

**가족4** : 17년.

**사회자** : 새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던 집?

**가족4** : 살던 집을 샀지, 옛날 흙집이에요.

**사회자** : 아버님은 집 몇 년 되셨어요. 집 지은지?

**가족1** : 40년 넘는데 리모델링 다 했어요. 그래서 불편한 거 없어요. 그 안에 화장실 다 넣고 그 전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고친지가 20년 가까이 돼요.

**사회자** : 아버님은 40년 전에 집을 지어서 20년 정도 지나서 리모델링 한번 하신 거고, 리모델링 한지도 20년 지난 거네요?

**가족1** : 네.

**사회자** : 어머님도 40년 전에 집을 짓고 리모델링은 언제 하셨어요?

**가족2** : 18년 되었어요.

**사회자** : 집 안쪽 말고 집 밖으로 생각해 볼게요. 집 밖에서 외출하실 때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집안 쪽 말고 집 밖에서 어디 나가기 어려웠다가 혹시 밖에 나가실 때는 어디까지 가세요. 그거부터 여쭙 볼게요. 어디까지?

**가족1** : 저는 푹방 50미터에 푹방이 있어서 40분간 걷다가 들어와요. 지금 들어가서 10시경에 나가서.

**사회자** : 마을인 거죠 마을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죠. 밖에 어디 나가신다는?

**가족1** : 푹방이 좋아요.

**사회자** : 어디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5** : 저도 식구가 마을에 있고 차를 태우고 전주 친척 집을 가끔 바람을 쐬어줘요.

**사회자** : 자차로 가시는 거예요?

**가족5** : 그러면 좋다고 하고 기다려요 또 가야 돼, 여기 나온다고 하니 까 나도 가야지. 가는데 아니야 남자들만 하신대. 그래서 마을에서는 혼자 돌아다니는데 어쩔 때에는 제가 찾으러 나가고.

**사회자** : 지금 휴대폰이나 계속 연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받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가족5** : 받을 수 있는데 잘 안 받아요. 휴대폰도 할 줄 모른다고 안 갖고 나가요. 어쩔 때는 있으나마나.

**사회자** : 사람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 안 받으시니까?

**가족5** : 어디 나갔나 싶으면 집 근처에 거기 있어요. 떨리는 못 가고.

**사회자** : 주변에서 연락 주시는 거예요. 나가 보시는 거예요?

**가족5** : 제가 나가서 찾고 어떨 때에는 자기가 들어오고 전화 해도 영 안 받으니까 들어올 테지 하면 마을 주위에 있다가 들어오고.

**사회자** : 이런 경우도 있나요? 나가실 때 사람을 잃어 버릴 때 마을에서 방송 해 주신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가족5** : 그런 경우가 있죠.

**가족2** : 이장한테 얘기를 하면.

**가족1** :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 하는 거 달아 줬는데 그것도 자꾸 떼어 버려요. 그래서 못 찾을 때 많아요.

**사회자** : 집밖으로 나가셔서 배회 하신다고 하시는데 배회 하시다가 치매 오신 집사람이나 바깥 양반이 주로 어디에 계시던가요? 어디서 발견하게 되세요? 아까 아버님은 어머님이 다리 밑에서 있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집 밖에서 말 안 하고 나갔다가 발견 되는 장소가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가족5** : 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가면 10원짜리 그거 하면 재미 있다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떨 때는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전화를 가지고 가는데 어떨 때에는 그냥 놓고 와요 옆에다가 놓고 찾아 달라고 하는데.

**사회자** : 위치를 추적 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써 보셨어요?

**가족5** : 안 써 봤어요. 할 줄도 모르고.

**가족1** : 이전에는 잘 썼는데 그것도 자꾸 떼내서.

**가족5** :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면 놓고 와요. 찾으러 가야 하고 그 옆에다가 놓고 어디 갔지 전화를 걸어요.

**사회자** : 아버님하고 나가실 때 뭐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어떻게?

**가족2** : 처음에는 자꾸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디다 쳐 박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자** : 운전을 직접 하셨어요?

**가족2** : 네. 차를 팔았어요. 내가 병원에 가든지 하면 자꾸 성질을 내요 차 팔아 먹었다고 내 차를 내 마음대로 못 몰게 하고 팔았다 하면서 내가 끌고 나간다고 하고 애를 먹었어요.

**사회자** : 운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족2** : 사탕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사탕을 쥐서 애기 달래듯이 자꾸 달래고.

**가족5** : 저도 그랬어요. 식구가 운전 했거든요. 60대에 땀거든요 면허증을 그래서 제 차가 있으니까 그 놈을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고.

**사회자** : 사고 위험이 있겠네요?

**가족5** : 차 만지는데 차 만지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고 거짓말로 하니까 요새는 하려고 하지 않는데 사고도 두번 내버렸어요. 치매기가 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가족3** : 저는 차를 팔이 가지고 있어요. 팔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 이제 차 반납 하라고 가만히 있어봐 한달 정도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 꺾어 보고 차 반납 하든가 한다고.

**사회자** : 자식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가족3** : 제가 보건소를 가도 여기서 얼마 안 되지만 걸어오는 것 보다 운동은 운동이고 걷는 거를 운동에다 플러스를 제가 안 하거든요. 운동 시간을 별개로 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복잡하니까 차 가지고 가야 하고 아니면 시장 보러 가는데도 제가 사뭇 시장을 봐다 줬어요. 어려서부터 운동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번데기라든지,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게 단백질 보충하는 거를 제가 사다가 집사람한테 주면 다 해줘요. 그런 거 하다가 걸어서 제가 없을 때 식구한테 계란이 떨어졌는데 마트에 가서 그거 하나 들고 오는데 죽을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 봐 차가 있으니까 내가 금방 저녁이라도 나가서 사오고 하는데 차 반납하라고 해서 되느냐고 내가 안 갈 거니까 영동읍에만 끝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사회자** : 궁금하기는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로 이용하시거나?

**가족1, 2** : 버스로.

**가족5** : 여기까지 오려고 차 가지고 왔어요.

**가족3** : 차로.

**사회자** : 아버님, 어머님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나갈 때 계속 걸어만 다닐 수가 없고 운전을 조금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운전하세요? 그러면 아버님 모시고 집 밖을 나갈 때 같이 버스 타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걸 때는 어떤 게 불편했을까요?

**가족2** : 불편한 게 많죠 버스 타고 다니면.

**가족5** :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집 앞에서 서는 게 아니고 저

만치 있으니까 걸어가야 돼요.

**가족2** : 우리 할아버지는 걸음이 느려서 20분 걸어나가야 돼요 버스 타려면.

**사회자** : 어딘가 외출할 때 지원을 해 준다거나 봉고라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 혹시 있었나요?

**가족1** : 없어요.

**사회자** : 그런 것들 필요하셨던 건가요?

**가족1** : 그런 게 필요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요청 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2** : 되게 급하면 택시 불러서 나가고, 나가면 아는 사람이 만나서 데려다 주고 그래그래 생활을 했어요.

**가족3** :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제가 느낀 건데 멀리 가시는 분들이 택시가 천원 주면 행복 택시라고 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1** : 군에서 운영하는데.

**가족2** : 들어오는데 우리는 바깥 동네에 있고 안 동네고 택시가 들어가니까 못 타요. 안 동네에 사람이 타면 못 타요.

**사회자** : 보통 외출 하는 게 운동 말고 어떤 때 외출하시는 거예요?

**가족2** : 하는 거 없죠 텔레비나 침대 누워서 텔레비나 보고.

**사회자** :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 생전에 운동 하러 가자 데리고 나가는 게 있을 거 같고 같이 보건소나 병원이나 다니셨잖아요?

**가족1** :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지 혼자 못 가니까.

**사회자** :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병원에 갔어야 했나요?

**가족1** : 한 달에 두 번, 세 번 운동은 매일 시키고.

**사회자** : 그때마다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서 가신 거예요?

**가족1** : 시내 게 안 들어가려고 하면 택시 타고 들어가고 그래요 시내 갈 때.

**사회자** : 택시가 잘 잡히나요?

**가족1** : 택시는 기다리면 잡을 수 있어요.

**사회자** : 일단은 그런 거 자체가 불편하니까 나가는 거 자체가 꺼려지시겠네요. 불편하시니까 횡수를 줄이시고 오하려?

**사회자** : 운동 하러 나가실 때는 동네 공원이 되었든 돌아다니시는데 운동 같은 거는 치매라고 해서 특별한 운동이 따로 있나요?

**가족1** : 따로 없어요.

**가족3** :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음악 듣는 거 박수 치고 노래 하고 활동하는 거 가볍게 댄스 울동이 좀 적은 거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사회자** : 그런 거는 프로그램 같은 거고, 프로그램 말고 집 밖에 나가서 치매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돈다든지 뒷산에 갔다 온다든지 공원을 갔다 온다든지 할 때 잘 되어 있나요? 치매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

**가족1** :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이고 그래서 시설은 없어요. 길 따라서 눈 같은데 손 잡고 얘기도 하고 한 바퀴 돌아서 운동이죠 공원은 뭐예요. 시내 같은데 있지만 없습니다. 가면서 얘기도 하고.

**가족3** : 제가 느꼈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치매에 대한 거리가 뭐가 설치 되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거는 저는 그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운동은 꼭 필요한 걸로 봐요. 무슨 병이라든지 걷는 운동이 1순위다 첫째,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치매가 걸렸는데 때리려 하고 욕 안 하고 이런 거는 치매 중에서도 아주 양반 치매인데 손 잡고 조깅 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느껴요. 아니면 가면서 서로 손뼉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치매 환자를 데리고 다른 거 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나이에 순서가 없어요. 뇌졸중이나 뇌경색도 나이에 순서가 없고 치매도 지금 젊은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에 관해서는 여하튼 체력이 첫째예요. 그리고 정신.

**사회자** : 아까 밖에 나갈 때가 보통은 의료기관 병원에 간다거나 보건소 간다거나 불일을 보러 오시는데 아까 아버님께서서는 물건 찬거리 준비 하려고 시장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시장을 위해서 물건을 조달 할 때 가지고 집으로 들어올 때 시장을 보시는 경우는 없나요? 대부분 시장 안 보시나요?

**가족1** : 저는 일 있을 때 시장을 봐도 같이 가서 봐야죠. 혼자 내버려두고 가도 되고 또 식구 혼자 나가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자** : 시장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요?

**가족1** : 우리는 시장까지 1킬로.

**사회자** : 걸어서 아니면?

**가족1** : 걸어서 가죠.

**가족3** : 저희들 같은 경우 무주나 영도를 가야 하거든요. 최소한도 8킬로~20킬로 돼요 차로 못 기다리고 집에 차가 있으니까. 그 놈 타고 돌아와서 시장 가서 신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가족1** : 지금도 식구 죽고 나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집에 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위가 안 좋으니까 뭘 먹지 못 하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모자란다고 해요. 열흘 동안 있다가 나와서 집에서 운동 조금 하고 이러는데, 사위가 오더니 아버님 자꾸 운동 해야 된다 해서. 아래 집에 동네 아줌마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아줌마 이랬는데.

**사회자** : 먹는 것도 중요해서?

**가족1** : 밥맛이 없어요.

**사회자** : 집에서 재배할 수가 있지만 재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기류나 계란 그런 것들은 외부에서 조달 해야 영양도 공급이 될 거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가족1** : 네. 먹고 나면 토하기도 하고 어지러우면 토해요.

**사회자** : 그러면서 악화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족1** : 네.

**사회자** : 그러면 치매 어르신이 아버님이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집에서 같이 지내셨을 때 치매가 처음부터 어제까지는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이러시지는 않으셨을 거 같고,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셨을 거 같아요. 그러면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있다가 또 여쭙 볼건데 다른 분들에게도, 치매 분들이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가족2** : 그 전에는 회관에 남자들이 대어섯이 모여서 놀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사회자** : 치매이신 분들이 회관까지 아버님이 혼자 가시는 거예요?

**가족2** : 그때에는 70대이고 72살 그때쯤이라.

**사회자** : 회관 혼자 가서 하고 다시 집에도 잘 오시죠?

**가족2** : 네.

**사회자** :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매일 나가시나 봐요?

**가족2** : 술을 좋아해서 아침에 10시에 회관에 가면 저녁 6시 되어서 오면 하루 종일 술이 취해서 와요 안주도 찾아다 먹고 술을 좋아했어요.

**사회자** : 어머님 생전에 치매가 심하지 않으셨을 때?

**가족1** : 심하지 않았을 때는 복지관에 가서 요가도 하고 한문을 주로 많이 했죠.

**사회자** : 그런 거는 혼자 다니실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가족1:** 혼자 다녔어요.

**사회자:** 아버님 치매가 덜 했었을 때 어머니 치매가 덜 해서 혼자 다니셨을 때 밖에 나가서 다니는 거가 이런 게 불편해 그런 말은 안 하시던가요?

**가족2:** 처음에 집에 있을 때에는 자꾸 농약을 사다 놔요. 이상하게 농약 보따리가 있고, 농약 사러 오거든 할머니가 사갔다고 하고 절대 주지 말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농약사한테 그렇지만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농약방에 가져가서 할아버지가 와서 농약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고 부탁 했는데 왜 농약을 줬냐, 나는 이거를 반납하겠다 그래서 반납하고 이랬어요. 처음에는 농사 짓던 습관으로 농약을 자꾸 사오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시동 거는 거 그것도 멀쩡한데 돈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사회자:**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방 얘기를 하셨는데 농약방도 있을 수 있고 동네 슈퍼나 슈퍼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거 부탁하신 적이 있으세요? 주변 사람한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꾸 집 밖으로 혼자 나가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 말라든지, 보면 나한테 연락 줘요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가족2:** 그래 가지고 이웃집 하나 있는데 담배를 사다가 경운기 위에, 고추 말리는데 담배만 하나 빼면 또 있고 담배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한날은 담배 9갑 가지고 갔다고 식전에 6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담배를 9갑을 갖다가 피우는지 그거는 모르고 이번에 값이 준다. 앞으로는 한 갑을 주든 두 갑을 주든 주지 마라, 주면 내가 담배 값을 안 갚는다. 또 몇 일 있다가 담뱃값을 달래요 내가 담배 그만큼 부탁 했는데 왜 줬냐, 나는 담뱃값 못 준다 이러니까 감자라도 좀 줘 이리더라고요. 한동네에서 너무 야박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를 5킬로 4킬로 9킬로 끌고 다니는 걸로 줬어요.

**사회자:** 담뱃값으로?

**가족2:** 네. 담뱃값 안 주고 감자라도 달래요. 이제 앞으로 감자고 뭐고 국물도 없어 그래 되었어요.

**사회자:** 차 밖에 다니다가 차 사고 날 뻔 하신 적은 없으세요?

**가족5:** 몇 번 있어요.

**가족2:** 우리도 차 사고 몇 번 났어요.

**가족1:** 우리 식구도 오다가 겨울에 11월 달에 오다가 차에 받혀서 병원에 입원 한적이 있었어요. 치매가 약간 있어서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치매가 약간 있는데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게 좋아지지는 않고 자꾸 악화가 되더라고요. 옆에 아주머니하고 다녔는데 그날 혼자 가다가 여기에 건널목에서 차를 막아 가지고 다치기는 많이

다쳤어요. 그 날은 혼자 다니고 몇 번 했는데 데리고 주고 올 때 데리고 오고 그래요.

**가족3:**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다리 건너면 전혀 신호등도 없고 거기는 그냥 다니는 데인데 앞에 선생님들이 걸어갔는데 서넛이서 제가 출발해서 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내려서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확 오는데 중앙에 확 비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다가 박은 건데 툭 떨어졌더라고요. 앞에 가는 아줌마한테 119 불러 달라고 했는데 아가씨더라고요. 23살인가 27살 먹었다고 하는데 대천으로 가서 입원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제 사람들 걸어가는데 길 따라서 걸어 갔으면 안 박았을 건데, 아니면 내가 거기 서 있었더라면 안 박았을 건데.

**사회자:** 신호가 없었으니까 문제겠죠?

**가족3:**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된 건데 그 뒤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아들 딸들이 차 아버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강압적으로 제가 야단 쳐 버렸죠. 나 읊만 다닐 거야 시장 보러만 다니고 다른 데는 안 나갈 거야.

**사회자:** 사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고 내는 경우가 있고 차량은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인지가 떨어져서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아버님처럼 어떤 경우에 접촉 사고가 나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찌시다가?

**가족1:** 치매가 약간 있으면 건널목이 불이 들어왔잖아요. 저쪽에 차 온다고 안 건너고 있어요.

**사회자:** 건너 가야 하는데 거기 멈춰 버리시는 거네요?

**가족1:** 네.

**사회자:** 아버님은 어떨 때 사고가 났어요?

**가족5:** 식구가 났어요. 이게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사회자:** 그거를 혼동해서?

**가족5:** 네. 박아 가지고.

**사회자:** 사고 당하신 경험은 없으신 거죠 어머니께서?

**가족5:** 당한 적은 없죠. 요새 다니다 보면 차 타고 세워 놓고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에 지나갈 때 몸이 불편하니까 못 따라와요. 그러면 손잡고 한쪽으로 와. 그래도 안 돼요. 다치면 나만 손해니까 한쪽으로 피해서 잘 가 하면 대답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사회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약

간 치매 내가 정신이 없구나 내가 치매라고 하는구나 하는 게 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 되신 거예요?

**가족3** : 1년.

**사회자** : 지금은 경증도 아니고 경도 인지 장애 정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가족3** :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제가 그때에.

**가족6** : 판정 받으신지 몇 년 되었죠.

**가족3** : 약을 말하자면 약값이 3만 5천원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 달에.

**사회자** : 판정 받은 등급이 인지 지원 등급인가요 5등급인가요?

**가족3** : 그 등급은 모르겠어요.

**사회자** : 어머님께 궁금한 게 아버님하고 1년 전쯤부터 치매가 온 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이 기억 하시기에 최근 1년 남편 분이란 같이 외출했을 때 '아이런 부분 좀 위험하다.' 그런 거 좀 있었을까요?

**가족6** : 언제 정신이 좀 어떤 때는 저거 하나까 해 놓고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죠.

**사회자** : 어떤 거를 해 놓고 모른다고 할 때가 예를 들어서?

**가족6** : 본인이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할 때도 더러 있어요.

**가족1** : 제가 1년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사람이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왔을 때 자꾸 치매가 많이 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차츰차츰 많이 좋아졌어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랬어요. 지금 와서는 그때 비해서 좋아졌어요.

**가족3** :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거고 재활 치료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는 범위에 1/10 밖에 안 되는구나. 전기 찻질기 그거 20분 해 주고 자전거 타는 거 2.30분 하는 거 뿐이에요. 내가 하는 거 1/10도 안 돼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 같이 새벽에 잠 안 오니까 나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왼쪽 근육 풀리지 말라고 그거 자꾸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분 젊은 사람은 60대 후반인데 나아서 퇴원을 했어요. 커피 술 담배 피울 때 가서 석 달 만에 쓰러져서 들어왔어요. 다시,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재활 치료실에 가서 재활 하는 거 그것만 하지 휠체어 타고 다니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노인인 86세인데 제가 새벽에 나가서 운동 앉았다 일

어나는 거를 잡고서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간병인이 그만 뒤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느날 보니까 자기가 가서 앉는 거예요. 보조원 없이, 이야 확실히 틀리구나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형님 이제 20일만 잡고서 조금 더 앉아주면 근육이 더 빨리 생기니까 그러면 힘도 더 생긴다고 그렇게 하고서 밀고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어 하나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자** : 아버님은 잡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시는 운동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운동을 어디서 하세요?

**가족3** : 집에서 병원에서?

**사회자** :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거를 집안에서도 하시고 병원에서 하시고?

**가족6** :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가족3** : 수시로 하죠. 저는 담배도 전에는 큰 걸로 했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올리고, 내려갈 때 내리고 올라갈 때 올리고 그러면 상하체가 다 운동이 되는 거죠 거울 보고서 그렇게.

**가족6** : 수시로 해요.

**가족3** : 2.30번 앉았다 일어나면 허벅지 근육도 좀 생기는 그거를 느껴요. 제가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회자** : 좋네요. 얘기가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갈 건데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뭐냐 하면 병원에 가는 거 병원에 가셔도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만. 아까 어머님 생전에 그때 말씀하시다가 집으로 사람이 와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집으로 사람이 와서 서비스 조금 해 주고 그런 거를 받아 보셨나요?

**가족2** : 그런데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은 도움을 많이 받지 반찬도 해다 주고 이러는데 나는 영감은 저기가 있고 집에 혼자 있어도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사회자** : 서류 상으로 호적 상으로 혼자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2** : 내와가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사회자** : 어머님 지금 집에 누가 와서 도움받는 거 있으세요?

**가족6** : 없어요.

**사회자** : 이거 신청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1** : 요양사 신청하면.

**가족6** : 급수가 있네요.

**사회자**: 급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병원에 지금 입소 했지만 서류상으로 거주지가 같이 있으면 그거는 어렵게 되는. 그러면 집으로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한 서비스는 아마 아버님만 경험을 하신 거 같고, 병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런 거 있었다 싶었던 거나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자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축물 집이나 집 밖에 환경이나 이런 게 참 치매가 온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거 말씀 못 하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가족1**: 그런 것도 좋은데 다 치매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가족3**: 없어요.

**사회자**: 영동구 치매안심센터인데 치매안심센터 얘기 해 볼게요. 치매안심센터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나요 세 번?

**가족3**: 두 번.

**사회자**: 두 번 나오시면 뭐 하세요?

**가족1**: 좋아요 여기 나오면.

**사회자**: 여기 나오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아버님이 만드셨던 저런 것도 만들고 이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집에 치매 어르신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도 도움이 있나요?

**가족2**: 집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사회자**: 집에 대해서는 그렇고, 치매센터에서 어머니한테 아버님 지금 요양원 들어가셨지만 들어가기 전에도 센터 나오셨잖아요?

**가족2**: 전에 할아버지도 여기 많이 다녔죠.

**사회자**: 할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해도 껌딱껌 딱하시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요?

**가족2**: 생각이 안 나네요. 할아버지는 그 전에 차를 보내주더라고요 택시를.

**가족1**: 그 전에 택시를 보내줬어요. 우리도 타고 오고 갈 때도 택시 타고 가고.

**사회자**: 센터에 몇 시간 정도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가족1**: 3시간.

**가족2**: 아침에 8시에 차가 들어오면 점심 때 와요.

**사회자**: 점심을 집에서 여기서 밥을 주는 거 아니고요?

**사회자**: 3시간 그 정도 계시는 거네요.

**가족3**: 2,3시간.

**사회자**: 나오시는 게 좋으시죠?

**가족2**: 좋죠. 이래 나오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가족3**: 제가 봐도 영동 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드물어요. 복지회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보건 소장님께서 청주 가서 박수 갈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주 모임이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거를 우리끼리 모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동에는 이리이러해서 치매 돌보미 환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자주 모임을 잘 하고 있다 해가지고, 아주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저희들도 한결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가족1**: 대학교 상도 타고.

**가족3**: 맞아요. 저는 지금 부탁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여기 보건소에서 말하자면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많은 것도 중요한데 확실히 알고 오셨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는 거를?

**가족5**: 알죠.

**사회자**: 있어도 몰라가지고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게 다 알고 계셔서?

**가족1**: 몇 년 되었어요.

**사회자**: 그게 내가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옆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가족3**: 그런 것도 있고 저거를 걸어놓고 뭐라고 그래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언제부터 이런 게 있으니 접수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자**: 어느 때는 내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내가 필요할 때는 그게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이겠죠?

**가족3**: 그리고 본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꼭 필요해서 나 좀 불러달라 할 때 그렇게 해놓으면 직원들한테 이래 놓으면 그 직원이 전화를 해 주거나 이러죠.

**가족5**: 지들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멀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게 플랜카드 이거 쓴 거를 몰라도 못 하지만 또 지인을 통해서 뭐가 있다 터라 뭐 받으러 와라 이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사회자**: 그게 어떻게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파 되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가족5**: 노인들 치매에 대해서는 그건 없고 행사나 이런 게 부고 방송 그런 거죠. 이거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사회자**: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지? 어머니도 오시지만 처음에 우리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가족2**: 그냥 이장이 그런 거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회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치매를 초반부터 이렇게 막아서 뭔가 개선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아버님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셨지만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런 증상이 먼저 생길 때 좀 나서가지고 뭔가 알려주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족6**: 보건소에서 노인들 이렇게 치매 검사를 자주 해요. 내가 조금 안 좋으면 와서 얘기하면 또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또 알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모임이 있다 하면 참석하고 그렇죠.

**가족5**: 저도 여기 치매 센터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알아가지고 진단을 받았어요. 식구를 그래서 의뢰해 줘가지고 그 약을 어디서 먹으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거 갖다 약을 조제해서 먹어요.

**사회자**: 지금 센터 여기 오셨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서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자주 모임 말고 어떤 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시잖아요?

**가족1**: 저는 자주 모임 이거 밖에 없어요.

**가족2**: 나도 이거 있고 토요일마다 민주산에 운동하러 가고.

**가족3**: 저희는 이거 말고 민주산에 같이 가는데 제가 바쁠 때는 또 못 가고 몸이 안 좋으면 또 못 가고.

**사회자**: 민주치산?

**가족5**: 자연 휴양림. 영동군 자연 휴양림.

**가족3**: 거기 가서 말하자면 노인들 산책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만들기 하고.

**사회자**: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가족3**: 네.

**가족5**: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이달인가 8회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2**: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1시에 여기 나오면 버스 태워가지고 가서 거기 오고 가는 거리가 2시간 걸려요. 올 때 1시간 갈 때 한 시간 두 시간을 산책도 하고 거기서 족욕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사회자**: 좋네요?

**가족2**: 그런 거 하러 다니고.

**사회자**: 아버님은 지금 이거 말고 자주 모임 말고는 다른 거 이용하시는 거 없으세요?

**가족5**: 치유하는 모임은 여기는 없어요.

**사회자**: 거기는 안 가시는 거고요?

**가족5**: 치유하는 거 가죠 식구하고 같이, 그리고 복지관에 요가.

**사회자**: 여기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5**: 네.

**가족3**: 프로그램이 26가지예요. 지금 안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색소폰 안 하고 합창 안 하고 가요 안 하고 댄스 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올라하고.

**사회자**: 제일 하고 싶어했던 내용이 기억하고 계시는?

**가족6**: 이 양반이 좋아하는 것만 안 해요.

**가족3**: 이사람하고 선생님 댄스를 우리가 몇 년도요. 두 번 대구 실내 경기장에 가서 대상 받아오고 서울 코엑스 가서 대상 받아오고. 두 번이나 받아왔어요. 공연도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리가 골절되는 바람에.

**가족6**: 넘어져 가지고 대퇴골이 부러졌었어요. 그 뒤로 안 해요.

**사회자**: 쉽지 않았을 텐데 치유되는 게 시간이 좀 많아요?

**가족3**: 그래도 1년 만에 그 상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더니 젊은 사람하고 같이 대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갈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네.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낫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선생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일주일에 그때 한 번인가 몇 번 내가 갔었어. 이렇게 딱 보니까 부러진 데가 이렇게 도둑하니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웃거리게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나서니까 1년 만에 나서서 댄스 같이 했어요. 안 들 거니까 그거 떨어져가지고 우리 1년 만에 그렇게 그래 상골 먹었다 소리를 안 했지.

**가족6**: 운동도 내가 많이 했잖아.

**가족3**: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하던

그것이 무시할 수 없어 의사들은 절대 못 쓰게 하잖아.

**사회자:** 지금 서비스를 원래는 지금 받으시는 것들이 우리는 돌봄 가족이시잖아요. 우리 배우자 아버님이나 어머님 때문에 실제로 여기 센터에 오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가족3:**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돼. 이게 혼자 있다고 해도 여기 안 나오면 돼. 설 자리가 없어. 우리가 자꾸 건강을 유지하려면 움직이고 이런 데 같이 공동 생활도 같이 하나가고 해야지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돼.

**가족5:**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는 예방이, 예방을 하려고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식구를 장모님이 치매가 있었거든요. 치매가 유전 된다고 알고 미리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유전은 막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요새도 어떻게 하면 나도 치매 안 오려나.

**사회자:**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입소를 하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아버님께서 지금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데 처음부터 입소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가족3:** 그렇죠. 다들 경증이니까 집에서든 하려고 다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즐거움을 내가 가져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나 같은 경우에 좋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듣고 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것이 치매가 좀 더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자:** 그러면 약간 비판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증상이 더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오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거기를 지금 요양원이예요 아니면 요양병원이에요?

**가족2:** 요양원.

**사회자:** 요양원으로 가신 거죠. 거기는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된 거예요? 국가적 지원이 있는 건가요?

**가족2:** 처음에 여기에 다니다가 보건소 다니다가 내가 허리 수술을 두 번째 하나가 내가 몸을 못 쓰잖아요. 그러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다니다가 주간 보호 다녔어요. 3년 다녔어요. 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몸을.

**사회자:** 내가 돌봄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2:** 그래서 보냈어요. 작년 6월 15일 날 보냈어요.

**사회자:** 내가 내 몸도 힘들고 나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가족2:** 첫째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전기불 다 켜놓지 수돗물 다 틀어놓지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똥 오줌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회자:** 많이 고생하셨네요?

**가족2:** 먹는 대로 질질질질 나와요. 그런데로 옆구리가 똥을 하루에 열두 번씩 빼냈어요. 두 시간 만큼 내가 하루에 열두 번씩 그래가지고 녀 달을 빼냈는데 우리가 집이 1500평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감나무가 스무댓 개 돼요. 가을 되면 홍시가 떨어지잖아요. 홍시가 옆구리로 나오고 이래요. 2시간만 넘으면 그거 잡아 뜯어 가지고 하루 세탁기 4번, 5번 돌리니까 수도 검침하는 사람이 할머니 할머니 이게 수도가 어디 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빨래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빨래 압만 해도 한 달에 2만 나오는 집이 없다 수도관 샌다고, 내가 병원에 두 번씩 입원해도 영감은 내가 입원 했는지 몰라요.

**사회자:** 아버님께서서는 혹시 시설 입소에 대한 고민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5:** 아직까지는 안 하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방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힘이 감당이 안 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제가 같이 살았던 대로 같이 안 보내고 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사회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렇게 연계해 주는 데가 이 센터에서도 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2:** 공단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등급을 내든가 등급 내주고.

**사회자:** 보니까 지금 저도 지방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요양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가셨는지 싶어서?

**가족2:** 그러면 공단에서 알아서.

**가족5:** 제가 알기로는 이거 먼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일단 등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또, 그러가지고 거기서 받아주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2:** 그러가지고 공단에서 왔는데 대번에 등급을 2등급을 내줬더라고요. 그랬는데 비싸잖아요 병원비가 그래서 3등급이나 4등급을 주면 돈을 덜 내는데 2등급을 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가족5:** 돈 내는 것도 생활보호 대상자니 뭐니 틀려요. 거시기한 사람은 100% 다 내야 하고 차상위 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등급에 따라서 무료도 될 수 있고, 또 약간 낼 수도 있고 우리 같이 저거한 사람들은 100% 다 내야 되고.

**사회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집에서 사시는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집 바깥 활동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센터도 나오시고 그리고 돌봄하는 환경 그리고 앞으로까지 생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 분들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지금 등급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삶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

**가족3**: 제가 봤을 때는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요.

**사회자**: 어떤 식으로?

**가족3**: 금전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가족6**: 그것도 저저한 사람은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가족3**: 조금 살기 넉넉한 사람은 아무 것도 없어요.

**가족6**: 노인들 주는 것도 안 줘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가족3**: 저도 달마다 정부에서 주다가 여기 생활 저것이 시골이지만 넉넉하니까 그게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약값을 그 다음 달에 넣어줬었거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 ② 도시지역(아산시) 거주 돌봄가족 그룹

**사회자**: 집에서 생활하실 때 치매 어르신이 집 안에서 생활할 때에 있어서 집 안에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가 위험하더라. 그 다음에 또 집 밖에 나가서 치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치매 어르신이면 집 안에만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치매 어르신도 종종 이상 가면 나가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일부러 나가셔야 돼요. 오히려 나가야지 이게 경도에서 경증 증증으로 이 발전 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자꾸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자꾸 자연도 접하고, 걷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할 때 뭐가 문제더라.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접촉 사고가 난 거예요. 왜 냈냐 하면 파란 불인데 이게 빨간 불, 파란 불 이거에서 이거를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신이 조금 있을 때는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기다리고 이거인데 이거를 치매 어르신이 헷갈려가지고 한 발 디뎠다가 꺾 해가

**사회자**: 아버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 같은 거냐?

**가족2**: 지원은 치매 약 따로 나오는 거.

**가족6**: 아주 어려운 사람이나 저거 해 줄까요 조금 먹고 산다 하면 없어요 아무 것도.

**가족3**: 제가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6**: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2**: 기초 연금 타요.

**가족3**: 내가 낸 거니까 타죠.

**가족6**: 기초 연금 넣은 것만 받지 다른 거는 없어요. 국민연금이고 하나도 없어요.

**가족3**: 아무 것도 안 줘요.

**가족5**: 아무 것도 안 줘, 1원도 안 줘요.

**사회자**: 지금 좋은 내용 많이 말씀 해 주셔서 잘 참고해서 내용 잘 정리 해서 박사님께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가족5**: 약값 지원이라도 해 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한 가지 건의는 정부에서 약값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하다가 끊더라고요.

지고 접촉 사고 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오늘 녹음을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든 어르신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여쭙봤더니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좀 고쳐주자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정은희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 상황이실 거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1명이 치매가 아니라 곱하기 3, 4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 외할머니 여든아홉 외할머니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외할머니를 돌본다고 저희 어머니 출동하죠, 저희 어머니 동생들 출동하죠, 저도 출동하죠. 이러니까 이 치매 어르신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붙는 조금 그리고 실제로 돌봄을 아예 가족으로서 돌보고 계시는 분들은 생업을 포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 와서 요양보호자 와가지고 조금 돌봐주고 하는 것도 제가 등급 받았더라도 하루에 3, 4시간이

면 끝이야. 그런데 24시간 중에서 3, 4시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내 돈 주고 나도 숨 돌리자고 나도 사람도 만나고 아니면 나도 일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지만이라도 누가 좀 와서 봐달라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돈이 한 달에 얼마야 해, 그래서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느니 내가 있지 하는데 이거는 내가 치매를 돌보다가 내가 치매 걸리게 생겼고 저희 어머니 말씀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도 제 어머니랑 매일 통화하는데 어머니랑 따로 사는데 매일 통화하는데 나 오늘 갔다 왔다 하니까 너 그거 중요하다고 그거 잘 하라고 그래가지고 잔소리 그만하고 할머니 귀찮으시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를 여쭙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 다섯 분 말씀 주시는데 나 할 얘기 있어, 내 얘기 들어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중구난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사회자를 모셨어요. 이런 거를 좌담회 하는데 이걸 굉장히 잘 해 주시는 설준호 부장님.

**사회자** : 안녕하세요 설준호라고 합니다.

**사회자** : 그래서 오늘 약간의 말하는 규칙, 우리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는 게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하면 앞에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잠깐 기다린다, 잠깐 기다려준다. 그런 것만 조금 지켜주시면 어저께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 얘기하시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할아버지가 뭐라고, 뭐 이거 하시고 이거 하다가 또 말씀하기 또 좋아하시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내 말 좀 들어봐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연구가 정확하게는 이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물리 환경이라고 그러죠. 집 아니면 동네 환경 이런 거를 어떻게 치매 친화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겠느냐를 궁급해서 여쭙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해 봐 주시고 깊이 생각한단기 보다는 평소에 뭐였지, 저 양반이 '그래 집에서 저기서 넘어졌어.' 아니면 '집에서 저 양반이 엉뚱한 것을 저런 걸 가지고 했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게 좀 문제더라, 이런 걸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조금 말씀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주로 다루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또 우리 집 안에서의 내용부터 먼저 나오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다 아시는 분들일 수 있지만 채증자 우리 어머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그리고 치매 돌봄을 몇 년 정도 하셨는 지만 간단하게, 치매 어르신인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가족5** : 치매 지금 우리 아저씨 3년째.

**사회자** : 3년째 하셨어요. 혹시 지금 증상은 어느 정도세요?

**가족5** : 증상은 몸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사회자** : 가정 내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5** : 주간 보호센터 가서 모셔가고 그러거든요. 가정에서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소대변을 무진장 싸시는 양반이예요. 그걸 못 가리고 그냥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생활을 계속 나도 직장 다니다 반복하니까 진짜 무슨 삶에 진짜 뭐가 없어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혹시 이근희 어머니는 몇 년 정도 지금 돌봄하고 계시죠?

**가족4** : 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약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방 한 것을 잊는 거예요. 금방 세수 하고 나와서도 양치를 하고 나와서도 다시 도로 들어가.

**사회자** : 아버님이시죠?

**가족4** : 다시 들어가서 또 양치를 해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들어가, 왜 댁고 들어가 댁으러 들어간대.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회자** : 우리 외할머니도 막걸리를 계속 먹어요.

**가족4** : 다른 것들은 뭐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기 옛날 것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 것들을 금방 얘기를 해도 잊더라고요.

**사회자** : 잊어버리시죠. 그게 지금 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족4** : 한 1년 정도.

**사회자** :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4** : 네.

**사회자** : 그러면 아직은 지금 경도 인지 장애 정도?

**가족4** : 그렇죠.

**사회자** : 그 정도 받으신 거죠. 아예 초기?

**가족4** : 초기 조금 지난, 본인이 자기가 많이 그걸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집에 있으니까 감히더라고요. 맨날 움직이던 사람인데 그래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둘에서 그냥 마주 보고 이렇게 앉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4** :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갔죠.

**사회자** : 혹시 윤구희 어머니 지금 남편 분 계시는데 지금 몇 년 정도 치매를 앓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3** : 이 양반은 처음에 뇌경색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뇌종양 떼내고 여기 수술하고 지금 4년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양반이 옆에 있지만 치매라고 하면 화를 내요.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집에서 진짜 아까 화장실이 방향 감각을 몰라 갖고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진짜 문 다 이쪽 저쪽 열고 그러시고 우리는 농사꾼이니까 일을 이렇게 뭐를 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서부터 클 때 옛날에 산 다니고 놀러 다닐 때 그런 거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5일 날 벼 났는데 아들 둘이 다 했는데 그런 거를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애들이.

**사회자** : 최근의 기억들은 다 모르신다. 혹시 지금 그러면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병원에서 등급을 받으셨어요?

**가족3** : 네, 등급. 몇 등급이라는 걸 몰라도 그렇게.

**사회자** : 초기 단계 아까도 말씀 잘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가족3** : 얘기하는데 그냥 필요치 않은 얘기하시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햇살이 좋으면 자꾸 어디로 차 타고 나갔으면 해요.

**사회자** : 경증 정도 되시는 거네요. 지금 경증 아직은 중증은 아니신 거 같아요 초기?

**가족3** : 네. 이 양반 말만 따라 닦아 머리 감고 머리를 자주 감고.

**사회자** : 조금 이따가 집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혹시 정은희 님?

**가족2** :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운이 좋은 거지만 공단에서 오셨을 때 안 좋은 가장 안 좋을 때 오셔서 3등급 받고 계시고, 아버님이 한 분인데 네 분으로 알고 계시고 며느리도 외며느리인데 며느리가 넷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못 알아보시는 거 하고 새벽에 3시에 화장실 가신다고 다 그냥 욕실화 신고 런닝 입고 터미널에서 경찰에 잡혀서 경찰에서 인도해가지고 새벽 3시에 집에 오신 적도 있고. 집에서 그래서 저희는 안에서 자물쇠를 아파트인데 자물쇠를 걸었어요. 그래서 자물쇠 걸고 수시로 집에 가신다고 짐 싸시고.

**사회자** :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가족2** : 3년.

**사회자** : 댁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병원에서 진단을 아까 3등급이라고?

**가족2** : 병원에서 공단에서 와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또 어머니가 다른 질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광도 심하시고 당뇨도 심

하시고.

**사회자** : 그러면 경증은 아니고?

**사회자** : 3등급은 중증이죠.

**가족2** : 지금은 약간 괜찮아요.

**사회자** : 중증 치매라고 해야 되나.

**사회자** : 등급 대비 지금 몸은 좋은 상황이에요.

**가족2** : 조금 좋아지셨어요.

**사회자** : 등급을 높게 잘 받아서.

**가족2** : 그 날 굉장히 안 좋을 때 오셔서.

**사회자** : 그러면 최옥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몇 년 정도 돌봄을 하셨어요 4년?

**가족1** : 지금 4년 아니라 했수를 이 사람이 처음에 올 때는 등급 받은 거 생각도 않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2006년도에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져서 살았는데 2006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는 온양 딸 집에서 살고 자기는 지금 장재리 임대 아파트 16평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정년 퇴직을 말하자면 만 57세에 했어요. 58세가 못 되고 지금 76세이거든요. 만으로는 75세죠. 그랬는데 직장 그만두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왔죠. 나하고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성격이 내성적이예요. 우울증이 왔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퇴원했다 그 뒷바라지를 이혼해서도 내가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들이 없이 딸만 네 명이예요. 그런데 딸들이 다 직장 다니니까 엄마가 그래도 아빠를 엄마가 도와야지 어떻게 어디 시설로 어떻게 보내겠냐. 어찌냐. 엄마가 도우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5년 전에 합쳤어요. 내가 살림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지금 16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지금 장애 등급은 혹시?

**가족1** : 3등급.

**사회자** : 중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족1** : 처음에는 5등급 받았다가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 기간이 안 되어서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3등급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이 지금 8월 달인가 다시 재등급 받았어요 3등급으로.

**사회자** :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몇 년 된 거예요?

**가족1** :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2년씩. 2년씩인데 그게 기간이 처음에는 2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3년인가 기다렸는데 2년이 못 되어 갖

고 말하자면 3등급을 받아갖고 했죠.

**사회자** : 그러면 치매 증상 보이신 지는 10년 가까이 되신 건가요?

**가족1** : 우울증이 온지가.

**사회자** : 우울증은 그렇고.

**가족1** :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혼자 있었으니까 나도 잘 모르죠. 그런데 안 좋다고 우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깐 안 좋은 것을 알아 갖고 나 보고 도우라고 그래서 하다 하다 해 보니까 이제 나도 힘들어요. 말하자면, 이 생활비도 힘들고 그래서 작년에 74세에 요양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제가.

**사회자** :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 너무 많아.

**가족1** : 집에서 지금 태그를 찍고 있어요 3시간씩을, 그런데 주간보호를 처음에 이렇게 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두 달도 못, 하여튼 한 달 반인가만 다니고 두 달 것을 돈을 냈어요. 여기는 그랬는데 두 달 다니고 와서는 유치원생들 다니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수준이 안 맞아서 안 간대요.

**사회자** :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지금 돌봄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얼마나 되셨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이 계시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님 계시는데 하루 일과를 확인하고 싶어요. 오전에 뭐 하시고 오후에 뭐 하시고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돌봄 하시는 우리 가족도 계시고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은 하루 중에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채증자 어머니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가족5** : 저는 아침 8시 30분에 차가 와서 거기서 4시 50분쯤에 집으로 오세요.

**사회자** : 그래도 오래 계시네요?

**가족5** : 그렇게 8시간 근무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집에서는 저녁에 와서는 그냥 앉았다가 옛날 거는 다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지 우리 아저씨는 5등급 받았어요. 내년 5월 달에 등급이 또 나오는데 거기서 오셔도 이 기능이 치매가 소대변을 했는지 몰라도 소대변을 계속해서 싸시는 거예요.

**사회자** : 특별히 활동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가족5** : 걸어 다니는 거는 약간 다리가 저기 하니깐 걷어는 다녀요. 그런데도 담배는 보통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사회자** : 담배 아직 피우세요?

**가족5** : 네. 담배를 보통 피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담배 같은 거 못 먹게 하면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정 피우고 싶으면 어떻게 드려야지 어떻게, 그 정신만 있는 거예요.

**사회자** : 특별히 무슨 활동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신 거네요 지금? 특별히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신단가요?

**가족5** : 그런 운동은 제가 우리 집에서 400미터쯤 행주골로 걸어 다니는데 안 가요 자기 다리 아파서 못 간다고 그래서 어떤 데 내가 모시고 가지, 안 간다고 운동 해야 하는데 왜 안 가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사회자** : 식사는 어떻게 해요?

**가족5** : 식사는 조금씩 하시죠.

**사회자** : 지금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

**가족5** : 식사는 내가 아침에 드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쉬시니까.

**사회자** : 우리 아버님 나가 계시는 동안 돌봄 들어가는 동안 그 동안 뭐 하세요?

**가족5** : 저는 그 동안 우리 아저씨 빨래 같은 거 빨고 저도 또 일을 농사 지으니까요. 농사 짓고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콩도 짓고 깨도 심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회자** : 하루 일과가 끝나지 않겠는대요?

**가족5** : 안 끝나요. 그 시간에는 우리 아저씨 내가 또 받아야 돼요. 그 시간에 일하다가도 와서 왜냐하면 혼자 돌아다니고 처음에 뇌경색 와서 입원했는데 그때 병원에 갔다 와서 다 돌아 다니려고 하고 붙잡아 다니고 보통 힘들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력이 떨어지시는지 집에 있어서 그래 재가 그런 교육 내가 없어도 당신은 집에서 늦게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어야 된다, 나가면 또 안 된다. 그런데 나가면 안 되니까, 전화 같은 것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잊어버렸다는 사람이 문자로 오잖아요. 오면 이거 큰일 난다 앉아라 오늘 또 어디 갔다 온다고 당신 나올 때까지 꼭 앉아 있어라, 갔다 온다고 앉았는데도 그때 뿐이지 항상 물가에 내 놓은 아이 같아서.

**사회자** : 이근희 어머니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족4** : 저희는 남편이 상당히 부지런해요. 그 새벽에 4시 반 정도 왜냐하면 옛날부터 종교 생활을 해 갖고 새벽 기도 4시 정도가 되면 첫 번에 깨. 어쨌든 간에 요새는 조금 안 다니시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살살 움직이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방은 따로 쓰고 있으니까 그때 살살 내가 깰 봐 살살 돌아다니다가 6시쯤 되면 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말짓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당신이 들어가서 씻는 거 외에는 그러고서는 아침 같이 먹고 그다음에 앉아서 TV 보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오후가 되거나 오전 중에 어쨌든 나가요. 그 동안에는 이게 갇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갇히고 나도 갇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 갖고 바깥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자 그래 갖고 쪽 걸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쪽 걸었어요.

**사회자** : 동네를 걸으시는 거예요?

**가족4** : 동네 거기 앞에 논 있는데 거기 가서 걷고 아침 저녁으로도 걷고 요새는 또 그러고서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일부러 버스를 타고 온양에 와.

**사회자** : 같이 나가시는 거죠?

**가족4** : 같이 그래서 신청호로 가, 그래갖고 신청호를 돌고 와. 그래서 하루를 시간을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저녁에 한 다섯 시쯤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씻고서 저녁 먹고 어쨌든 저녁만 먹었다면 7시도 좋아 6시 반도 좋아 그냥 자야 돼요. 딱 그때 들어가면 새벽 4시 반까지 자요.

**사회자** : 그러면 하루 중 계속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가족4** : 네.

**사회자** : 같이 계시는 거네요. 어머니 시간은 특별히 없으신 거네요?

**가족4** : 옛날부터 우리는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 갖고 둘이 생활이 지금 거의 47년, 48년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회자** : 특별히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좋아지거나 지금 초기 증상이신 거잖아요?

**가족4** : 그런데 그 분도 우리도 뇌경색으로 그렇게 아파 갖고서 병원에 중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치료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약물 치료하고 이러면서 이게 나빠진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우울감도 왔고 그런데 지금은 식사도 잘 하고 농담도 잘 하고 뭐 얘기도 잘 하는데 그 말을 금방 잊어버려서 걱정이죠.

**사회자** : 하야튼 지금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이겨내시려고.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 말씀해 주세요. 윤구희 어머니?

**가족3** : 우리는 그냥 젊어서부터는 노다지 농사 짓는 사람은 노다지 같

이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텔레비를 안 봐요. 텔레비를 안 보고 이런 뒤로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뒤로 텔레비를 안 보고 저녁 식사하면 자라고, 나도 자라고 그러고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어요. 더운데도 초저녁부터 너무 자라고 그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자** :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가족3** : 일어나는 거는 요새는 6시 그렇게 일어나지만 저기 할 때는 5시 그렇게 일어나게 되지. 그리고 일을 내가 이 근처에다 밭이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하면 옆에 와서 거들기는 해요. 거들기는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여자 일이 더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한다고 나서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사회자** : 아침에는 어찌 됐건 소일거리 위주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가족3** : 아니죠. 식사하기 전에는 아니지.

**사회자** : 낮에 점심 드시기 전에?

**가족3** : 여기 보건소에서 자꾸 성심병원 약 거기를 자꾸 가라고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두어 번을 안 갔어요. 신경과 약을 드시는데 거기는 왜 가나 똑같다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꿈에 너무 시달려요. 항상 할아버지 도깨비 불 달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저녁에도 무섭다고 무섭다 소리를 잘 하세요. 무섭다고 그러고 거실로 나오고 그래 갖고 보건소에서 성심병원 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 갖고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하루치를 주더라고요. 약을. 하루치를 주셔서 그 약을 드시고서 또 오래요. 이틀치를 주는 거예요. 이틀치를 주는데 꿈 그걸 못 꺾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은 2주치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는 3주치를 주더라고요. 월요일 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약 드신 뒤로는 꿈을 꾀다고 해도 무섭다고 거실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회자** : 그러면 주중에 농사일 쪽 하시는 거고 소일거리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중간중간에 병원 다녀오시는 거고 그 정도 하시는 거죠?

**가족3** : 일을 그렇게 해도 그 한 거를 몰라요. 모르고 애들이 왔다 가도 왔다 간 걸 모르고.

**가족2** : 저희 말씀 드려야 되나요 어머니?

**사회자** :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족2** : 저희가 여섯 식구 살고 있는데 큰 애는 지금 취업을 했고 작은 애는 제대를 어저께 했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섯 식구이니 까 일단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주간보호 활동을 하셨는

데 거기서 당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드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웨딩이 0까지 올라가시는 바람에 거기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요양보호자님을 불렀어요. 불려서 처음에는 오후에 오셨으면 했는데 요양보호자들이 오후에 오는 걸 다 안 좋아해가지고 오전에 오시고 아버님 때문에 치매가 오신 걸로 우리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약간 죄책감도 있으시고 내가 죽기 전까지 책임지겠다 아버님이 88세인데 팔팔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전에 요양보호자님이 8시 반에 오셔가지고 11시 반까지만 해 주시는데 그때 오실 때 이제 점심까지 챙겨드리고 설거지는 아버님이 하시고. 저는 또 제가 오후 출근 이어가지고 오후 출근이기는 한데 11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쨌든 아침 차려드리고 뒷정리하고 저는 출근을 하고, 그때 보호자님이 오실 동안에 아버님이 정신 아버님 시달리시니까 아버님이 제일 많이 시달리세요 계속 아버님이 안 계셔 갖고 아침에 아버님 한 게 운동하고 오시고, 또 아버님 성당 활동해서 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시고. 그러면 보호자님이 가면 아버님이 낮 시간을 어버님하고 하는데 어버님이 보호자님이 올 때 전에는 같이 요가를 하셔 갖고 보호자님이 요가를 가르쳐드리고 싶는데 어버님이 방광염의 질 쪽이 또 안 좋으세요. 활동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자꾸 보호자님하고 앉아서 색칠하고 그런 것만 하고 싶어 하세요. 어버님 자체가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해서.

**사회자:** 밖에 못 나가시는 거고 안 나가시는 거고?

**가족2:** 그래서 휠체어를 샀어요. 사가지고 하는 건데 어머님도 기본 따라서 마지못해 나가서 밖에 바람 쐬고 어머님은 나가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하세요, 원래가. 그래서 어머님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버님은 귀가 잘 안 들으시니까 유튜브를 들으시는데 항상 정치 유튜브 태극기 부대에 잡아야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버님이 굉장히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자다 일어나면 잡아서 때려 놓아야 되고 어버님이 잡혀 간다고 그리고 아들이 주말 부부가 돼가지고 주말마다 오니까 어버님 생각에는 아들이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넷이 된 게 아들이 원주에도 있다가 대구에 있다가 발령이 나니까 그때마다 며느리가 하나씩 생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며느리가 하나 있고 여기 며느리가 있고 그래서 어버님이 항상 불안해요. 유튜브도 맨날 잡아 가야 되는데 아들 잡혀가게 생겼지 남편 잡혀가게 생겼지 항상 불안 불안. 그래서 아버님한테 교육을 제가 저희가 시켜드려요. 그래서 아버님 유튜브 웬만하면 어버님 게시 때 그런 거 들지 말아라 아버님이 조심은 하는데 항상 어머님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사시고.

**사회자:** 그래도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 시간만큼은 밖에 나가서?

**가족2:** 오후 저녁에 도서관 같은 거 갈 거 있으면 그때 이미 가족들이

또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교대예요. 누가 나가면 누구 지켜 있고 누구 나가고 누구는 지켜 있고 그 정도로.

**사회자:** 가족 모두가?

**가족2:** 가족 모두가 다 메어 있어요.

**사회자:** 최옥희 어머님은 하루 어떻게 일과를 보내고 계세요?

**가족1:** 저는 지금 제가 치매 오게 생겼어요.

**사회자:** 같이 계속 붙어 계시는 거죠?

**가족1:** 요즘에 우울해서 죽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에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나 남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누가 하나 더 있대. 내가 자기 옆에 있어야지 의심을 안 하는데 작은 방이나 어디 가서 잠깐 내가 조금 쉬고 싶어요 자기하고 조금 그래서 단 30분이라도 쉬고 분리하고 싶어요. 작은 방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살금살금 와서 문도 살짝 열어 갖고 보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누구 하고 있냐고,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 저기에도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약을 먹기를 알츠하이머에, 파킨슨에, 인지장애에 해 갖고는 그랬었는데 이제 망상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커튼이 방에 말하자면 베란다 쪽에 커튼을 쳐놓잖아요. 그러면 저거 뱀이 기어간다, 그리고 쥐가 간다. 그리고 저 구석에 어떤 놈이 서 있다고 그런데 나를 의심을 하니깐 맨날 병원에서 쓰는 침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어를 해서 지금 자기는 혼자 쓰고 나는 또 나대로 내가 쓰던 침대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쿤이예요. 그래갖고 둘이 할 수 있는 침대인 게 맨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싫지, 내가 싫다고 하면 집어 뜬어 아무 데나 그래 갖고 내 핸드폰 보면 지금 처음에는 안 저기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딸들도 그래요. 엄마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그런데 잡아 갖고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꼬집어요. 그리고 고집도 옛날보다 얼마나 세지고, 옛날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었어요. 법 없이도 산다고 했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랬는데 고집도 세지고 소리도 크고.

**사회자:**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계속 같이 붙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개인 생활이 없으신 거죠 지금?

**가족1:** 그렇죠. 내 생활이 없어요. 그래 갖고 내가 그렇게 지금 4, 5년째 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 눈물 날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자꾸 나보고 처음에 와서 할 때부터 재결함을 하자 이거예요. 서류상 재결함 하자고 그런데 내 마음이 절대 재결함을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불쌍하니까 내가 와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결함은 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준다 해 갖고 의심을 해 갖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자기 눈으로 보니까 뭐 하는 것도 보고 맨날 우리 남편은 직장 다닐 때부터도 자기만 섬기고 내가 살아 갖고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을 줄 알지 자기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그 나이 먹어 갖고 내가 이혼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하죠.

**사회자:** 아까 앞에 서두에 우리가 주로 하는 연구 자체가 우리가 시설, 집안 내부에서 어떤 불편한 점 그리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환자들이라든가 가족 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 바깥 말고 집안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할 때 어떤 부분들을 불편해하시는지 다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채증자 어머니?

**가족5:** 우리도 또 보건소에서 와서 해 주신다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기 어렵고 화장실 가면 그렇기 때문에 붙잡는 거, 화장실도 그런 게 없으려면 어렵잖아요. 붙잡고 매트 까는 것도 해 주신다고.

**사회자:** 그거 외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거 없으세요?

**가족5:** 그냥 불편한 거야 많지만서도 그거 다 어떻게 얘기해요.

**사회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게 불편하셨는지?

**가족5:** 우리 아저씨가 일어나고 어찌고 그러면 항상 편안하게 다 모든 것을 다 진짜 그것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 편하게 집 구조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높낮이 같은 것도 높고.

**사회자:** 집 자체가?

**가족5:** 치매 환자 있는 데는 편하게 걸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지금 미리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거죠?

**가족5:** 네.

**사회자:** 다들 단독주택이세요? 아파트 계시는 거고?

**가족1:** 저는 임대 아파트. 우리는 앞 베란다이고 화장실이고 요즘에 고무 해 갖고 엮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개인으로 사가지고 화장실도 다 깔고 베란다도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는 해도 조금 저기는 하거든요. 나는 제일 불편한 게 우리 남편이 주간 보호라도 가서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사회자:** 그 시간만큼은?

**가족1:** 그 시간만큼은 나도 조금 생활이 내가 가서 목욕탕 가고 싶으

면 갈 수도 있고 어디 가서 공원에 가서 한 번 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사회자:** 거동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가족1:** 집에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식탁에 와서 밥 먹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집을 잊어버리고 못 찾아오니까.

**사회자:** 그 얘기는 이따가 바깥 얘기는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아까 손잡이나 이런 것들 말씀 주셨던 거고, 이근희 어머니 말씀 주십시오.

**가족4:** 문지방도 있고, 화장실 문턱도 있고, 뭐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래서 잘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다리에 힘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데 그리고 화장실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도 가 갖고 검사 다 했는데 다 깨끗해요. 그런데 소변 양이 지극히 작아요. 소변량 검사도 하더라고요. 5CC 밖에 안 나왔대요. 한마디로 2시간 참고 갔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들락날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장실을 가 내가 오줌이라고 5CC 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그저 웃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밤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해. 남자 소변기라도 하나 더 들여다 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 열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소변기 안 놓을 거 같아서 저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방에서 화장실까지는 또 거리가 있으니까.

**사회자:**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화장실까지?

**가족4:** 거리는 가깝게 있어도 그게 불 켜야 하고.

**사회자:**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가족4:** 왜냐하면 불을 안 켜는 때는 바깥에서 깜깜하니까 옛날 집이니까 그래서 넘어질까봐.

**사회자:** 조명도 어둡기도 하고?

**가족4:** 그 다음에 발이 맨날 찢찢하다고 발을 닦아서 맨날 물이 흥건한 거예요 바닥이.

**사회자:** 그러면 미끄러울 수 있는 거고?

**가족4:** 내가 그러지 본인한테 얘기는 저기서 내가 미끄러지면 나 큰일나, 내가 나 좀 생각해야지.

- 깔아야 돼요.

**가족4:** 제발 물 조금만 썬라.

**사회자:** 지금 일어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으세요?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 침대 생활하세요?

**가족4** : 침대 생활하죠.

**사회자** : 침대에서 쓰시는 거고 지금 어머니?

- 침대에서.

**사회자** : 안 그러면 바닥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 힘들죠.

**사회자** : 그래서 아까 침대를 임대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지금 어머니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집 안에서 불편하신 거?

**가족3** : 손잡이 안 해 주데.

- 돌고 있어요. 아직 순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사회자** : 어디서 손잡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3** : 화장실 들어갈 때.

**사회자** : 들어갈 때 손잡이요?

**가족3** : 들어갈 때 앉는데, 아직 안 했어.

- 침대 생활하셔요 아니면 이불 깔고 주무셔 집에서?

**가족3** : 침대에서 주무시죠.

**사회자** : 집 안에서 특별히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위험하신 거, 돌보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불편하시거나?

**가족3** : 불편한 거 그냥 이 양반이 방향 못 찾는 거.

**사회자** : 방향 못 찾는 거예요?

**가족3** : 문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요새 그걸 꺾어요. 거실에 불이 환히 들어오는데 그걸 꺾더니 지금은 깜깜하죠. 아직 그거 가로등이 지금.

-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집이 시골 집이잖아요. 재래식으로 해서 이 문턱이 높이가 다 틀려요. 아파트는 우리가 일자가 되는데 문턱이 한 뼘 이 만큼이 되니까 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아버님하고 여기 다 그렇잖아 화장실까지 5메타는 될 걸요 어머니도 꽤 길어요. 동선이 길어요. 그런데 가는 데까지 거실에 의자들이 있잖아 짚을 게 마땅히 없잖아 가는 동안.

- 부딪히죠.

- 그러니까 그 길 갈 동안 방향 감각 거기 서서 잊어 버리는 거죠 방향은 저기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동안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는 더 하잖아요.

**사회자** : 지나가시다가 다른 쪽으로 가시다가 다쳐본 적은 있으세요?

- 무릎 같은데 무릎에 많이.

**사회자** : 부딪히시고 그러세요?

- 부딪히니까 소파 같은데.

**사회자** : 거기다가 충격 보호하는 것들도 붙이시고 애들 우리 키울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 사각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집 자체가 구조가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멍들어 있어요.

- 항상 옆에서 보좌를 해야 돼요.

**가족2** : 저희는 저희가 돈 들여서 다 설치할 거는 다 설치했구요.

**사회자** : 어떤 거 설치 하셨어요?

**가족2** : 봉 같은 거 다 내가 사가지고 우리 의료보호기 화장실 거 침대 옆에 봉 설치할 거는 다 설치했고. 그 안에 저기 자물쇠도 우리가 사가지고 그런 게 또 딱히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 가지고, 사가지고 설치하고 화장실 갈 때 매번 불을 켜고 들어가셔야 되기는 하잖아요. 거기서 화장실을 지금 센서 등으로 바뀌야 되나 들어가는 드레스를 통해서.

**사회자** :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2** : 자꾸 거기서 그리고 어머니는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자꾸 없으시니까. 꼬꾸라지셔서 몇 번 다치기는 했을 때 넘어지셨는데 멍들 정도 그런 거 하고. 다른 거는 지금 계속 어머님 방광염 때문에 처음에는 기저귀를 저희가 신청했다가 받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안 주신다고 했다가. 또 주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기저귀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방수포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개인 돈으로 지금 사고 있고.

- 방수포도 개인 돈으로 사고 기저귀도 받아서 모자라요.

**가족2** : 저는 그 정도만 집에서.

**사회자** : 최옥희 어머니 집 안에서 불편하신 거 남편 분이?

**가족1** : 내가 불편한 거는 이틀에 한 번씩 샤워를 시키는데 진짜 16평 이라고 그러면 화장실이 적잖아요. 욕조도 없어요.

**사회자** : 욕조 없어요?

**가족1** :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자** : 샤워부스로 되어 있구나?

**가족1** : 네. 욕실에서 쓰는 의자 의료 거기에서 목욕 의자 그거를 사서 여기 앉아서.

**사회자** : 잘 하셨네요?

**가족1** : 그걸로 앉혀 놓고 그걸로 갖고 씻어서 말하자면.

**사회자** : 비누칠하고?

**가족1** : 양치하고 이런 거 다 씻어서 저기하고 닦아서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려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 했어 그러면 잠깐 일어서서 이쪽이다 하자고 그러면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나 못 일어나 이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거 같은데 못 일어난대요.

**사회자** : 그러면 일어나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나오실 때는 나오세요?

**가족1** : 밑에도 닦아야 그런데 붙잡을 거는 지금 없어요. 거는 없어요. 그거 있으면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화장실 귀퉁에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개인이 사서 쓰는 거.

**사회자** : 그거 약하잖아요?

**가족1** :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잡으라고 그랬더니 잡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붕이 넘어지니까 사람도 넘어져요.

**사회자** : 붕은 약하게 세워져 있을 거거든요?

**가족1** : 그래서 목욕차를 불러가지고 목욕차를 또 썼었어요. 그랬더니 개인 부담이 15%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차를 좀 몇 개월 했어요.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절대 목욕차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자** : 왜요?

**가족1** :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목욕 시키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잖아요. 두 분이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와서 휠체어로 데리고 내려가고 씻어갖고 또 옷 입혀서 집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때는 조금 수월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고 나는 무슨 냄새 내가 싫으니까 내가 씻겨요.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사회자** :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1** : 이유는 말을 안 했는데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고 한니까 좀 여자 분들이니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제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회자** : 채증자 어머니 지금 아버님께서 대소변 조금 많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최옥희 어머니 목욕 시키는 거에 어려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혹시 어머니는 목욕을 그래도 아버님이 혼자서 하시는 상황인가요?

**가족1** : 주간 보호센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해요. 하고 집에서 목욕탕에서 제가 의자 놓고.

**사회자** : 의자 놓고 그러면 집에 화장실에 욕조가 있는 거예요.

**가족1** : 욕조 없어요. 어떤 데 다녀가지고 참 내가 잠그면 다 절단 나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머리 같은 거는 감는데 그런 거는 잘 감고, 저도 집에서 계시면 더러워도 괜찮아요. 주간센터 가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생각 했어요. 보내지 말고 집에서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 어떨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내는데 피곤해요. 안 가려고 하고 어떨 때 저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사회자** :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어머니는 제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간다고?

**가족1** : 시간 맞춰야 되고 부족하더라고요. 의료공단에서 측정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사회자** : 한 달에 몇 시간?

**가족1** : 그게 뭐 있는데 솔직히 임대 받고 사니까 생활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15% 부담해야 한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사회자** : 자부담 해야 되니까. 참고가 되어서 이거는 말씀 드려보는 건데 제가 치매 어르신들 하고 할 때 집에서 씻기는 거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어르신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치매 환자의 가족 분들이 그 분들을 씻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제가 봤더니만,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욕조예요. 욕조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어르신이 앉아 있어 그러면 여기에 샤워기가 다 있어서 어르신이 앉은 상태에서 다 일부러 의자 놓고서는 앉혀드리고 이게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서 그거를 화장실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센서등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머니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증증은 아닌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아까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에 대표적인 증상이 망각, 환상 이런 게?

**가족1** : 팬티하고 메리야스만 입고 그냥 누가 잡아 온다고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려요.

**사회자** : 센서등은 센서로 내가 거기 가면 불이 탁 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매가 심해지면 치매가 탁 켜지면 누군가 있다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구나 라든지 그런 환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무조건 안 좋다는 아니고 센서등이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여쭙보고 싶었던 거는 약간 농사 지으면서 조금 지어진 지 조금 오래된 집에 사시는 상황

이니까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가거나 부엌에 물 한잔 마시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까지 가는 게 지금 어두운 거잖아요. 캄캄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는 이 스위치가 가까이 손에 잘 잡히게 있나요?

**사회자** : 위치가 어때요 스위치 위치가?

- 스위치는 방에서는 다 하나씩 있고 거실도 다 하나씩은 있죠 그런데 가서 내가 켜는데 저는 주로 내가 그냥 화장실을 밤에 가고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쓰시니까. 그래도 쌀 땀 싸줘도 당신이 갈 데가 있지 내가 노다지 해요. 집에서 최소 목욕탕까지 모시고 갔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도 어떨 때 우리 아저씨가 오줌 싸면 어떤 때 냄새 나고 그러면 나도 어떤 때 진짜 다른 방에서 자는 싶은데 또 아저씨 혼자 두고 또 밤중에 자다가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는 항상 있어야지 않으면 헛소리 하고 다른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손뼉 치고 막 그래요.

**사회자** : 집에 형광등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은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 거예요. 눈이 부신데 그 눈부신 것 때문에 이 환상이랑 이게 같이 겹치면서 이게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이거를 너무 어둡게도 아니고 너무 밝게도 아니고 그 어르신에 맞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형광등 불 너무 밝아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 우리는 계속 그 앞에다가 종이 대버렸어요. 눈 부시다고.

**사회자** : 그거는 부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 네.

- 저는 또 어디서 교육받았을 때 치매 환자들이 어두울수록 또 뭐가 있는 걸로.

**사회자** : 너무 어두워도 그렇고 너무 밝고.

- 저희는 너무 밝은데.

**사회자** : 우리가 췌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먹고 자고 먹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방에서 혹시 위험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채증자 어머니?

**가족5** : 주방에서?

**사회자** : 들어가세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가족5** : 주방은 우리 아저씨는 다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주방 가스 레인지는 그것 때문에.

**사회자** : 아버님이 그거를 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가족5** : 우리 아저씨는 그거 혼자 뒤져요. 뒤져서 여기저기 갖다 놓고 그래서 혹시라도 불 같은 게 위험해요. 라이터 같은 것도 위험하고 여

러 모로 위험해가지고 항상 우리 아저씨 오시면 나도 집에서 있어야 일하다 말고 옆에 앉아 있어야 해요.

**사회자** :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으신 거죠?

**가족5** :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사회자** : 이근희 어머니는 어떠세요?

**가족4** : 우리도 없어요.

**사회자** :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으신 거죠?

**가족4** : 본인이 밥 해 준다고 팔 다쳤다고 옛날 같으면 그걸 깔끔하게 잘 닦을 텐데 그냥 물 한번 쓱 뿌려 갖고 없어놓고 없어놓고.

**사회자** : 불을 쓰거나 이런 화구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가족4** : 안 써요.

**사회자** : 아버님은 지금 그래도 조금 굉장히 경증하신 상태인 거 같아서 부엌에서 그래도 조금 직접 칼을 들고 조리할 한다든지?

**가족4** :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팔이 아프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사과를 잘라라 오이를 잘라라 이렇게 칼 갖고서 깎아주고 이런 거는 잘 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고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회자** : 윤구희 어머니 부엌이나 지금 부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족3** : 20분 되면 불 나가는 거를.

**사회자** : 안전록?

**가족3** : 그거를 보건소에서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고장 났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사회자** : 고장 났는데 안 고쳐줬어요?

**사회자** :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가족3** : 그런데 우리 애들이 사다가 달았어요.

**사회자** : 부엌 안에서 특별히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가족3** : 네.

**사회자** : 그래도 가스가 다 파이프, 쇠파이프로 들어오시나 봐요? 고무 호수예요?

- 고무 호수예요. 우리는 방 밑으로 들어와 갖고 벽으로 타고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자** : 어머니 가스 타이머 안전록 20분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

- 우리 거는 안 된대요.

**사회자** : 고무 호수는 안 돼요.

**사회자** : 도시가스처럼 쇠파이프로 내려가 있어야.

**사회자** : 파이프를 자부담 조금 3만원 4만원 내면 파이프를 깔아줘요.

- 파이프가 올라오려면 집을 대공사해야 되는데.

- 우리는 그냥 그거 달았어요. 20분 되면 자동으로.

- 그리고 또 가스레인지가 어느 일정 시간 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꺼지더라고요.

**가족2** : 저는 주전자 많이 태워 먹다가 결국에 설치했고 그리고 어머니 방광 때문에 소변줄을 몇 번 찻았는데 그거를 빼달라고 그래서 못 빼게 했더니만 가위하고 칼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위 칼을 다 감추다가 지금은 또 아직은 소변줄 같은 거 안 하시니까. 지금은 또 다시 꺼내오기는 했는데 전에 한 동안 다 숨겨놨죠.

**사회자** : 혹시 자해 그러니까 뾰족한 칼이나 가위 그런 것도 자해 도구이지만 이렇게 뾰족한 가등이나 모서리나 이런 데다가 자꾸 부딪히는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 우리 아저씨는 책상 못 종류 말하자면 망치 같은 거 그런 거는 막 두드려 그래서 분질러 놓고 우리 아저씨는 그래서 책상 거기에다가 가스렌지 올려놓고 쓰는 거라. 그런데 거기다 쓰면 그걸 갖다가 두드려서 상처를 내고 절단을 내요 드라이버 같은 거를 쑤시고 그래요. 우리 아저씨.

**가족2** : 아버님이 많이 맞으셨죠 많이.

**사회자** : 어머니가 아버님을?

**사회자** : 남편이 아닌 걸로 자꾸 다른 남자로 생각을 하시니까?

**가족2** : 외간 남자가 자꾸 집에 있고 아버님은.

**사회자** : 지금 외부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집 밖으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집 안쪽으로 집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집 밖에서 위험한 부분, 일단은 우리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오실 때 다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차로 오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 버스 타고.

- 저는 좀 멀어서 택시 타고.

**사회자** : 택시 타고 오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차매환자 분들하고 밖에 나가실 때 아까 우리 어머니는 아직 초기시다 보니까 버스 타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계셨던 거 같고 그런데 혹시 하루 중

밖에 나가는 시간 지금 농사 일도 하시니까?

- 우리 아저씨는 밖에 그 전에는 아프지 얼마 안 되어서 2,3년 전에 그때는 온양 같은데 병원 다니셨어요. 버스 타고 그런데 지금은 병원 가면 택시로 가야 되지 그냥은 못 가시고 또 혼자 저렇게 가면 제 생각에는 가다가도 길을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옆에서 저만 치만 갔다 오자고.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또 기분이 저기 하면 갔다 온다고 해서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비관한 소리를 또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회자** : 밖에 나가서 잊어버려가지고 신고를 하시거나 그런 적은?

- 신고는 안 하는데 첫 번에 뇌경색 오고 우리 아저씨는 바깥을 돌아다니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 찾으러 가다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1년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잠시 안 보이면 또 나 찾으러 다니면서 도랑에 빠져서 해가지고.

**사회자** :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잃어버리셨을 때?

- 동네 사람이.

**사회자** : 알려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 아저씨 저기서 자빠져서 도랑에 자빠져서 내가 집에다 모셔왔다고 갔었고, 한 번은 내가 눈이 있는데 오셨는데 금방 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갖다 놓고 가시라 했더니 금방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뚝 부러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온양 충무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어, 우리 아저씨는 그렇게 막 다니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전 보다는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약을 지금까지도 잡았고 있죠.

**사회자** : 제가 관점을 밖에 돌아다니실 때 어디 외출하고자 하실 때 불편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근희 어머니 지금 나가시잖아요. 밖에 나가실 때 불편하신 부분은 없으세요?

**사회자** : 제가 조금 사회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 게 우리 남편을 데리고 신발을 신겨어 집에서, 신겨서 문을 열고 나갔어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눌렀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서 잠깐 가스 켜나 그러고서 여기 잠깐 있으라고 후다닥 들어가서 가스를 끄고 왔는지 확인하고 문을 나왔는데 없어졌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니면 주택이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마당 거쳐서 나왔어요. 집앞에 도로 나와가지고 걷다가 저거 보라고 같이 걷다가 눈두렁이나 이런 데에 갑자기 거기로 갑자기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왜 조금 촌 지역으로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기는 없는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 많잖아요. 그런데 건널 때 무작정 건너려고 그래가지고 잡고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영간히 좋아서 내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것

도 걱정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목 말라서 어디 슈퍼 가서 뭐라도 마시려고 잠깐 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주워담아서 혼자 막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고서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내 집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나가서 뭘 하다가 같이 돌아올 때까지를 쭉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순간순간 어떤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5:** 우리 아저씨는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모시고 다닐 일은 별로 없었어요. 주간보호센터 거기서 조금씩 운동하시고 손 갈다가 만지는 그런 거 하시고 또 집에 오시면 그냥 또 씻고 저녁 잡숫고 자고, 일요일 같은 때에는 집에 있으면 먼 길이나 4백 미터 정도 그 정도 내가 어떤 때는 모시고 갔다가 집에 와서 있으라 그러고, 가면 어떨 때 자기가 몸이 또 시원찮으면 비판적으로 나갈 때 뭐 하러 가느냐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또 컨디션이 괜찮으면 간다면 또 그래 가자고 해서 간대요.

**사회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실 때는 바깥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그랬던 거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근희 어머니 지금 어떠세요 밖에 나갔을 때 말씀 들으셨는데?

**가족4:** 저희도 별로 그런 거 갖고서는 항상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사회자:** 지금도 운전하고 계세요?

**가족4:** 지금도 하죠. 제가 옆에서 있으니까 또 하는 거죠.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해요.

**사회자:** 마음에 불안함이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가족4:** 워낙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순간에도 이 사람이 운전 못 해 이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다니면서 한번 전철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환승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있는데 뒤따라와요. 하고 보통 때처럼 생각하고서 나만 훌쩍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없잖아.

**사회자:** 못 내리신 거예요?

**가족4:** 딱 당황을 했어요. 아이걸 어떻게 찾나 핸드폰도 내가 갖고 있고.

**사회자:** 어떻게 찾으셨어요?

**가족4:** 그래서 그 계단을 쭉 따라 내려갔더니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회자:** 다행이다.

**가족4:**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한번 놀랐나 봐요. 본인이 그때 그리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몰라, 그래갖고서는 뒤에 항상 어디 갈 때는 딱 항상 나 뒤에 내가 딱 붙어서 있으라고 그러죠.

**사회자:** 길을 건너거나 이럴 때 불편한 분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그런 사고도 없었던 거고?

**가족4:** 그리고 내가 항상 속으로 챙겨야 되겠다 생각해 갖고 남들이 볼 때는 나보고 과잉 반응이라고 해요.

**사회자:** 아니에요.

**가족4:** 우리 남편 친구들이 그래. 너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러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과잉 반응인가.

**사회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자:** 몰라서 그래요.

**가족4:** 그런데 남편 친구들은 그런다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

**사회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있어버릴 경우를 생각해서 뭔가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들은 있으세요?

**가족4:**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문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까지 못했어요. 항상 제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라는 그것이 붙으니까.

**사회자:** 혹시라도 본인 스스로 어딘가를 배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자:** 아산은 세종 같은 경우는 무궁화 배지 같은 거 나눠드리고 무궁화 배지를 하신 분들이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면 '저분 치매구나' 해 가지고 센터에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 여기는 없어요.

**사회자:**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 처음 들어봤어요.

- 하지는 않았는데 괜찮은 방법이기도 했는데 이진 너무 큰 저게 뭐냐 하면 내가 치매라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인.

- 그거 싫어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위치 추적기까지 해놔요.

**사회자** : 그거 때 맨날 듣는 소리예요.

**사회자** : 그걸 다 해 보셨군요?

- 우리는 경차설에 등록 해 놓고.

**사회자** : 이거 다 해놓으셨어요 지문?

- 보건소에서 안심센터 여기 와서 위치 추적기 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내가 끼워 놓기만 하면 이거 못 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해 갖고 나중에 안 되니까 가위 갖고 자르려고 이게 플라스틱처럼 생겼으니까.

**사회자**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 횡단보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호등이 아직 안 저기 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건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팔짱을 끼고 이르고 있어요.

- 우리가 챙길 수 밖에 없어.

**사회자** : 윤구희 어머니는?

**가족3** :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욕을 간다고 해도 애들한테 천천히 해라, 미장원에 간다고 하면 같이 가고.

**사회자** : 바깥 생활에서 위험했던 상황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족3** : 우리는 논 위를 가려면 도로를 건너야 돼요. 큰 도로를, 차를 많이 다니는데 건너야 되는데 거기 조심해라 소리를 내가 열 번도 더 해요. 열 번도 더 해야 차 예산 쪽 왔다 갔다 하는 차 온양 쪽 잘 건너라고 잘 건너라고 그러면 애들이 차 타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자전거도 있고 그러는데 자전거도 오려냈는데 애들이 자전거 뒤에 바퀴 두 개 달린 거 그런 게 있대요 사준다고 해도 창피할 걸 얼마나 저기 했는지 창피해서 싫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나 병들었다고 한다고 그런 거죠.

- 주위 사람들이.

**사회자** : 그럴 수 있죠.

**가족3** : 조그만 차 엉 하고 다니는 거 있어요. 면장도 그거 타고 다녀, 그런데 이 양반은 싫데, 사람들이 흥 본다고, 항상 같이 있는 편이에요.

- 여기도 항상 같이 있지.

**가족1** : 같이 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 도로 어린이예요.

**가족1** : 파킨슨이라서 발 걸음도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쏟아지고 엎어지려고 해요. 걸음도 파킨슨이라서 주적주적.

- 파킨슨 이렇게 이렇게 걸으시지.

**가족2** : 저희는 어머니가 질이 바깥으로 나와 계셔 가지고 다리 걷기가 쉽지 않으신 거예요. 가운데 다리 사이에 이리 나와서 걷지를 못하니까 항상 휠체어를 저희가 샀잖아요. 그런데 대역도 부끄럽고 사버렸는데 차에다 싣고 나가기 여기 앞애야 왔다 갔다 하시겠는데 아파트니까 그런데 어디 갈 때 차에다 그 휠체어가 하나 다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또 식구도 많은데 가기는 가지만 그 휠체어가 너무 커서 그게 참 이동 할 때 진짜 불편해요. 휠체어가 또 약한 거는 또 너무 약하고.

**사회자** : 튼튼한 거는 너무 부피가 크고.

**가족2** : 자리 다 차지하더라고요. 트렁크에 넣으면 아무것도 못 넣어요. 다 빼야 돼요.

- 휠체어가 젊은 사람들도 조작하기가 간단하지는 않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더해서 아예 휠체어가 무용지물이 된 집들도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아산 지역은 또 특이한 구조로 있어서 문 앞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문에서 계단을 내려가야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절대 휠체어를 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죠. 구조가 아파트 구조가 대도시는 안 그렇지만 저희 쪽 보면 구조가 계단을 가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어렵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자** : 외부에서 거동을 하실 때 어딘가 목적지로 가려고 하실 때 차량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움 없으셨어요?

- 어렵죠.

- 장애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데.

**가족1** : 장애인이야 되지 치매 환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요양사 자격증을 딸 때 그거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장애인들은 그냥 불러 갖고 가면 한번 1500원인가 주면 실어다 준다는데 치매 환자들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콜 벨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면 콜 벨 불러 갖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병원에서 끝나면 또 택시 콜 불러서 또 집에 가야 되고.

**사회자** : 그러면 그거는 부를 수는 있었는데 기사 분들의 그런 것들은 수월한가요 어떻게 태우는 거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가족1** : 그래도 콜 벨 아저씨들이 도와주세요. 파킨슨이라서 이렇게 높은데 올라갈 때 못 하니까 그러면 그 아저씨들이 옆으로 해 주고 나는 엉덩이 해 주고.

**사회자** : 일반 차량들은 우리 치매 어르신들 탑승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전용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이신 거네요?

**가족1:** 나는 장애인들 타는 차 한 번씩 불러서, 다른 것보다도 병원 갈 때만이라도 쫓으면 좋겠어요.

- 월 1회나 하다 못 해.

**사회자:** 특히 이근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상태니까 혼자서 조금 나가보고자 하실 때도 있을 거 같은데 혼자 밖을 돌아다니시거나 그러실 때는 없으신가요?

**가족4:** 그렇게 혼자서 어디 나가지는 않아요 생활 자체가.

**사회자:** 성격 자체가?

**가족4:** 성격도 그렇고 그냥 쪽 그렇게 살아와서 같이.

**사회자:** 혹시 아까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그걸 배회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집 밖으로 나가서 배회하다가 경찰 신고로 도움으로 다시?

**가족2:** 지문 인식 다하시고 거기서 어머니 혼자 가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등록도 거기서 경찰서에서 다 해 주시고 치매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본인이 가서 직접 가서.

**사회자:** 그때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셨을 때 집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2:** 다 잤죠 새벽 3시에 가서.

- 그러니까 문고리가 하신 거지.

**가족2:** 그래서 제가 경비실에다 얘기를 했죠. 다음부터 혹시라도 새벽에 할머니 하나 나가시면 제발 연락해 달라고 제가 경비실에다가 우리 집 앞 가까이 경비실에다가 인적 사항하고 하여튼 저번에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 나가신다고 그래서 어머님 계시냐고 그래서 집에 전화 걸었더니 아버님이 어머님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니신가 봐요.

**사회자:** 지금 이거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들려볼게요. 지금 밖에서 그런 경우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배회 하시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마을, 도시는 조금 다른 얘기가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연락을 주신 다든가 혹은 연락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락을 해 주신 다든가 그런 것들은 혹시 있으세요?

- 그런 거는 없죠.

**사회자:** 잃어버려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는 마을에서 방송을 해 주신 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방송을 해 주시.

**사회자:**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 없어요.

**사회자:** 윤구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가족3:** 나 눈에 안 띄면 우리 집이 좀 둘레가 커요. 살살 나를 찾으려 다녀, 눈이 띄면 자는 척 하지.

- 저는 두 번을 잊었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아산에서 딸네 집이 지금 여기 모종동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서 잠깐 금방 어디를 그렇게 나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보이면 금방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붙어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전화 연락을 하는 거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찾았고, 한 번은 혼자 자기가 온양을 갔다 온다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갔네요 자기는, 그런데 없어졌어 그래서 보니까 천안 쌍용 이마트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자기 사는 게 아니니까.

**사회자:** 모르시겠죠?

- 당황을 해서 핸드폰에다가 단축번호를 해 놨잖아요. 애들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나 밖에.

**사회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주신 거예요?

- 전화를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시간이 벌써 넘었으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나 여기 어디서 내렸는데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디서 글씨를 알잖아요. 보고 읽어서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여기 이마트인데 내가 보니까 온양 이마트가 아니네.

**사회자:** 그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네요?

- 지금은 금방 잊어먹어도 글씨는 읽어요. 그래갖고 온양은 아닌데 이거 온양 이마트가 아닌데 이거 이마트라고 해졌네, '어디요?' 하니까 옆 건물 간판을 얘기를 해 주라고 하니까 천안 이마트라고.

**사회자:** 만약에 이게 팔찌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찾았지만 뜯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 집에다가 놓고 나가버렸지.

**사회자:** 그러면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연동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은?

- 저기 하면 나한테로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눌러보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말하자면 저기 한 거를 내가.

**사회자:**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 그래 갖고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 가만히 있으라고, 의자 있냐, 없냐 하니까 승강장에서 그래서 딸 차를 갖고 가서

찾았어요.

**사회자:** 혹시 아까 잠금 장치를 집에 따로 직접 사비로 구입해서 그게 어머니 계시는 방의 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2:** 현관이죠. 그런데 그때도 화장실 가시려고 가셨대요 그런데 화장실 길을 잃어버려서.

**사회자:** 그러면 현관, 제가 이거가 중요한 거 같아서 현관이니까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면 요즘 다 자동 번호 이거니까 나가는 거는 이 거인데 어머니가 못 나가시게 하려고 이 자물쇠를 안쪽에다가 다신 거예요?

**가족2:** 네. 그리고 안쪽에 번호를 했더니 그것도 약간 어머니가 누르고 저기하고 또 아버님도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키로 바꿨어요. 그래서 키를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만 하고 어머니는 키가 없으면 번호면 또 혹시 돌리다가 열릴까 봐 그것도 번호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열쇠로 해가지고 열쇠를 따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사회자:** 집에서 지금 어머니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사람이 나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려면 열쇠로 각자 갖고 있는 열쇠로 이걸 열고 그 다음에 열고 나가는 거고?

**가족2:** 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잡고.

**사회자:** 어머니 집에서 혼자만 계시는 상황은 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2:** 안 만드는데 전에 아버님이 주무실 때 한 번 나갔다 오셨는데 아버님이 귀도 안 좋으시잖아요. 잠깐 졸았는데 뒤늦게 아버님이 놀라가지고 다행히 바로 밑에서 어머니를 찾아가시고 오기는 왔는데 아버님이 자는 사이에 나가시더라고요.

**사회자:** 지금 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이 어딜 나가든 붙어 있고, 어딜 나가든 붙어 있고 다 이러시니까 그런데?

-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 아버님은 아직까지 운전하시고 그래서 어저지로 차를 없애버렸어요.

- 지금 생각난 건데 제 대상자 분이 이렇게 같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깐 깨 빵을 거 하고 올게 하고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들어가서 나갔죠. 환자 분들이 나갈 때는 평소 보지도 못한 사람이 뛰어가서 버스를 타고 어찌 뺏든지 간에 간 거예요. 하루 종일 못 찾고 저

녁에 찾았는데 다 갔는데 또 못 찾아내서 그때는 지문 등록 안 했던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본인이 버스 정류장에 다음에 찾는데 서 있었대요. 버스 정류장에 그래서 어떻게 어딜 가서 서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생각난 건데 본인이 지나가는 버스가 자기 머릿속에 기억나는 번호가 있잖아요. 744가 항상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있어서 그 버스가 있는 다행히 그 버스가 보여서 그 버스가 서서 그걸 타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난 건데 그 버스에 무궁화 붙여놓으면 더 쉽게 탈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대상자도 불을 낸 케이스도 있기는 했어요. 집에서 혼자 가스 불이 불이 나서 거기는 가지를 못 해서 못 봤지만 그리고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대상자를 다녀봤을 때 어르신들이 여기는 다 자가지지만 자가가 아닌 경우가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하는 거.

**사회자:** 못하죠.

- 그런 경우에 뭐가 박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사회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잘 구하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피곤하고 그럴 거 같아서 한두 가지만 여쭙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이야기인데 여기 치매 안심센터 야산 보건소에 있으면 이 치매 안심센터에 지금 그래도 가족 분들이나 어르신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 우리는 그렇게 내가라도 따라다니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사회자:** 멀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 네. 멀어서, 자동차로 우리 아저씨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해서 신호 등 떨어졌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사고를 몇 번 냈거든요. 면허증 뺏어서 시청에 가서 내 면허증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까지 다 반납해 버렸어요.

- 이 양반은 그림 색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거를 한번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녀 딸이 그걸 사서 주더라고요 색칠하는 거를, 그거 다 하고 냈는데 나중에 내가 며느리 보고서 그것 좀 해서 아버지한테 선사 좀 하라고 했더니 왔대요. 그게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는데 보건소에서 여기서 이 양반 인지 어떤 양반인데 내가 얘기할게 참 고맙다고 그걸 좋아하셔요.

**가족2:** 우리도 화투 퍼줄 주셨는데 어머니가 되게 잘 맞추셨는데.

**사회자:** 화투 퍼들이요?

**가족2:** 화투 모양인데 이거 퍼즐로 맞출 수 있어요. 솔광 팔광.

**사회자:** 익숙하시네요.

**가족2:** 어머니가 자꾸 누가 훔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뽕뽕 숨겨 놓으면 못 찾아요. 또 어디다 숨겨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 글 쓰시고 달력에 날짜 군데군데 빠져서 그러면 쓰려면 그거 쓰고 색칠은 뭐 하려면 색칠하고.

- 저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문화재단에서 그 프로그램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했어요.

**사회자:** 다행이네요.

- 그러니까 '야 이거 좋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남도창이라는, 그런데 그건 특별하게 잘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갈 짓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 그거를 두 달 간 배웠어요. 어쨌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따라서 이리 오나라 부르고 했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조금 미숙하죠 우린 애들 같지는 않지 조금 가사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데 자꾸 자꾸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이리 오나라 하고 따라서 불렀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 노래 부르거나 뭐 이런 것들.

**사회자:** 지금은 그런 거 하고 싶으신데 지금 없어서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다니기 쉽지 않은 거죠?

- 없어요.

**가족2:**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니 모시고 오는 시간대 보호자님도 없을 때는 아버님이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회자:** 지금은 내 어머니이건 시어머니이건 안사람이건 바깥양반이건 같이 집에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들 요양원으로 보내야겠다 모셔야겠다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그게 사람마다 언제쯤 되면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요양원으로 보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게 있을까요?

-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갈 정도는 아무것도 모를 상태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도 저기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려워도 모시고 있어야지 그렇게 조금 저기한다 그런 거는 생각은.

-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비용 같은 거에서 그게 커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병원에 요양병원에다 모시고 싶지 환경이 조금 깨끗하게 그런데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다르잖아요.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그 수가가 높다고요

**사회자:** 거기다가 요양보호자도 붙여야 되고요.

-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루에서 1년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알아봐 줘야 되는지 좋겠어요.

**사회자:** 어머니 혹시 아버님 지금 너무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양반 더 이상 못 데리고 살겠네 이런 생각은 언제, 넘어갈까요 옆에 계시는데?

**가족3:** 아이고 거기까지 가면 어떡하대요.

**가족2:** 저도 20년 넘게 모셨잖아요. 저도 솔직한 애기로 많은 고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에 어머니가 그때 가장 안 좋을 때가 방광염하고 질염이 엄청 심하실 때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남편이 또 주말 부부잖아요.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을 빼서 배드러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모시고 가서 차로 가서 요양보호자님하고 같이 가서 소변 빼드리고 차로 다시 모시고 오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충무병원이 그런 거는 집에서 빼라는 거예요. 소변을 왜 여기 와서 빼냐고, 그런데 어떻게 소변을 빼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놀려서 그런데 제가 솔직한 애기로 진짜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무슨 소변을 내가 어떻게 나 상상을 할 수 없어가시고 제가 못 하겠다고, 저도 솔직히 모신 세월이 있으니까 요양병원에 모시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드니까 못 한다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나 더 이상 못한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소변까지 빼냐.' 이렇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가족들이 그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빼면 또 방광이 어머니가 자궁이 없으니까 방광이 이만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감당을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남편이 자꾸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비를 넘겨보려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제가 정말 안 모시고 싶었지만 모시려고 굉장히 했었어요. 나는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또 원주에서 올라와서 어머니 모시고 소변을 빼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병원 찾아서 소변 빼주는데 찾아가시고 또 소변을 빼고 이래서 지금은 또 약간 또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소변을 빼지 않아도 되는 상대까지, 저는 정말 이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런 물리적인 것까지 저한테까지 소변을 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많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그런 거는 너무 겁이 나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그런 것까지 안 하니까.

**사회자:** 처치까지는 안 하시니까?

**가족2:**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걸 이해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제가 지금은 약간 고비를 넘었는데 소변 빼고 그런 게 울까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죠.

**가족1:** 저는 요새 날마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나 하면 파킨슨이 있으니까 이게 굳어 가는 저기잖아요, 파킨슨이. 장이 운동을 잘 안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하다 보니 친구가 배를 찾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저씨가 76세인데 5학년 때면 의학적으로 얼마나 저기 한가요. 시골에서 살았을 땐데 우리 사는 남편 살았던 거 말고 남원이라는데 장수에서 태어났는데 남원이라는 도립병원을 가야 수술을 했어요. 차도 없고 경찰서 경찰서장 타는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나가서 수술을 했대요. 장이 파열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장 내시경을 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심해요. 그래서 변비 약을 지금 많이 먹고도 있는데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런데다가 물이라도 잘 먹여주면 되는데 물을 그렇게 안 먹으려고 해요. 고집이 물을 안 먹어 그래 갖고 돌덩어리 같아 그래 갖고 여기 예일병원에 가서 지금 관장을 집에서 내가 장갑 끼고 바세린 바르고, 바세린이 그 장갑 위에도 해가지고 그거 편해요. 내가 이혼만 했다는 것뿐이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나 혼자 어디다 풀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 우리 애들이 딸들이 그래요. 엄마 힘들어서 못 하겠으면 요양병원 이제 요양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양병원을 보내자니 돈이 너무 많고, 요양원에도 보내라니 우리 부담이 자부담이 또 저기 하면 20%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갑 끼고 하루에 이만씩 해요. 이거 크지도 않아요. 이만씩한 거 네 개, 다섯 개 고집이내줘야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물 먹고 해 갖고 해서 한다고 해 갖고 과일도 같이 주면 텅텅하다고 안 먹지.

**사회자:** 실질적으로 보내고 싶으시지만 이러한 어떤 여건이나?

**가족1:** 여건이 되면 여건이 되면 보내려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그래도 자식들 빛을 낳고 같이 살았었는데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했던 거지만 바라보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직장 다니고 할 때는 안 저기 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이 머리가 나빠져서 이렇게 생겼으니 이 사람을 보내면 쓰겠나 그래서 나는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사회자:** 요양시설에 보내면 얼마 드는지가 매년 통계가 나와요. 작년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1인 치매 환자 보냈을 때 28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요양병원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플러스가 안 된 게 거기에 또 사람 붙여가지고 계속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비싸요.

- 기본이 50만원, 80만원이예요 월 요양병원이.

- 요양병원이 어머니 지금 아산 시내에 기본 아산 천안이 본인 부담이예요. 150에서 200 사이 하거든요 수가가, 간병비 부담이 그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사회자:** 혹시 아까 제가 뭐 하는,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가기 전에 이거 꼭 내가 얘기를 해 주고 싶다. 우리나라 치매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는 꼭 좀 당신 보고서에 담아서 이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세종시는 무궁화를 한다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전 국민이 알게 그래야 누구든지 보면 무궁화를 보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난 그 것이 조금.

**사회자:** 그런데 또 이걸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만 치매이고 지금이 어르신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도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닌데 혼자 계속 뱅뱅 도시네, 그런데 그걸 또 어디다 연락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신고 할 때 신고번호가 그대로 114 이런 식으로.

- 신고 번호가 있어서 어느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가족2:** 저는 오늘 사실 어떤 심리 상담도 해 주시는 줄 알고 내심은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연차까지 내고 온 거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핀트를 잘 못 맞힌 거기는 한데 저도 제가 어머니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치매센터에 상담하고 제가 찾아서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아버님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게 필요해요. 저도 나름 내 스스로가 알아서 상담 받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면 얘기하면서도 제가.

**사회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이런 것들?

**가족2:** 얘기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요.

**가족1:** 요즘에 울컥울컥하면서 깜빡 잊어먹고 말하고 통화하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순간순간 래지더라고요.

**가족2:** 같이 우울증 온다니까요. 저희 딸도 저랑 개가 취업하기 전에 딸하고 저하고 같이 화병 약을 같이 먹었어요. 딸도 개도 집에서 제가 나갈 동안 개가 아버님 또 나가시고 하면 개도 또 나름의 집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화병 약을 같이 먹었어요.

**가족1:**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들은 정신이 맑잖아요. 몸은 아프지만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말을 하면 이해를 하고 그 말귀를 다 알아 듣는데 치매 환자들은 그게 아니야 들을 때 뿐이고 말 들을 때도 멀뚱멀뚱 엄청난데 바라보고 이 말을 제대로 저기 인지를 못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라리 암 환자 같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 시키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해 갖고 저기 하면 되는데 치매 환자들은 가족들이 문제예요 가족.

**가족2:** 그래서 취장암 검사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입원했는데 어머님이 본인을 요양병원에 버린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병실에서 다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머님하고 하룻밤 자려고 거기 병원에 있는데 저를 붙잡고 너무나 모진 말을 다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저 때문에 치매가 오고 저 때문에 제가 이런 데 보냈고 네가 다 너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병원에서 너무나 모진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20년 내 가 헛 모셨다. 그때 제가 마음을 확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끝까지 내가 어머님은 어떤 일 있어도 책임질 거야 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모진 말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치매 환자라고 다 이해하고 어머님이 어때서 나한테 이런 말한다는 거는 아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그런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꼭.

**사회자:** 추가적으로 더 말씀 주실 거는 없으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